

서울시 중성화 사업

성과보고 심포지엄



돌봄 취약층 대상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 사업,
성과와 과제

- ◆ 일시 11월 26일(화) 오후 2시 - 5시
- ◆ 장소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지하1층 다목적홀
- ◆ 주관 동물권행동 카라, 마들종합사회복지관
- ◆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성화 사업

성과보고 심포지움

일시: 2019. 11. 26. (화) 2PM - 5PM

장소: 상암 에스플렉스센터 지하 1층 다목적홀

프로그램

인사말씀

	서울특별시	
14:00-14:15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차현미 관장	

발제

14:15-14:40	01 발제 돌봄 취약층 대상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팀장
14:40-15:05	02 발제 취약층의 돌봄 현실과 상생복지를 위한 제도적 과제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토론

좌장 :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15:05-15:15	01 토론 토론	유화욱 카라 동물병원 수의사
15:15-15:25	02 토론 제주도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추진결과	장재연 제주시 축산과 주무관
15:25-15:35	03 토론 동물돌봄 취약가구와 지역에 대한 서울시 향후 대책	윤민 서울시 동물보호과 주무관
15:35-15:45	04 토론 돌봄취약층 대상 서울시 중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윤상준 데일리벳 대표
15:45-15:55	05 토론 토론	김철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사무관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15:55-16:30	01 Q&A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	------------------------	--

인 사 말 씀

서울특별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차현미** 관장

서울특별시 인사말씀

서울특별시

동물들의 제대로 된 돌봄이 중요한 이유와 찾아가는 동물복지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개나 고양이는 인간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어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사람과 모습만 다를 뿐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들의 태어남과 살아감 그리고 아프고 죽어가는 일련의 과정은 그대로 우리 삶과 사회의 적나라한 한 단면이 됩니다. 동물들의 삶의 모습에는 인간 삶의 구조적 실체적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회가 암담한 것처럼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착취와 학대, 방치가 용납되는 사회도 암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던 동물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 속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인간과의 절대적인 힘의 불균형 속에서 전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나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의무와 더불어 공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물들의 안전한 보호망을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와 복지 수준의 동반 향상을 위해 또 한편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동안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동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동물복지 문제는 큰 비중으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되거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왔습니다. 역으로 동물복지 문제가 사회 취약계층이나 재개발 지역 등에서 종종 노출되어 왔음에도 적합한 보호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동물의 존재는 무시되거나 인식했다 해도 대처 방법이 없거나 다룰 수 있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동물들은 방치 사육되다 결국 보호자가 돌봄을 포기하면 보호소로 보내져 안락사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중성화와 기본 예방의로 그리고 등록을 통한 평생 책임 돌봄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하고 반려동물 돌봄 교육을 제공하거나 길고양이 공원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동물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동물보호 행정에 있어 귀감이 되는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에 서만 연간 만여 마리에 가까운 동물들이 보호자를 잃으며 수 천 마리가 보호소에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의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성화, 동물등록 등 지원 사업은 ‘필요한 곳’을 찾아가 예방적 동물보호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동물보호사에 큰 발전으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투입 예산 대비 그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동물보호 활동으로서 저희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큰 자랑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평생 돌봄과 중성화가 일반화되고 애니멀호딩, 방치 사육 등 동물과 사람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 손 잡아주는 예방적 동물복지 활동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인사

차현미 (마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울시의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동물등록 및 건강검진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공존과 상생의 복지 기반 마련에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으신 카라에 대해 협약기관으로서 함께 성과를 만들어왔다는 점에 큰 자부심과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19년도 서울시 동물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잠재적 동물유기를 예방하고 번식으로 인한 유기나 방치 문제의 심화를 막고자 기획되었고, 해당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애니멀호더, 재개발 지역 등에 반려동물 건강검진과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우리복지관은 2018년부터 지역 내 주민들과 반려동물들이 함께하는 행복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해 오고 있었고 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현실적인 지원과 인식개선의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절감하던 시기에 금번 카라와 함께 진행된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올바른 동물 돌봄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 양육시 요구되는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준비되지 않는 반려동물 양육으로 인한 동물유기가 지속되고 있고 돌봄 사각지대에서 대책 없이 방치되는 동물들의 문제가 연일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소음과 안전 등 지역 내 주민 간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고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로 지역주민 간에 언쟁이 심하게 있고 길고양이 먹이 문제로 지역주민의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물권행동 카라의 본격적인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더욱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사업이 전개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카라의 중단없는 활동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의 동물을 위한 중성화 사업과 등록 및 건강검진 사업과 같은 의료지원 서비스 사업 실천 단계를 넘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화합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공존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 제

01 발제
돌봄 취약층 대상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팀장

02 발제
취약층의 돌봄 현실과 상생복지를 위한 제도적 과제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돌봄 취약층 대상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팀장)

1. 사업 추진의 배경과 문제인식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나 이 가운데 동물을 적정하게 돌보며 평생 반려생활을 누리는 가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2014년부터 의무화 된 한국의 반려견 동물등록률은 시행된 지 5년이 넘도록 3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 시보호소에 입소되는 연간 유기동물의 수만 10만 마리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 사설보호소 등에 흡수되는 유기동물의 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시보호소 입소 동물의 절반 가량은 죽음으로 귀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시보호소에서 ‘안락사’ 되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편에서는 강아지 공장에서 탄생하여 사람들에게 판매되기 위해 상품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와 고양이들이 있다. 이들은 ‘탄생-죽음’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유기동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한편 판매 업체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동물의 개체 증식에 별다른 주의와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 친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태어난 동물들을 주변에 확산 시키고 있다. 많은 경우 준비되지 않은 즉각적인 돌봄 생활이 시작된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를 높이는 올바른 정보 습득은 물론 반려동물 양육비용(사료비, 건강유지비, 미용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수이며 반려동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평생 반려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지 않고 무작정 양육을 시작하면 반려동물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 상태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부실을 합리화 하며 결국 돌봄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농림부의 2017년과 201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된 제일 큰 경로는 ‘지인으로부터의 분양’인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는 일반 가정의 개체 증식이 비밀비재하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2017년도에 이뤄진 서울시의 재개발 지역 동물유기 예방 민간협력 사업에서도 재개발 지역 반려가구의 다수가 고�령층이었으며, 반려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가족과 친지 혹은 지인의 사정에서 비롯된 갑작스런 동물 떠맡김으로 드러났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중성화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많은 유기동물의 발생과 무분별한 개체증식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 중성화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알려준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실제 동물유기나 동물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 여러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준비되

1)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44%), 펫샵에서 구입(21.3%), 지인에게서 유료로 분양(19.7%), 지자체나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입양(4.8%), 인터넷 구입(6.1%), 기타(4.1%)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2017.12)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50.2%), 펫샵에서 구입(31.3%), 지인에게서 유료로 분양(10.8%), 길거리에서 데려옴(5.5%), 인터넷 구입(4.9%), 보호시설 입양(3.7%), 재래시장 및 대형 마트에서 구입(1.5%), 채집(0.4%)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2018.12)

지 않은 돌봄 생활의 위험에 1차적으로 노출된 돌봄 취약층이 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번식 제한이 시급하고 중성화 수술을 확대하려면 저소득층 중성화 수술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서울시의 돌봄 취약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과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서비스와 동물등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적절한 돌봄과 번식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해 돌봄 취약층과 돌봄 취약층이 당면한 현실을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복지 현장에는 있으나 제도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동물들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동물들을 포섭해 가는 디딤돌이 되고자 기획 되었다.

1) 사업 개요

동물 유기 및 방지, 번식 예방을 위한 <돌봄 취약층 대상 반려동물 건강검진 및 집중 중성화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서울시의 2019년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어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본 사업을 진행 중이며, 돌봄 취약층의 개와 고양이에 대하여 중성화 수술, 건강검진, 동물등록 등을 제공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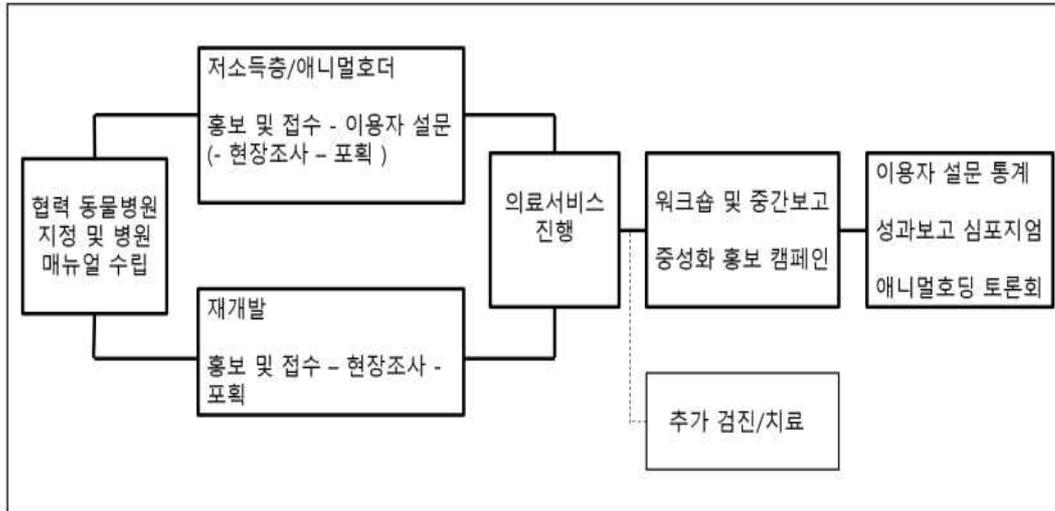
돌봄 취약층의 유형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저소득층, 인적/심리적 요인에 따른 애니멀 호더, 환경적 요인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구분하고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복지관과 주민센터 홍보를 통한 신청자 상시 접수와 제보를 병행 하였다. 일부 애니멀 호더나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은 사업단이 사전 현장조사까지 진행한 뒤 접수가 확정되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가운데 노인, 장애인 등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로 했고²⁾, 인당 지원 마리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치료지원을 추가 하였다. 신청자는 접수가 완료되면 서울시내 6개 협력 동물병원 가운데 1곳을 배치 받고 지정된 날짜에 직접 동물을 데리고 해당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신청자 직접 이동이 어려운 경우 사업단에서 동물 이동을 대리하는 방식이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의 경우 신청 양식을 별도로 두어 1인 이상의 케어테이커들이 신청을 하도록 했다. 접수가 완료되면 사업단에서 케어테이커와 함께 지역 특성에 따른 대응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한 뒤 공동 포획 일정을 수립하고 협력 동물병원을 통하여 집중 TNR(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등을 시행하였다.

2) 보통 저소득층이라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각종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신청은 보통 가구단위로 되는 것이 기본이며, 가구단위로 될 경우 함께 거주중인 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은 중위소득 60% 이내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을 포함한다.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납입 증명서 등을 소득증빙 서류로 이용할 수 있다.

2) 로드맵



2. 추진 과정

4월	5월	6월	7~8월	9~10월	11~12월
-복지관 네트 워크 강화 -신청방법 및 세부 절차 마 련 -홍보물 제작 -설문지 제작	-협력 동물병원 지정 -병원 매뉴얼 수 립 -사업홍보(저소득 층: 복지관/주민 센터/구청) -신청 접수	-사업홍보(재 개발) -신청접수 -의료서비스 진행	-중성화 홍보 (버스영상 /SNS) -의료서비스 진행 -신청접수, 포 획 및 현장조 사	-워크숍 -중간보고회 -홍보물품 제작 -중성화 홍보(옥외 행사) -의료서비스 진행 -신청접수, 포획 및 현장조사	-이용자 설문 통 계 -성과보고 심포지 엄 -애니멀호딩 토론 회 -의료서비스 진행 -사업 평가

3. 사업 결과

오는 12월 25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본 사업은 현재(11월 12일 기준) 363마리의 중성화 수술과 322마리의 건강검진, 383마리의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등 총 1,068건의 동물 의료서비스를 진행하였다. 의료서비스가 진행된 동물 기준으로는 486마리, 접수된 신청자 기준으로는 280인이다³⁾.

〈 돌봄 취약층 대상 반려동물 건강검진 및 집중 중성화 사업: 총 1,068건의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2019.11.12 기준) 〉

	일반	취약가구 (저소득/애니멀호더)	취약지구 (재개발)	합계(마리)
중성화 수술	-	321마리	42마리	363마리
건강검진	-	321마리	1마리	322마리
동물등록	81마리	255마리	(47마리)	383마리
합계(건)	81건	897건	90건	1068건

이 가운데 취약지구(재개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의료서비스(52마리, 90건)를 제외하면⁴⁾, 현재 275인 신청자의 반려동물 434마리가 동물등록,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등을 받았다.

〈 신청자 275인의 저소득 여부, (단위: 명) 〉

소득 유형	신청자 수	비고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139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58	
일반	77	동물등록으로만 한정
확인중	1	
합계	275	

〈 신청자의 의료서비스 대상 반려동물 434마리의 기본 정보, (단위: 마리) 〉

	입컷	수컷	확인중	합계
개	192	151	8	351
고양이	47	31	5	83
합계	239	182	13	434

3) 취약지구(재개발)로 접수된 신청자 5인을 취약가구 신청자 275인과 더하면 현재 총 신청자 수는 280인이다.

4) 취약지구(재개발) 길고양이 대상으로는 5개 신청접수 지역 가운데 현재 2개 지역 지원 완료, 1개 지역 지원중, 2개 지역 지원 예정이며, 지금까지 동물등록 47마리, 중성화 42마리, 건강검진 1마리, 치료 9마리 등의 의료서비스가 진행된 상태이다. 집중TNR시 중성화 목적의 포획 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의 포획도 일부 이뤄졌는데 여기에서는 본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된, 공통된 의료서비스의 내용이어야 하므로 중성화와 함께 병행된 치료 및 치료목적 포획 등은 건수에서 논외로 한다. 한편 표 안에 괄호 표시된 길고양이 동물등록은 모니터 목적으로 동물권행동카라 앞으로 진행되었다.

〈 반려동물 434마리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내용, (단위:마리) 〉

의료서비스	동물 수	비고
동물등록+건강검진+중성화 수술	224	
건강검진+중성화 수술	95	
동물등록	113	
동물등록+건강검진	2	
합계	434	

신청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30%이하)를 포함하여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중위소득 60%이내)의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되, 일부 동물등록의 경우에 한하여 중성화 지원 사업 홍보 차원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동물등록을 무료 지원하였다. 일반 시민에게 제공된 동물등록은 77명, 81마리 이다.

취약지구(재개발)를 제외한 신청자 275인 가운데 이상의 일반 시민 77인을 제외한 저소득층 198명을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애니멀 호더)로 보고 이들에게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신청자 가운데 취약가구 198인의 의료서비스 대상 반려동물 353마리의 기본 정보, (단위: 마리) 〉

	암컷	수컷	확인중	합계
개	159	105	8	272
고양이	46	30	5	81
합계	205	135	13	353

본 자료집에는 10월까지 취합하여 1차 통계 분석을 돌릴 수 있었던 저소득층 151명에 대한 설문 결과를 수록하였으며⁵⁾,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 자료를 추가하여 2차 통계 분석을 돌릴 예정이다. 이용자 설문 조사의 방법은 설문지에 바탕한 1:1 서베이 조사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돌봄 취약가구 151인에 대한 1차 통계 분석의 세부 내용은 별첨으로 같음하고 여기에서는 주요 내용만 소개하기로 한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는 남자 39명(25.8%), 여자 112명(74.2%)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정도 높았다.

○ 연령의 경우 50대 33명(22.1%), 20대 26명(17.4%), 40대 25명(16.8%), 30대 21명(14.1%), 10대 이하가 19명(12.8%), 60대 이상 25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5) 본 자료집에는 취약가구 신청자 151인에 대한 '서울시 돌봄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실태조사' 1차 통계분석 결과가 별첨 수록되어 있다. 최종 통계분석 결과는 별도의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 북부가 52명(34.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서울 서부(31.1%), 서울 동부 31명(20.5%), 서울 남부 21명(13.9%) 순으로 나타났다.

○ 주택형태의 경우 연립/빌라/다세대 주택이 69명(46.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파트 63명(42.0%), 단독주택 18명(12.0%)의 비율을 보였다.

○ 가구형태의 경우 2세대가 78명(5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인 세대(혼자 거주)가 46명(30.7%), 1세대(부부)가 12명(8.0%), 3세대와 기타 세대가 각각 7명(4.7%)의 비율을 보였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구간은 100만원 미만이 40명(3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200만원 이상 32명(25.8%), 100~150만원 미만이 31명(25.0%), 150~200만원 미만 21명(16.9%) 순으로 나타났다.

○ 동거가족의 수는 3명이 32명(30.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명이 26명(24.5%), 1명이 24명(22.6%), 4명이 19명(17.9%), 5명이 5명(4.7%)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반려동물 정보

<응답자 151인의 반려동물 187마리 기본 정보>

	암컷	수컷	합계
개	98	56	154
고양이	21	12	33
합계	119	68	187

○ 양육하는 반려동물 수의 경우 1마리가 105명(69.5%)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2마리가 41명(27.2%), 3마리 이상이 5명(3.4%)의 비율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연령의 경우 1~3년 미만 63명(38.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3~5년 미만 37명(22.8%), 1년 미만 30명(18.5%), 5~10년 미만 28명(17.3%), 10년 이상 4명(2.5%)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중 '개'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인 '개'의 연령으로는 1~3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8명(35.8%)으로 가장 많고, 3~5년 미만 32명(23.9%), 1년 미만과 5~10년 미만이 각각 25명(18.7%), 10년 이상 4명(3.0%)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중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인 '고양이'의 연령으로는 1~3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5명(53.5%)으로 가장 많고, 1년 미만과 3~5년 미만이 각각 5명(17.9%), 10년 이상 4명(14.3%), 5~10년 미만 3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지출 비용의 경우 50,000~100,000원 미만이 63명(43.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100,000~200,000원 미만이 40명(27.8%), 30,000~50,000원 미만과 200,000원 이상이 각각 14명(9.7%), 30,000원 미만이 13명(8.6%)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 중 반려동물을 과거에 키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있다'가 76명(51.0%), '없다'가 73명(49.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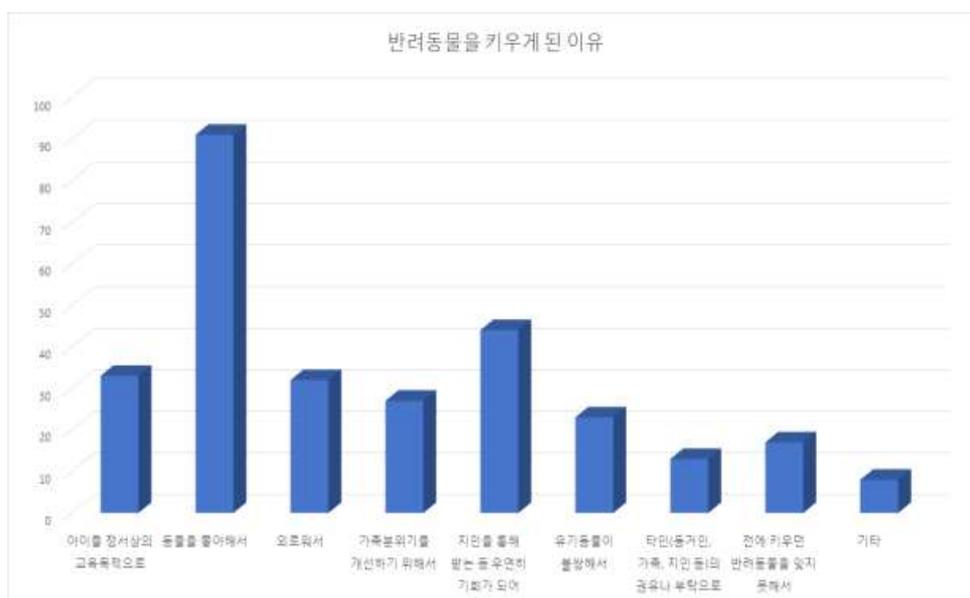
○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키운 기간을 확인한 결과 10년 이상이 22명(37.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1~3년 미만 16명(27.6%), 5~10년 미만 11명(19%), 3~5년 미만 7명(12.1%), 1년 미만 2명(3.4%)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의 과거병력 및 현재병력을 확인한 결과, 과거병력이 '있다'라는 응답자가 26명(19.5%), '없다'라는 응답자가 107명(80.5%)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병력에 관한 응답으로 '있다'라고 한 경우가 17명(13.5%), '없다'라는 응답자가 109명(86.5%)으로 나타났다. 과거병력에 관한 의견으로는 피부병이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눈염증, 귀염증, 심장사상충, 홍역 등의 응답이 있었다. 현재 병력에 관한 의견으로는 피부병이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심장사상충, 방광염, 관절염 등의 의견이 있었다.

○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응답으로는 '건식/습식 사료'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71명(96.1%)으로 거의 대다수이고, '잔반'을 준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3명(1.7%) 있었으며 기타로 4명(2.2%)이 응답하였다.

○ 반려견 산책빈도를 확인한 결과, 매일(43.8%), 주 2-3회(22.3%), 주 4-6회(12.3%), 주 1회(10%), 아주 가끔 한다(6.9%), 전혀 안한다(4.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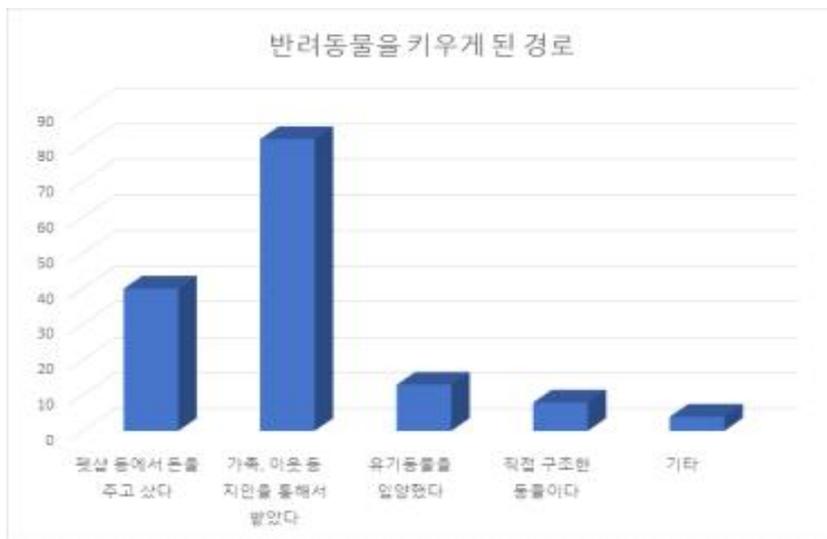
(3)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와 경로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조사결과를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동물을 좋아해서 키우게 되었다고 응답한 이가 91명(3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

히 기회가 되어서 키우게 되었다 44명(15.3%),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목적 33명(11.5%), 외로워서 32명(11.1%), 가족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27명(9.4%),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23명(8.0%),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17명(5.9%), 타인(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권유나 부탁으로 13명(4.5%), 기타의견이 8명(2.8%)으로 나타났다.

○ 성별,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동물을 키운 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가구형태에 따라 키우게 된 이유에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3세대 가구의 경우 '가족분위기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1인세대(혼자 거주) 가구는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3세대 가구와 2세대 가구의 경우가 '아이들 정서상 교육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향이 있었다.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를 확인한 결과 가족, 이웃 등 지인을 통해서 받았다가 82명(55.8%)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펫샵 등에서 돈을 주고 샀다가 40명(27.2%),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가 13명(8.8%), '직접 구조한 동물이다'가 8명(5.4%), 기타의견이 4명(2.7%)으로 나타났다.

(4) 반려동물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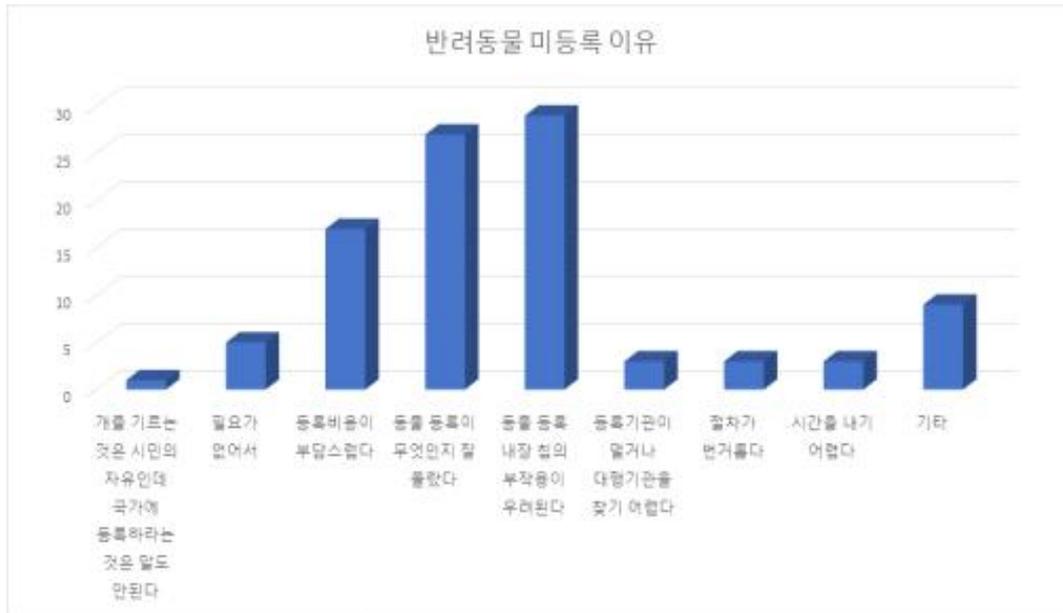
○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응답으로는 미등록 94명(56.3%), 등록 73명(43.7%)으로 응답하였으며, 동물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45명(65.2%), 인식표 24명(34.8%)으로 응답하였다.

○ 반려동물 등록제 인지 유무에 관한 조사결과를 확인할 결과 '예'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39명(92.7%), '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1명(7.3%)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로는 TV/라디오 방송을 통해서가 48명(34.8%), 인터넷(카페/블로그)을 통해서 32명(23.2%), 동물병원을 통해서 22명(15.9%), 가족/친척/친구/지인을 통해서 20명(14.5%), 신문/잡지를 통해서 4명(2.9%),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서 3명(2.2%) 순

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도 9명(6.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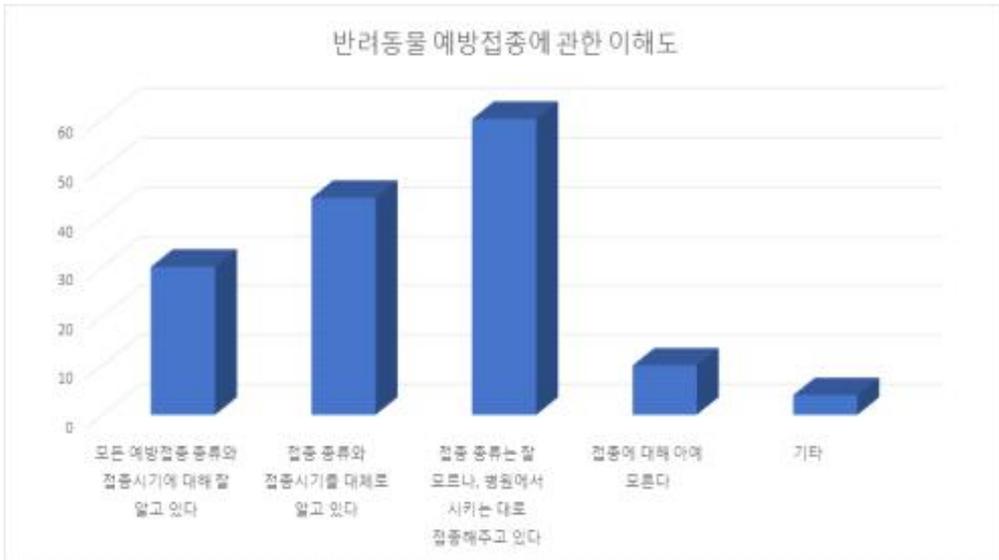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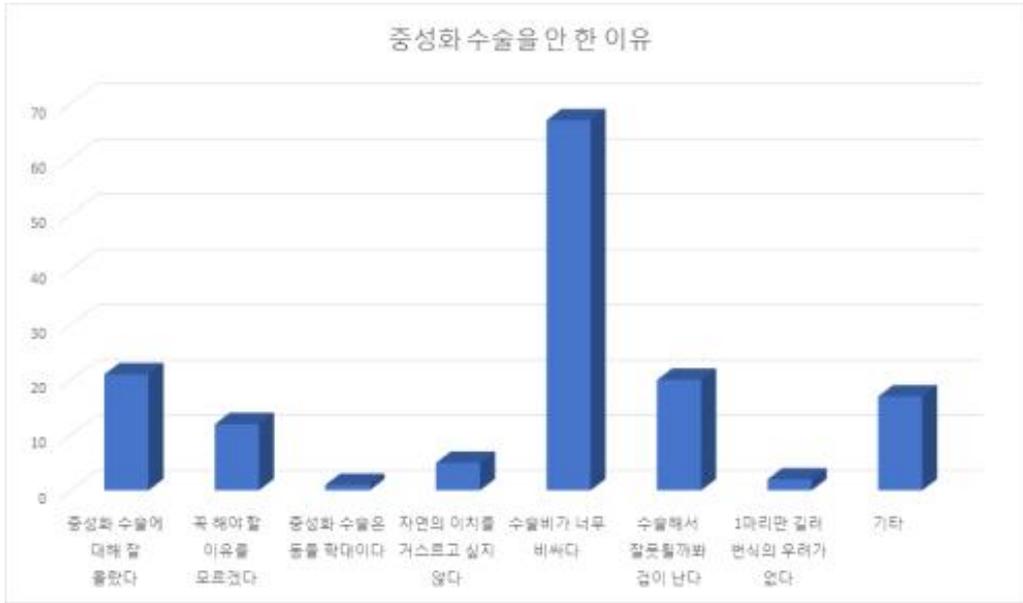
○ 반려동물을 등록한 이유에 관한 응답으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가 78명(8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원금을 받고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가 10명(10.3%), 법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등록했다가 6명(6.2%), 지인의 권고로 등록했다가 3명(3.1%)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을 등록 안 한 이유에 관한 응답으로는 동물등록 내장형 칩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가 29명(29.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동물등록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라는 응답 27명(27.8%), 등록비용이 부담스럽다가 17명(17.5%), 필요가 없어서가 5명(5.2%), 등록기관이 멀거나 대행기관을 찾기 어렵다, 절차가 번거롭다, 시간을 내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이도 각각 3명(3.1%), 개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가 1명(1.0%)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도 9명(9.3%)이었다.

(5)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

○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이유에 관한 조사를 확인한 결과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가 67명(46.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는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가 21명(14.5%),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가 20명(13.8%), 꼭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가 12명(8.3%),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가 5명(3.4%), 1마리만 길러 번식의 우려가 없다가 2명(1.4%),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이다가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 17명(11.7%)으로는 어려서, 시간이 없어서, 잠복고환이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집에 데려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할머니의 반대 등이었다.



○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를 확인한 결과 접종 종류는 잘 모르나,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접종해주고 있다가 60명(4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접종 종류와 접종시기를 대체로 알고 있다가 44명(29.7%), 모든 예방접종 종류와 접종시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가 30명(20.3%), 접종에 대해 아예 모른다 10명(6.8%), 기타 4명(2.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의 경우 집에서만 키우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다 등의 내용이 응답되었다.

○ 반려견의 예방접종을 확인한 결과, 반려견 종합백신을 새끼 때 해줬다가 77명(6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1년에 한번이 34명(27.6%), 안해준다가 8명(6.5%), 원지 모르다가 4명(3.3%)로 나타났다. 광견병 백신의 경우 1년에 한번이 51명(42.1%), 새끼 때 해줬다가 50명(41.3%), 안해준다가 12명(9.9%), 원지 모르다가 8명(6.6%)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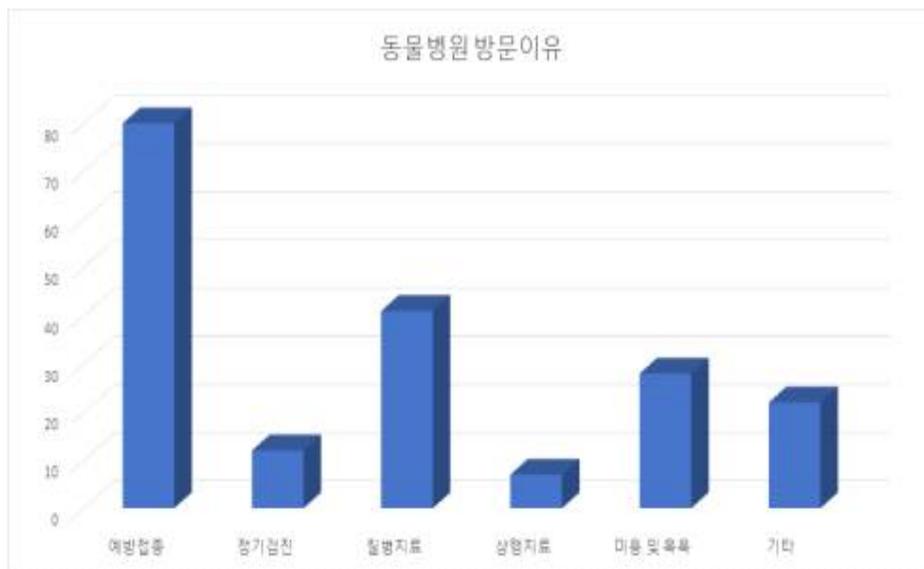
○ 반려묘의 예방접종을 확인한 결과, 반려묘 종합백신을 새끼 때 해줬다가 19명(6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1년에 한번이 7명(24.1%), 안해준다가 3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동부/서부/남부/북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주택형태에 따라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가운데 단독주택인 경우가 반려견 종합백신을 유독 안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난 반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에 사는 경우 단독주택에 비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반려견 종합백신 접종을 해주는 경향이 있었다.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반려견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반려견 광견병 백신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남성은 광견병 접종을 새끼 때만 해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소득구분에 따라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소득 100만원 미만 이 200만원 이상에 비해 반려묘 광견병 백신을 안해주고 있었다. 또한 소득 100-150만원 미만이 150-200만원 미만 및 200만원 이상 소득에 비해 반려묘 광견병 백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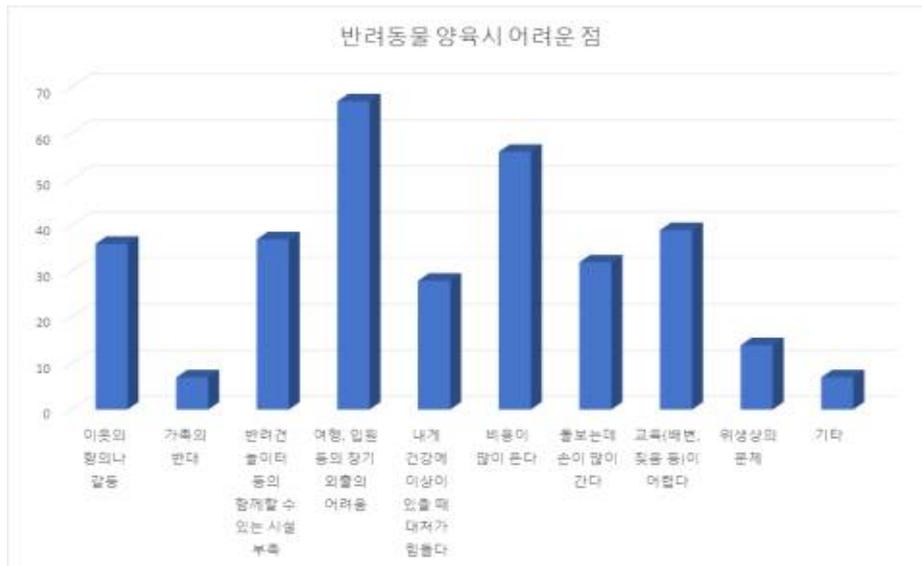


○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방문 경험에 관한 응답으로는 '있었다'라고 응답한 이가 119명 (81.0%), '없었다'라고 응답한 이가 28명(19.0%)으로 나타났다.

○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응답 내용을 확인하면, 예방접종이 80명(42.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는 질병치료 41명(21.6%), 미용 및 목욕 28명(14.7%), 정기검진 12명(6.3%), 상해치료 7명(3.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 22명(11.6%)으로는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 사료 및 간식 문의, 사료구매, 심장사상충 예방, 약처방, 유기견 나이를 물어보러 등이었다.

(6) 양육시 어려운 점과 포기하고 싶은 충동



○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여행, 입원 등의 장기 외출의 어려움이 67명(2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가 56명(17.3%), 교육(배변, 짚음 등)이 어렵다가 39명(12.1%), 반려견 놀이터 등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가 37명(11.5%), 이웃의 항의나 갈등이 36명(11.1%), 돌보는 데 손이 많이 간다가 32명(9.9%), 나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대처가 힘들다가 28명(8.7%), 위생상의 문제가 14명(4.3%), 가족의 반대와 기타가 각각 7명(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산책 매일 가기 힘들다와 집에 혼자 두는 것이 어렵다 등이었다.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가구형태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운 점에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1세대(부부)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형태보다 '반려견놀이터 등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과 '여행 입원 등 장기외출의 어려움'을 어려운 점으로 꼽는 경향이 강했다.

○ 반려동물을 통한 삶의 만족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응답한 이가 139명(95.2%), 변화가 없다 4명(2.7%),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3명(2.1%)의 비율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응답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가 132명(88.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와 '다른 데 보내고 싶지만 정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가 각각 7명(4.7%), '사정에 따라 내가 잘 아는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가 4명(2.7%)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을 그만 키우거나 포기하고 싶었던 충동경험을 확인한 결과, '없었다'라고 응답한 이가 101명(67.8%), '있었다'가 48명(32.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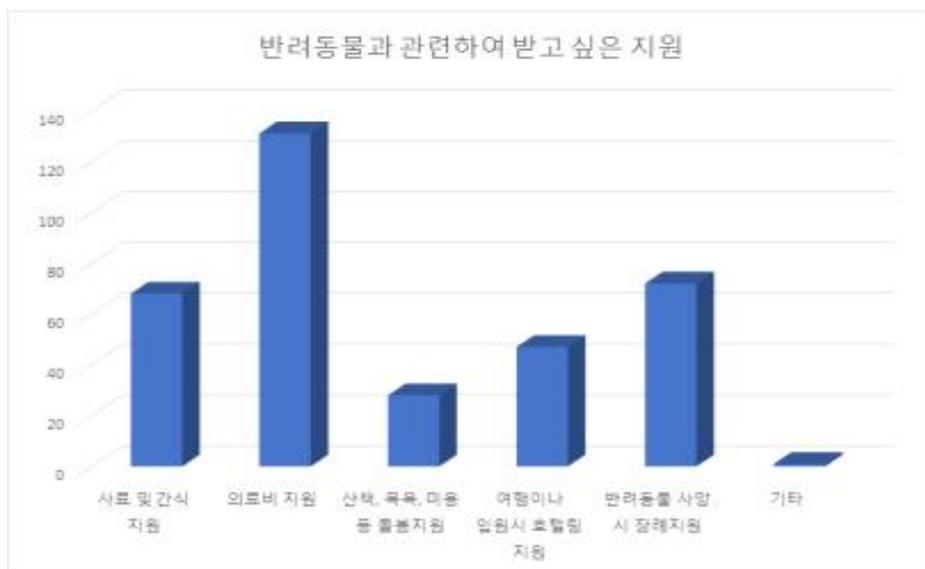
○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로는 다중응답 결과,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가 18명(2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가 16명(19.3%),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가 13명(15.7%),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가 12명(14.5%),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가 11명(13.3%), 이사 갈 때가 4명(4.8%),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주기가 힘들어져서가 2명(2.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 7명(8.4%)으로는 건강상 돌보기 힘들어졌을 때 등이 있었다.

○ 지난 5년간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험을 확인한 결과, 없었다가 41명(54.7%), 있었다가 34명(45.3%)으로 나타났다.

○ 있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 죽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이용했다가 16명(4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산이나 마당에 묻었다가 15명(38.5%), 동물병원에 맡겼다가 7명(17.9%), 기타가 1명(2.6%)의 순으로 나타났다.

(7) 받고 싶은 교육과 지원

○ 받고 싶은 교육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 문제행동 개선 교육(분리불안, 입질, 물건파손 등)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96명(2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반려동물 의료교육(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 79명(24.2%), 반려동물 돌봄상식 교육(먹으면 안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 69명(21.2%), 반려동물 행동풍부화 교육(산책, 반려동물용 장난감 만들기 등) 58명(17.8%),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20명(6.1%) 순이었다. 기타교육 4명(1.2%)으로는 배변교육 등이었다.



○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비 지원이 131명(3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반려동물 사망시 장례지원이 72명(20.7%), 사료 및 간식 지원 68명

(19.6%), 여행이나 입원시 호텔링 지원 47명(13.5%), 산책, 목욕, 미용 등 돌봄지원 28명 (8.1%), 기타 1명(0.3%)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거형태 및 연령대에 따라 집단간 평균에 차이가 나타나 사후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파트'가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주택보다 동물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집단이나 '50대' 집단이 '20대' 집단보다 동물정책을 더욱 필요로 했다.

2) 접수시 관찰 결과: 애니멀 호더 위험군 발견

이상의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는 취약가구로서 본 사업의 의료서비스를 신청한 신청자 스스로가 응답한 내용이다. 이번에는 본 사업단이 신청 접수를 받고 의료서비스를 진행하며 확인한 결과들을 소개한다.

○ 취약가구 신청자 198명 가운데 애니멀 호더이거나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해 있는 15명(가구)을 발견 하였다.

○ 중위소득 60%이내 지원 요건에 해당되어 본 사업에 직접 신청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동주민센터나 구청, 제보를 통해 첫 연결이 이뤄진 후 사업단이 찾아가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애니멀 호더이거나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한 보호자 대부분이 본 사업의 저소득층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였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한 신청자 소득 유형 확인 결과 (단위: 명) >

소득 유형		비고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10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4	
확인중	1	
합계	15	

○ 이들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9가구, 고양이 4가구, 개와 고양이 모두 기르는 경우 2가구 였다.

○ 이들은 가구당 적게는 3마리에서 많게는 약 25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다. 양육 반려동물 마리수가 많은 경우, 현장 방문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조차 정확한 양육 마리수를 알고 있지 못하여 끝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 의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마리수를 숨기는 경우도 관찰 되었다. 양육 동물 마리수 뿐만 아니라 이름, 성별, 중성화 유무 등 개체 정보까지 매우 부실한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이름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보호자가 개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동물이 보호자 손을 전혀 타지 않아 내부 포획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 취약가구 신청자 198인의 대상 반려동물 353마리 가운데 품종은 211마리(59.8%)로 믹스 142마리(40.2%)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런데 애니멀 호더이거나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하는 취약가구 15인 가운데서도 반려동물이 '모두' 품종인 경우가 최소 5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정 품종이 대다수인 애니멀 호더 위험군의 경우 최초에는 브리딩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고양이를 양육하는 애니멀 호더 위험군의 경우 중성화 수술 없이 자체 번식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중성화 수술 없이 고양이를 외출냥이로 키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없는 경우가 많았다.
- 애니멀 호더이거나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하는 취약가구 중에서는 동물 구조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최소 3인 이상이었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하는 취약가구 가운데 일부는 보호소 기능을 수행하는 곳도 있었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하는 취약가구는 반려동물 등록이 거의 되어있지 않았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하는 취약가구는 중성화 수술이 대부분 되어있지 않았다.
- 일부 수컷에 대해서만 기중성화를 실시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중성화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도 잠복고환인 수컷 내지 암컷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담되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발정 스트레스 등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1차적인 번식을 막기 위해 선택적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하는 취약가구는 여러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도 대체로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상 사업단은 동물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며 애니멀 호더이거나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해 있는 15명(가구)을 발견했으며, 이밖에도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었지만 진행 과정에서 애니멀 호더 가구를 추가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 이들은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었다. 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거하기에도 부족한 위생적 문제들이 관찰 되었다.
- 이웃간 갈등이 악화되고 있었고 보호자의 거주지 문제 또한 해결이 시급했다.

<애니멀 호더 위험군 특징 요약>

-애니멀 호더 위험군 대부분이 저소득 기준도 충족 시켰다.

- 적게는 3마리에서 많게는 최소 25마리 이상을 키운다.
- 반려동물 양육 마리수를 밝히길 꺼리며, 정확한 마리수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 보호자가 정확한 개체 정보를 모르고 반려동물이 보호자 손을 안타는 경우도 있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 가운데 모든 반려동물이 품종인 경우도 꽤 관찰된다.
- 중성화 수술 없이 고양이를 외출시킨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 가운데 동물 구조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
- 대부분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다.
- 수컷만 선택적으로 중성화 시킨 경우도 있다.
- 대체로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동물들을 기른다.
-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 이웃간 갈등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 보호자의 거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경우가 있었다.

〈 사업단에서 실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 애니멀호더 혹은 애니멀호더 위험군 15인(가구)과
의료서비스 지원을 검토한 2인 포함 총 17인(가구)의 특징 〉

	소득 유형	반려 동물 종류	신청 /지원 마리수	실제 양육 마리수	비고
1. A (1969년생)	수급자	고양이	5마리	5마리	-중성화 수술 없이 외출양육으로 키우고 있었음 -1마리는 종질 병행
2. B (2000년생)	수급자	개	7마리	7마리	-모두 품종견 -모든 수컷 기중성화
3. C (1961년생)	수급자	고양이	7마리	7마리	-보호자 손 안탐 -수컷 기중성화 된 상태
4. D (1975년생)	수급자	개 / 고양이	3마리	3마리 이상	-구조 계속 진행
5. E (1969년생)	수급자	고양이	5마리	5마리	-마리수를 숨김
6. F (1952년생)	수급자	개	2마리	최소 23마리 이상	-진도 18마리, 시츄 4마리 등
7. G (1940년생)	수급자	개	3마리	3마리 이상	-모두 믹스대형견 -구조 계속 진행
8. H (1980년생)	수급자	개	3마리	5마리	-모두 품종견
9. I (1967년생)	수급자	개	14마리	14마리 이상	-모두 품종견 -마리수를 숨김 -일부 수컷 기중성화
10. J (모름)	저소득	개	15마리	15마리	-자체번식 -이웃갈등 -거주지 문제
11. K (모름)	저소득	개	17마리	17마리 이상	-모두 품종견 -일부 수컷 기중성화 -보호소 기능
12. L (모름)	저소득	개 / 고양이	8마리	최소 25마리 이상	-대부분 믹스대형견 -보호자 손 안탐 -구조 계속 진행
13. M (모름)	수급자	개	14마리	14마리	
14. N (모름)	저소득	개	6마리	6마리	-모두 대형견
15. O (모름)	확인중	고양이	5마리	최소 5마리 이상	-중성화 수술 없이 외출양육으로 키우고 있었음 -이웃갈등
16. P (모름)	모름	고양이	-	최소 25마리	자체번식/이웃갈등/거주지 문제
17. Q (모름)	모름	고양이	-	최소 80마리	구조 계속 진행/이웃갈등/거주지 문제

3) 의료서비스의 기준과 결과

다음으로는 본 사업단이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애니멀 호더)와 취약지구(재개발)에 제공한 동물 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사업단이 신청 접수 받아 제공한 동물 의료서비스는 크게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건강검진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X-ray, 혈액검사, 예방접종, 그리고 (개의 경우) 심장사상충 검사 등이다.

< 본 사업에서 시행한 일반적 동물 의료서비스의 범주 >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X-ray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검사	예방접종
반려견	○	○	○	○	○	필요시
반려묘	○	○	○	○	-	필요시
길고양이	○	○	필요시	필요시	-	○

※ 본 사업의 동물등록 지원은 내장형 칩 방식으로 했으며,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권장 및 지원.

※ 중성화 수술 가능 연령은 개와 고양이 모두 6개월 이상 원칙.

※ 중성화 수술 가능 몸무게는 개의 경우 크기와 나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로 판단하며, 고양이는 최소2.5kg 이상이어야 중성화 수술을 진행.

※ 사전검사시 개가 심장사상충 양성일 경우 1기에 한하여 중성화 수술을 진행.

※ 심장사상충 2기 이상은 치료 이전에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

※ 예방접종은 개의 경우 종합백신 5종과 광견병 제공, 고양이의 경우 종합백신 3종⁶⁾.

※ 반려견, 반려묘는 하루 입원 원칙, 길고양이의 경우 수컷 24시간, 암컷 72시간 후 방사 원칙

○ 본 사업은 카라 동물병원을 포함하여 서울시내 6개 동물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주요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갖추려 노력했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협력병원 사업진행 매뉴얼을 만들어 기준을 제시하였고, 주된 병원 비용도 통일하였다.

○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원칙은 협력병원 사업진행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별첨으로 첨부한다⁷⁾.

○ 개의 경우 중성화 수술비를 수컷은 10만원, 암컷은 몸무게별로 차등을 두어 10kg이하 25만원, 10kg 초과-20kg이하 30만원, 20kg초과 40만원으로 설정했다.

6) -개 예방접종: DHPPi (Distemper 개홍역, infectious Hepatitis 전염성 간염, Parvovirus 파보바이러스, Parainfluenza 파라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 광견병

-고양이 예방접종: 범백혈구 감소증 바이러스, 허피스 바이러스, 칼리시 바이러스

7) 본 사업단에서 만들어 사용한 '협력병원 사업진행 매뉴얼' 및 주요 의료서비스 비용 기준은 본 자료집에 별첨 수록한다.

- 고양이의 경우 중성화 수술비를 수컷은 8만원, 암컷은 20만원으로 설정했다.
- 기본 마취 및 입원비는 중성화 시술비에 포함되었으나, 검진비, (필요시) 흡입마취, 예방접종 비용은 별도 책정하여 적용시켰다.
- 이밖에 주요 의료서비스에 대한 협력병원간 통일된 병원비의 항목과 액수는 별첨으로 같음한다⁸⁾.
- 사전검사 단계에서 심장사상충 키트 검사 결과 2기 이상의 양성으로 중성화 수술을 즉시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취약가구 신청자 198인의 대상 반려동물 353마리 가운데 2개 가구의 개 4마리 였다.
- 이들은 수개월간의 심장사상충 치료를 마친 뒤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
- 취약가구 신청자 198인의 대상 반려동물 353마리 가운데, 수컷 개가 잠복고환인 경우가 현재(11월 12일 기준) 7개 가구에서 8마리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7마리는 중성화 수술이 완료되었다.
- 1세 연령의 1.65kg의 말티즈 품종견이었던 나머지 1마리의 경우 한쪽 잠복고환이었고 다른 한쪽 정상고환 적출 뒤 혈중⁹⁾이 관찰되어 무리한 수술은 않는 게 좋겠다는 본 사업 협력병원의 판단에 따라 중성화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이 소형 말티즈는 펫샵을 통해 구매한 개였다.
- 취약가구 신청자 198인의 대상 반려동물 353마리 가운데 품종은 211마리(59.8%)로 믹스 142마리(40.2%)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백내장이 있는 9세 시츄, 사선으로 걷는 2세 포메라니안, 귓병이 있던 9세 요크셔테리어, 앞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3세 말티즈, 배꼽탈장이 있었다던 1세 퍼그, 방광결석에 걸려 있던 4세 말티즈, 소뇌장애를 갖고 태어난 1세 요크셔테리어, 방광염이 있던 4세 푸들, 급발성 방광염을 앓고 있던 2세 러시아블루 등이 있었다.
- 암컷 개 2마리의 경우 이미 자궁 질환을 앓고 있어 예방적 목적이라기보다 치료 목적의 중성화 수술이 이뤄졌다. 6세 말티즈는 자궁축농증을, 7세 코카믹스는 자궁내막증식증을 앓고 있어 중성화 수술이 곧 치료이기도 했다.
- 암컷 고양이 2마리와 암컷 개 1마리의 중성화 수술 과정에서 중절이 함께 이뤄졌다. 수유가 끝나자마자 임신이 의심되던 1년 미만의 코숏과 임신이 추정되던 1세 코숏 고양이, 그리고 2세 말티즈는 중성화 수술과 중절이 병행되었다.
- 출산을 2번이나 했다는 4세 믹스견도 중성화 수술을 받았고, 출산한 지 2주된 1세 믹스견과

8) 본 사업단에서 만들어 사용한 '협력병원 사업진행 매뉴얼' 및 주요 의료서비스 비용 기준은 본 자료집에 별첨 수록한다.

9) 출혈 부위의 피가 잘 응고되지 않고 고이는 것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는 개들도 적절한 일정을 잡아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

○ 한편 본 사업을 거쳐간 반려묘 2마리가 후일 1마리는 폐출혈, 1마리는 원인불명으로 각각 사망하는 사건이 보고되었다. 후자의 경우 다묘 가정이었었는데 사망한 고양이와 같이 살던 나머지 고양이들의 상태도 위중해져 24시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진행하고 모두 건강을 되찾음에 따라 퇴원하였다.

○ 사업단에서는 사업 중반기부터는 신청 조건을 보완하여 반려묘의 경우 보호자가 예방접종을 맞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료서비스 접수를 아예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 하였다. 또한 기존 수술동의서에 더하여 사업진행동의서를 추가하였다.

○ 취약지구(재개발) 길고양이들의 경우 주로 구내염으로 인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취약지구 고양이에 대한 치료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4) 환경적 돌봄 취약지구: 재개발

동물 유기 및 방치, 번식 예방을 위한 <돌봄 취약층 대상 반려동물 건강검진 및 집중 중성화 사업>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재개발 지역을 돌봄 취약지구로 보고 이곳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 등의 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주로 길고양이었지만 유기묘로 추정되는 고양이들도 눈에 띄었으며, 사업단 현장에 떠돌이 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재개발이 승인되면 살던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한다. 하지만 텅 빈 공간들이 하나 둘씩 내부 철거에 들어갈 때에도 영역동물인 고양이들은 (당연하지만) 좀처럼 이사갈 생각을 않는다. 건물까지 모두 부수는 철거 공사가 있기까지 길고양이들은 머지않아 없어질 공간에서 유유히 그들의 시간을 누린다. 이들을 바라보는 케어테이커의 마음은 불안하다.

케어테이커들이 밥자리를 서서히 안전한 지대 쪽으로 옮기는 활동을 지속하면 억지로는 되지 않는 고양이들의 자연스러운 영역이동이 가능하다¹⁰⁾. 하지만 부지런히 영역이동을 도모해야 하는 때에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묘는 새끼들과 함께 재개발 지역 더 깊은 곳에 안착하려 한다. 이들의 생명은 공사시에 매우 위험해진다. 게다가 고양이들의 번식은 순식간이며 영역이동은 더욱 힘들어진다. 그래서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는 중성화 수술이 더욱 더 중요하다.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재개발 예정 지역에 동물을 유기한다. 길고양이를 보고 집고양이들도 살 수 있으리라 낙관하지만 유기묘의 길에서의 생존 확률은 낮다. 또한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사갈 때 동물을 버리고 가기도 한다.

본 사업단은 취약가구(저소득층/애니멀 호더) 신청서와 별도로 해당 지역의 케어테이커가 재개발

10)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가로막혀 있는 경우 안전한 지대로의 자연스러운 영역이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고양이들을 단계적으로 '이주' 시키기도 한다.

예정 지역을 위한 돌봄 취약지구 중성화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했다. 돌봄 취약지구 중성화 지원 신청서에는 이사와 공사 등 재개발 사업 추진일정, 밥자리 이동과 이주 등 영역이동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한다.

○ 본 사업단이 신청 접수한 돌봄 취약지구(재개발) 사업지는 용두동, 돈암동, 봉천동, 이문동A, 이문동B 등 총 5건이다.

○ 현재(11월18일 기준) 용두동과 돈암동 신청지는 중성화 지원이 완료되었고, 봉천동 신청지에서는 1차 중성화 지원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이문동A, 이문동B 신청지에서도 중성화가 진행중이나 본 보고에는 아직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¹¹⁾.

○ 접수가 완료된 신청지에서는 사전 현장답사 이후 케어테이커들과 함께 집중TNR을 위한 일정을 잡고 이에 따라 병원이 어래인지 되었다. 사업단에서 포획을 적극 지원하였다.

○ 집중TNR의 횟수는 신청지에 따라 달랐다. 용두동 신청지에서는 2회의 집중TNR이 있었던 반면 돈암동 신청지에서는 1회의 집중TNR로 지원이 완료되었다. 봉천동 신청지에서는 현재 1회의 집중TNR이 완료된 상태이다.

○ 현재(11월18일 기준) 돌봄 취약지구(재개발)에서 고양이 총 52마리를 포획했으며 동물등록 47마리, 중성화 42마리, 건강검진 1마리, 치료 9마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진행하였다.

○ 이들은 신청서를 낸 해당 지역 케어테이커들과의 긴밀한 상의 속에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제자리 방사되거나 입원 치료를 받다 방사되거나 하였다.

< 취약지구(재개발)와 길고양이에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내용, (단위: 마리)>

	동물등록	유기묘 의심	중성화 +예방접종	중성화 +치료 +예방접종	치료 +예방접종	예방접종	포획
용두동	19	2	14	3	3	4	24
돈암동	9	-	9	-	-	-	9
봉천동	19	1	13	3	-	3	19
이문동A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이문동B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합계	47+a	3+a	36+a	6+a	3+a	7+a	52+a

○ 중성화 수술 과정에서 2마리는 중절을 병행하였고 1마리는 만삭 상태에서 포획된 뒤 병원에서 출산을 시작했으나 새끼들이 다 나오지 않음으로써 뱃 속에서 이미 죽은 새끼를 수습하는 수술을 하였다. 이 고양에게서 태어난 생존한 새끼 1마리는 해당 지역 케어테이커에게 인계하였다.

○ 중성화 수술을 받은 개체 중에는 출산한 지 얼마 안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미묘도 있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도 생명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11) 돌봄 취약지구(재개발) 중성화 지원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용두동, 돈암동, 봉천동 신청지에서 진행된 내용까지만 본 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 귀커팅이 안되어 있었으나¹²⁾ 이미 중성화가 이뤄진 개체도 돌봄 취약지구에서 발견 되었다.
 - 돌봄 취약지구에는 구내염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들이 많았다. 8마리가 구내염 치료를 받았고 그 가운데 1마리는 중증 구내염에 포획시 탈수까지 있는 상태여서 장기입원을 해야 했다.
 - 안구질환으로 별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2건 있었다.
 - 돌봄 취약지구에는 귀 상처가 심하여 장기 입원이 필요한 고양이도 있었다.
 - 돌봄 취약지구에는 노령에 기저질환 의심개체도 있어 바로 제자리 방사하지 못하고 관찰이 필요한 고양이도 있었다.
- (1) 동대문구 용두동
 - (2) 성북구 돈암동
 - (3) 관악구 봉천동
 - (4) 동대문구 이문동A
 - (5) 동대문구 이문동B

12)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표식은 고양이의 왼쪽 귀 커팅이다.

4. 합의 및 제언

1) 중성화 확대가 필요하다.

돌봄 취약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키우게 된 이유와 관련 '지인을 통해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라는 상위권 답변과도 상통한다. 이는 꼭 펫샵과 같은 판매업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반 가정의 미중성화로 인한 개체 증식이 여전히 비밀비재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처럼 동물 유기와 방치 문제가 끊이지 않는 환경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중성화 필요성을 상징한다.

2) 돌봄 취약가구 가운데 애니멀 호더 위험군 관리가 시급하다.

돌봄 취약가구는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안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애니멀 호더이거나 애니멀 호더 위험군의 경우 동물등록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에 위험군 관리를 위해서는 동물등록 여부부터 점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단에서 애니멀 호더에 대한 조건 없는 제보를 받았음에도 결과적으로 애니멀 호더 내지 애니멀 호더 위험군 가구 거의 전체가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취약가구의 동물 돌봄 실태에 대하여 좀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돌봄 취약가구에 대한 중성화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돌봄 취약가구는 중성화 수술을 안한 이유에 대하여 수술비를 꼽았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수술비가 저렴한 수컷만 선택적으로 중성화 한 경우도 있었다. 돌봄 취약가구의 중성화 확산을 위해서는 부담이 큰 수술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돌봄 취약가구에 대한 의료교육으로 동물의 복지를 높이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돌봄 취약가구는 주로 예방접종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주기보다 새끼 때 해주고 안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나마 정책적 지원이 있는 광견병 백신의 경우 정기접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실제 사업단에서는 돌봄 취약가구 신청자의 1/3 가량에 예방접종을 지원하였다.

한편 애니멀 호더이거나 애니멀 호더 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 자체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취약가구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예방접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이는 위험군 관리 및 건강한 반려생활을 위하여 취약가구에 의료적 차원의 돌봄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한 응답에서도 접종과 질병 등 의료교육 수요가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펫샵 혹은 브리딩도 위험군 양산과 연관된다.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은 품종이 믹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와 관련하여 펫샵에서 구매했다는 응답이 지인 다음으로 높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애니멀 호더이거나 애니멀 호더 위험군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모두가 품종인 사례가 꽤 높게 관찰되었다. 이는 펫샵 혹은 브리딩이 애니멀 호더 위험군 양산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6) 다양한 교육과 지원으로 평생 반려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돌봄 취약가구의 대다수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으며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이 가족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분위기 개선, 아이들 정서상 교육 목적, 외로움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도 했다. 이들은 동물학대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동물보호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돌봄 취약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경험 또한 적지 않았다. 비용 문제로 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로 추정된다),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반려동물이 문제행동을 보일 때 그러한 충동을 느꼈다. 양육시 어려운 점은 여행, 입원 등 장기외출 불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교육이 어려운 부분 등이었다.

돌봄 취약가구 스스로 반려동물 문제행동 개선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높았다. 접종과 질병 등 의료 교육, 먹이면 안되는 음식 등 돌봄 상식 교육, 반려동물 행동풍부화에 대한 교육 수요도 상위권이었다. 한편 돌봄 취약가구가 받고 싶어하는 지원은 의료비가 최우선이었고 그 다음 사망시 장례지원 내지 사료나 간식지원 수요가 높았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교육과 지원은 평생 반려의 '상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취약가구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다.

7) 무책임한 돌봄과 방치가 가능한 환경에는 구조적 제어가 필요하다.

아무나 동물을 쉽게 얻거나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관련 법제 강화가 요구된다.

8) 돌봄 취약지구에 대한 관심과 중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재개발 예정 지역과 같은 취약지구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이 태어나는 등 중성화가 절실하며, 이는 지자체TNR 제도로 이뤄지기에 규모와 시급성 면에서 한계가 크다. 한편 이사 가는 것이 반려동물을 몰래 버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재개발 지역에서는 유기묘 추정 개체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영역이동과 이주를 앞둔 고양이들을 위해서는 중성화 지원을 바탕으로 추가 치료 지원이 필요할 때가 많으며 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 크기에 제도적 지원 방법이 세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9) 행정 연계 방안과 동물 의료기관/전문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돌봄 개선, 애니멀 호더나 재개발 등은 사람의 문제이지만 마치 동물의 문제인 것처럼 사각지대 속에 떨겨져 있다. 관련 영역도 여러개인데다 행정 층위도 동주민센터, 구청,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극소수 지자체 단위에서 이제 막 시범 사업을 꾸려 나가려 하고 있는 참이다. 또한 실질적인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실태 및 제도적 과제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I. 국내 반려동물 관련 현황 및 돌봄 실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한국펫사료협회가 실시한 “2018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27.9%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조사와 비교해보면 2018년 KB 금융그룹 25.1%,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결과의 21.8% (2012년 17.9%, 2010년 17.4%), 2015년 한국 갤럽조사 결과인 19%나 2016년 서울시 통계인 20.4%보다도 높은 것이다. 해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가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넘어 1,481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 2017).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려동물현황 관련 통계자료는 조사 기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 금융사, 민간단체들이 내놓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와 관련한 통계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정부통계 결과와 민간통계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스카이 데일리, 2018. 01. 13). 또한 반려동물 현황에 관하여 조사된 자료는 대부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주로 온라인 설문이나 패널을 활용한 것이어서 반려동물 양육관련 주요 특성은 파악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 및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등과 동거하는 반려동물 양육에 관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려동물은 어린이, 노인 및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잠재적인 건강상의 혜택을 제공한다(Blouin, 2012). 특히 노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심리적, 정서적 지지, 역할 부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문영희 & 김효정, 2011). 특히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은 신체질환 및 정서장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들이 반려동물을 양육할 경우 동반자로서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사회적 격리를 줄이며, 신체 활동과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함께 살기 위한 경제적 부담, 신체적 제약, 주인이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에 대한 우려사항 등으로 인해 소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Anderson, et. al, 2015). 이처럼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유대 관계는 반려인들의 정서적, 신체적, 관계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반려동물을 바르게 돌보지 못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Janet Hoy-Gerlach & Scott Wehman, 2017).

최근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로 반려동물을 택하는 노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노부부 등 취약계층의 경우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신체적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8년 설 연휴 직후 광주에서는 아파트에 혼자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신체 일부가 기르던 개에 의해 훼손돼 있었고, 역시 광주에서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죽은 상태로 방치된 반려견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이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 기르는 반려동물은 이웃 간 분쟁뿐 아니라 동물 복지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어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언론은 강조했다(한국일보, 2018.02.26.).

이 같은 문제는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2017년 서울의 M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

택 단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반려동물 관련 현황을 전수조사 한 바에 따르면, 약 13%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중 응답자의 70%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양육 시 어려운 점으로는 비용부담 33.3%, 이웃과의 불화 8.3%, 산책의 어려움 8.3%, 양육정보 부족이 5.6% 순으로 나타나, 저소득 노인들의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초생활비 40만원 가운데 30만원을 반려견을 돌보는데 사용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도 있었고, 손주들이 맡기고 간 중형견 네 마리를 좁은 집에서 돌보느라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노인도 있었다. 이 외에도 '우리 동물병원 생명 사회적협동조합'이 2017년 마포구 일대의 저소득 가정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나눔과 연구' 결과 반려동물 양육이 취약계층의 우울증 감소에 따른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육에 대한 준비 정도가 낮아 반려동물을 방치하게 되거나,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었다. 반려견이 저소득층 가구에 위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치료 시 걸림돌이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득 수준이 반려동물 양육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조사에 응한 반려인들의 경우 양육에 대한 준비 정도가 다소 낮아 양육에 대한 교육체계 지원 및 중성화 수술, 예방적 건강관리 등의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동생 의료나눔사업 경과보고, 2018).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관련 어려움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National Pet Owners Survey 6, 2017). 2017년 미국에서 천구백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빈곤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미국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는 저소득층 반려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Pets For Life, 2019).

II.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적용을 위한 논점

일반적으로 '취약성' 또는 '취약 계층'이라는 용어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배제된 약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원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거나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의미한다(김주경, 2012). 취약계층은 취업활동과 생애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위험(현재)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보호가 없을 경우 (미래)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계층을 지칭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방하남·강신욱, 2012). 그러나 취약계층을 정의할 때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 취약하다고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약계층의 정의가 부처별로 다르고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취약계층에 대해 합의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가 힘들다. 그 결과 학계나 경제·교육·문화·고용·환경·사회·보건의료 등 정책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서 '취약계층'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각각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취약계층이라는 검색어로 연구논문들을 검색해보면 경제적 취약계층 이외에도 건강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정보취약계층, 금융취약계층, 안전(재난)취약계층, 기후환경취약

계층, 범죄취약계층, 교통취약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칭하기도 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임의적으로(주관적으로) 취약계층을 규정하기도 하고, 해당 분야에 특별하게 취약한 계층을 규정하기도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사회적 소수자 또는 사회적 소외계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일반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여성, 청년, 노령자,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출소자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해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략 ①소득이 낮은 빈곤계층, ②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청년, 장애인, 노령자 등), ③인적 속성을 바탕으로 여성, 고령층, 저학력층, 장애인, 소수인종자,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출소(예정)자 등 인구학적 집단, ④예기치 않은 사고(예: 질병, 산업재해, 재난, 재해 등)를 당해 위험에 처한 경우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다양한 정의방식은 부분적으로 중첩성이 인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준섭,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취약계층'이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한다.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구분한 사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인데, 2조에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피해자(가족), 장기실업자12가지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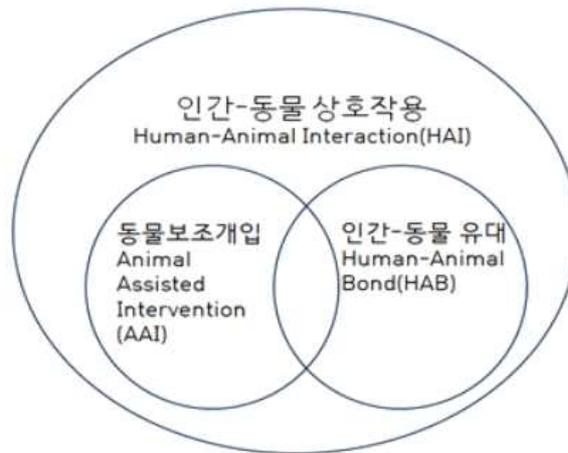
또한 정보취약계층도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노화, 신체적 장애, 언어장벽, 그 밖의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해 스마트기기 등 정보화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있어 제약을 경험하는 소비자집단을 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 만 55세 이상의 중·고령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이 정보취약계층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보(지식)취약계층은 '도서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의 지방자치법규나 조례에서 대동소이하게 정의하고 있다(손지연 2018).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해서는 보건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정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있어서 반려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가장 우선적이며 수의학적 관리가 기본이자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려동물 돌봄에 필요한 욕구와 서비스, 그리고 이슈들이 사람의 보건서비스 분야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관련 각종 법률에서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의료급여법'에서는 저소득층을 생활이 어려운 자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들을 의료보호 환자 등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등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화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임산

부 등을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라고 정의한다. 종합해보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취약계층은 의료서비스 자원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큰 인구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중첩되어 이종고를 겪게 되는 빈곤아동과 빈곤여성 등은 보건사업과 건강대책 수립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취약계층이다(김주경, 2012).

III.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적용을 위한 논점

발표자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모두 유익한 관계 속에서의 돌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Human-Animal Bond(인간-동물 유대, HAB)라는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인간-동물 유대라는 용어에서 유대(bond)라는 단어는 가까운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포유류나 조류와 같은 다른 종(species)간의 관계를 의미할 때에도 쓰인다. 이 중에서 인간과 동물간의 상호복지(Mutual well-be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HAB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HAB는 인간과 동물간의 상호작용(Human-Animal Interaction, HAI)이나 동물을 보조로 하여 인간서비스에 개입하는 동물보조개입(Animal Assisted Intervention, AAI)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HAI가 인간과 동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관계(동물을 이용, 활용, 학대하는 관계를 포함하여)를 의미하는데 반해 HAB는 인간과 동물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HAB가 의미하는 인간과 동물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관계는 첫째, 인간과 개별 동물간의 상호인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 관계는 상호간에 발생해야 하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셋째, 이 관계는 인간과 동물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Hosey & Melfi, 2014).



미국 수의사협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018)은 HA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간-동물 유대관계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상호 유익하고 역동적인 관계로, 인간과 동물 모두의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인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사람, 동물 및 환경의 정서적, 심리적, 물리적 상호 작용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HAB에 근거하여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

첫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취약계층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으로 저소득자(가구), 노인, 장애인들이 해당된다.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경우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신체적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이 반려동물을 잘 보살피고 문제없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적 건강관리, 미용, 산책을 비롯하여 펫티켓, 펫로스 개입 등에 이르기 까지 교육, 정서 및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된 특별한 위기나 욕구에 대처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노숙인(주거약자), 수의 관련 직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직원, 동물보호 활동가,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 반려동물 돌봄 정보(지식, 인식)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지리적, 물리적 접근권이 약한 계층, 사회화 훈련부족 등으로 소위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동물의 반려인 등 다양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건강한 HAB를 지속하는데 특수한(응급한) 위기상황을 겪게 되는 반려인들이다. 그 예로는 재해나 재난 대피 혹은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갑작스럽게 수감되는 사람, 요양원입소나 장기입원을 앞둔 노인, 반려동물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직장업무와 반려동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살 마땅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현재 사는 곳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 장애인서비스건의 출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넷째, 이상 열거한 사례들은 모두 반려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외에도 중요한 것은 사람만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위기가 처하는 상황이 되면, 즉 반려인과 반려동물 간에 상호 유익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 처한 사람도 취약계층으로 봐야 한다. 예를 들면, 1m 목줄에 묶여 평생을 사는 시골 개들, 과도한 숫자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불결하고 안정하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경우, 잔반을 먹고 사는 반려동물, 성대수술을 비롯해서 과도한 방법으로 양육 되는 개들, 동물매개활동에 동원되는 반려동물들 모두 HAB에 위기가 되는 상황이다.

이상 소개한 내용을 종합하여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하면 “반려동물을 잘 돌보고 건강한 인간-동물유대(HAB)를 유지하는데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특별위기 상황을 맞이한 개인이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 사례소개

		가족관계 및 지지체계	거주/수급환경	건강상태	반려견 상태
A	70대 여	20세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나 남편과 이혼 후 왕래가 끊김; 언니 외 형제자매 모두 사망; 언니의 딸이 수급 관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일반 수급자(의료보호 1종)	고혈압, 영양 부족, 우울감	다리절단장애, 사회화 전무, 영양 불균형, 기본관리 전무, 최근 사망
B	50대 여	남편 구치소 수감 중; 18세 딸은 임시보호; 전남편 사이 아들 1명과는 연락단절	월세 반려견 문제로 이웃과 불화	지적장애 2급, 조현병	두 마리 불안증세, 심한 짚음

C	60대 여	배우자 사별, 40대 아들(뇌전증, 알코올 의존)과 동거; 근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큰 딸은 이혼 후 기초수급 받으며 자녀 1명과 거주; 둘째 딸 20대에 사망	나공사 전세임대;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반려견 문제로 퇴거위 기	관절염, 거동 불편, 우울감	불안증세, 심한 짚음
D	60대 남	독거, 10여 년 전 뇌병변장애. 구청에서 마련한 연립주택에 거주하다가 최근 영구임대아파트로 옮김. 반려견 문제 개입 이전에는 지지체계가 전혀 없었으나 최근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 방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뇌병변장애	사회화 전무, 기본관리 전무, 영양 불균형, 서울시 중성화 수술 지원.

*공통점: 반려견과는 강한 애착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친지나 이웃과는 교류가 거의 없음.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부담스러워 함(반려견 돌봄 관련 조언을 무시함), 관리가 전혀 안됨. 사료를 먹지 않음. 구청, 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대처 방안을 찾고 있음.

V. 외국사례 소개 및 적용

본 사례들을 외국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지원과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PACT for Animals를 통해 안전하게 반려견을 맡김.
- 요양병원에 갈 상황이면 The Cinnamon Trust와 같은 반려동물 동반 요양원에 입소.
- Meals on Wheel' PALS Program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반려동물 사료(간식) 지원.
- JASA Pets and Elder Team Support (PETS) Project를 통해 반려견 투약, 목욕, 미용, 산책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지원.
- 반려견 병원 방문이 필요 할 때 RSPCA 지부의 Community Aged Care Program나 The Mayor's Alliance for NYC's Animals를 통해 교통지원.
- 사례관리자는 The Mayor's Alliance for NYC's Animals의 on-line toolkit for social workers to help pet owners on crisis에 등록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도움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원을 요청하거나 의뢰.
- 반려인이 요양원 입소나 사망 등으로 더 이상 반려견을 돌볼 수 없을 상황을 대비하여 신탁이나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행.

본 사례들을 미국 뉴욕시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지원과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 7개 기관에서 뉴욕 시 전역에 걸쳐 무료나 저렴한 비용의 수의학적 돌봄지원.
- 3개 기관에서 반려동물 사료와 훈련 지원. 대부분의 무료 도시락 배달 서비스에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 지원 포함
- 3개 기관에서 반려동물 안락사, 장례 및 매장, 펫로스 등 상담 및 지원,
- 9개 기관 및 다수의 복지기관에서 반려동물 돌봄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연결.

- 대부분 뉴욕시 재난 대피소는 반려동물 동반입소를 허용함. 서비스 동물이나 정서지원 동물은 모든 대피소나 숙박시설에 입소 가능.
-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려동물과 동반 입소할 수 있는 대피소 운영.
-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와 기관을 종합적으로 안내 하는 책자 발간.

VI.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접근 방법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취약계층이란 어떤 잠재적 위험에 대해 그 영향을 예상, 대처, 저항 및 복구 할 수 없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한편 취약계층이외에도 소외된 계층(혹은 손길이 미치지 않는, underserved)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위험에 대응하거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언어적) 장벽이나 지식 부족,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칭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는 ‘at-risk population(위험집단)’인데 이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위험이나 피해에 훨씬 더 노출 된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위협이란 손상, 피해 또는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 잠재적 행동 또는 무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저소득 반려인(취약계층, vulnerable)이 반려동물 돌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용(위협, threats)이 들 때, 노인이나 장애인(취약계층, vulnerable)이 신체적, 인지적 어려움이나 기타 제약(위협, threats)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잘 돌 볼 수 없을 때, 수의관련 직종 종사자나 동물보호 활동가(취약계층, vulnerable)이 연민피로, 우울증, 트라우마, 자살 위험(위협, threats) 등을 겪을 때 모두 HAB 위험계층(at-risk)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하여 특수하거나 응급한 위기상황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는 데 재해나 재난 피해자(대피자), 갑작스럽게 수감되는 사람, 요양원입소나 장기입원을 앞둔 독거 노인, 반려동물보다 먼저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직장업무와 반려동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살 마땅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 (현재 사는 곳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 장애인서비스권의 출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들 수 있다.

취약계층 반려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동물복지냐?”하는 편견과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반려동물을 키우냐?”는 비난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각종 연구결과에도 있듯이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유대는 반려인,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가성비’ 높은 방법이다. 또한 반려동물을 잘 돌보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더 소요되고 이는 비반려인을 포함한 모두의 세금이 사용된다. 따라서 취약계층 반려인을 지원하는 것은 단지 반려동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인을 도움으로 해서 HAB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위험요소나 부작용을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

제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처한 위협의 수준에 맞는 단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Vulnerability(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Threat(위협)은 Risk(위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반

려동물 돌봄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인들에게 취약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예방전략(preventive strategies)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방 전략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구현되는 전략이다. 부정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본질적인 복지와 혜택이 증진된다. 따라서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예상되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완화전략(mitigation strategies)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소개한 예방 전략이 위험이 발생할 확률을 줄이는 반면 완화 전략은 개인이 위험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위험이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협(threats)이 되는 상황은 줄이고 지원(aids/services)은 늘여야 한다.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 조언 및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대처 전략(coping strategies)은 일단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그 영향을 완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반려인의 반려동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특정 질병이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예방전략). 이후 반려동물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특정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꾸준히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다(완화전략).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필요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구조나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 ✓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 수가제
 - ✓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및 지원
 - ✓ 공공 동물병원 운영
 - ✓ 찾아가는 반려동물 돌봄 지원 서비스
 - ✓ 동물보호법(조례) 강화
 - ✓ 동물등록제 개선 및 강화
 - ✓ 동물번식 및 판매산업 규제 및 감독 강화
 - ✓ 저소득 층 반려동물 사료(비) 및 의료비 지원
 - ✓ 무료(혹은 저가) 동물 등록, 예방접종,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돌봄 취약에 대한 개념정리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취약계층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현황 및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적, 질적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 및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및 자원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서울시 돌봄SOS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속에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 김주경(2012). 보건의로 취약계층 건강 보호 정책. 국회입법조사처
- 마들사회복지관, 2018,《2018년 중계주공 1단지 반려동물 양육실태 파악을 위한 지역주민 전수조사》, 마들사회복지관
- 문영희·김효정, 2011,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455-477.
- 방하남·강신욱(2012). 취약계층의 객관적 정의 및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손지연(2018). 정보취약계층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 우리동생, 2018,《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과 과제》, 우리동생
- 이준섭(201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법제처.
- 한국일보, 2018, “외로움 달래려 키우는 동령동물... 노인 취약층엔 관리 사각지대”, 2018년 2월 26일.
- Boulin, D., 2012, “Understanding Relations between People and their Pets”, *Sociology Compass*, 6(11): 856-869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7,《2017 반려동물 양육실태 조사》, KB연구보고서
- KPFA, 2017,《2017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Gallup
- Thompson, K., Every, D., Rainbird, S., Cornell, V., Smith, B., & Trigg, J. (2014). No Pet or Their Person Left Behind: Increasing the Disaster Resilience of Vulnerable Groups through Animal Attachment, Activities and Networks. *Animals : an open access journal from MDPI*, 4(2), 214-240. doi:10.3390/ani4020214

토론

좌장: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01 토론 토론	유화욱 카라 동물병원 수의사
02 토론 제주도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추진결과	장재연 제주시 축산과 주무관
03 토론 동물돌봄 취약가구와 지역에 대한 서울시 향후 대책	윤민 서울시 동물보호과 주무관
04 토론 돌봄취약층 대상 서울시 중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윤상준 데일리벳 대표
05 토론	김철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사무관

토 론

유화욱 (카라 동물병원 수의사)

제주도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추진결과

장재연 (제주시 축산과 주무관)

1. 사업추진의 배경

제주도 반려동물현황은 전체 가구 수의 323.35인 91,269가구와 반려동물은 129,899마리(개 95,304, 고양이 34,595)로 추정되고 있다.(출처 : 2018년 제주 동물보호복지관련 연구용역) 2014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에 의거 2022.12.31.일까지 제주도 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시 비용에 대해 전액 지원이 되고 있지만 %정도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연간 유기동물 수는 6,945마리(개 6,366 고양이 579)로 매해 28.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입소동물의 절반 이상이 안락사 되고 있어 유기동물 절감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의 발생 원인으로는 시골 마당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의도치 않은 임신 후 출산으로 태어난 강아지의 유기견화, 중산간 지역 들개의 짝짓기로 인한 개체수 증가, 동물등록 미등록 개체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제주도 내 읍·면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성화 수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과 중성화 수술이 반려견에 대한 학대로 여겨지고 있는 반려견주도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유기동물의 발생 절감을 위하여 동물등록비용 면제, 반려동물 교육·홍보를 비롯하여, 올해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을 통해 유기견 발생원인의 사전 차단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1) 사업개요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 지원사업」은 반려견의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고자 시행되었다. 사업대상자는 읍·면지역 거주주민(제주시 5개, 서귀포시 5개 읍·면)으로 실외에서 키우는 암컷 반려견(중·대형 잡종(믹스)견)에 한하여 가구당 1마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중성화 수술비는 반려견 체중에 상관없이 마리당 35만원 정액으로 지원되며, 제주도 내 29개 동물병원(제주시 20, 서귀포시 9)이 중성화 수술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추진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행정시를 통해 도 담당부서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후 행정시로 통보되면, 사업대상자에게 “대상자 선정 통보서”와 함께 “중성화 수술 안내서”를 안내하여 각 동물병원에서 수술이 진행된다.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종료 후 실적 보고서를 행정시를 통해 도로 제출하면 마리당 단가에 따라 비용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 첨부)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가 ①마당에서 키우는지 여부, ② 중·대형견 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제출하면, 제주시에서 2차적으로 우선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를 구분하여 도로 신청서를 진달하여 도 담당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전, 중, 후 모든 절차에 대한 비용까지 35만원/

마리 정액비용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반려견주)로부터 추가비용을 청구 할 수 없으며,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검사 수행 후 수의사의 판단으로 중성화 수술 불가 진단 시 반려견주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반려견주의 선택(심장사상충 발견 시 치료 후 수술 진행 등)에 따라 수술의 진행을 판단한다. 단, 반려견주의 사업 포기 시 검사비용에 대하여는 지급 신청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술의 완료에 따른 증명은 수술 전·중·후 절차 별로 별도 자신을 붙임하여 증빙하도록 하였다.

2) 사업추진 결과

올해 1~2월 1차 공고 시 363명이 신청하여 285명이 선정되었으나,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기존 신청자 중 추가선정으로 통해 총 363명 중 277명이 선정되어 237마리(제주시 143, 서귀포시 94)가 수술 완료하였으며, 수술예정을 제외하고 연락이 끊기거나,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 19.11.21일부터 27일까지 추가 공고를 실시하였다. 중도포기사유로는 반려견의 폐사, 분실, 분양 등으로 확인되었다.

3) 서울시와 제주도의 중성화 사업 비교 분석

서울시와 제주도의 반려견 중성화 사업은 지역에 대하여 도시의 “시골지역”과 도시 “전역, 재개발 지역”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는 면에서 반려견을 키움에 있어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견주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품종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비교를 하면 서울시는 개와 고양이, 제주도는 개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비용에 대한 산정 또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암수 구분없이 지원이 되어 반려견 수컷 10만원/마리, 암컷 25~40만원/마리(몸무게별 차등) 반려묘 수컷 8만원/마리 암컷 20만원/마리로 지원하는 반면 제주도는 암컷 반려견에 대하여 35만원/마리(몸무게별 차이 없음)로 지원된다.

수술비에 포함된 진료 내용은 제주도는 수술의 전중후 비용 모두가 수술비에 포함되는 반면 서울시는 기본 마취 및 입원비가 포함되지만 검진비, (필요시) 흡입마취, 예방접종 비용은 별도 책정하여 적용되었다.

*포기사유 : 반려견 폐사, 분실, 분양 등

※ 추가공고 진행(2019. 11. 21. ~ 11. 27.) : 27마리

구 분	최선 중정	1차 선정현황					미선정	제외	사업 포기	추가 선정 대상자	
		사업 량	신청 량	선정							
				계	1~3순 위	4순위					
합계	277	285	363	285	95	190	65	13	46	38	
제주시	계	156	150	211	150	53	97	51	10	24	30
서귀포시	계	121	135	152	135	42	93	14	3	22	8

※ 읍면별 사업량 조정(증)은 가구수(인구)를 고려하여 배정

▷ 중성화 지원사업(서울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구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명	돌봄 취약층 대상 반려동물 건강검진 및 집중 중성화 사업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 지원사업	
사업량	의료서비스 1,069마리 - 중성화수술 : 363마리 - 건강검진 322마리 - 동물등록 384마리	반려견 중성화수술 285마리	
사업대상자	서울시민 중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 일반시민(동물등록 지원)	읍·면지역 거주주민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계층 - (3순위) 65세이상 고령자	
지원대상	반려견, 반려묘, 길고양이	중·대형견 이상 암컷 반려견	
협력병원	6개소	29개소	
의료 지원	중성화 수술	반려견, 반려묘 대상	반려견 대상
	반려 견	- 수컷 10만원/마리 - 암컷 25~40만원/마리(몸무게별 차등)	350천원/마리(정액)
		반려 묘	- 수컷 8만원/마리 - 암컷 20만원/마리
	건강검진	실비지원	-
	동물등록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	제주도 내 동물등록비용 전액 지원
중성화 수술 처치	기본 마취, 입원비	반려견 중성화 수술에 대한 전처리, 수술, 후처리 비용 포함	

동물돌봄 취약가구와 지역에 대한 서울시 향후 대책

윤민 (서울시 동물보호과 주무관)

■ ‘동물 공존도시 서울’을 위한 발걸음 시작

서울시는 올해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을 지향하며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물 공존도시 서울의 핵심은 선도적인 ‘동물 돌봄 체계’의 촘촘한 구축이다. 유기동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닌 선제적 지원, 민·관 협업으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반려동물을 더욱 더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과 사업들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물 정책과 교육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동물 돌봄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동물 공존도시 서울’로 가기 위한 서울시의 과제 중 하나는 ‘취약계층과 같은 돌봄 취약가구의 동물의료서비스 지원’이다. 서울시는 미국, 영국 등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지원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등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코자 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명의 위협과 반려동물의 유기가 우려되는 ‘도시정비구역의 동물보호를 위한 활동지원’을 전개코자 하였다. 서울시는 현재 약597개의 도시정비구역이 존재한다. 시민들은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와의 공존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키워왔고,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정비구역의 동물보호활동을 추진코자 하였다.

■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의미

이에 올해 추진되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수행하는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해당 의료서비스의 대상의 범위를 매우 넓게 지정하였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과 같은 소득수준이 낮은 시민들의 반려동물, 애니멀호더의 동물,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에게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였다.

이는 매우 복합적인 대상들이며, 어느 누구에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은 과정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취약계층, 애니멀호더,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동물보호를 선도적으로 주장해왔던 ‘동물권행동 카라’와 ‘서울시’는 올해 그 기나긴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다. 본 사업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동물등록과 중성화수술을 지원받게 되었고, 서울시 곳곳에 감춰져 있던 애니멀 호더들도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적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들에 대한 중성화수술도 지원하게 되었다.

■ 취약계층과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의 향후계획

하지만, 아직도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은 너무나도 많고, 애니멀 호더들의 동물들에 대한 지원은 지속 필요하며,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사업의 귀중한 사례들은 향후 지속될 서울시 사업들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 서울시의 갈 길은 멀다.

아직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심사와 의결이 확정적이지 않아 집행부서로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동물복지 지원은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내년에는 사람복지와 동물복지를 통합 지원코자 복지관, 복지단체, 사회적조함을 연결하여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 취약계층에게는 정신건강서비스를, 반려동물에게는 의로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12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현황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2021년에 본격적인 정규 사업으로의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도시정비구역의 동물보호활동을 위한 토대도 마련될 예정이다.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 서식현황, 국내외 이주프로그램 등을 조사해 매뉴얼을 제작하고,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지원시설을 조성해 자원봉사자 체계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1~2곳의 도시정비구역을 선정하여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길고양이 등 동물보호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모델사례를 만들어 2021년에는 서울시 자치구가 각 각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서울시가 지원할 계획이다.

■ 애니멀호딩과 서울시의 남은 과제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애니멀호더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 애니멀호딩은 엄밀히 따지면 동물학대 행위이고, 학대자로 적발되기 위해서는 상해나 질병이 밝혀지거나 사육공간 등 사육관리 의무위반이 명백하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자치구의 동물보호 담당자는 턱없이 부족하며, 설사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자택에 출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동물학대로 고발한다 해도 애니멀호더로부터 동물의 사육을 포기시키는 일, 그 동물을 보호해 입양 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취약계층과 애니멀호더가 일치할 수 있다는 이번 사업의 사례에 그 해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무분별한 번식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이 그 첫 번째 답일 것이고, 그 두 번째는 함부로 반려동물을 구매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붕괴일 것이다. 그렇다면, 애니멀호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적인 동물보호사업, 즉, 동물등록, 동물보호교육, 동물보호감시 등이 체계적이고 꼼꼼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그간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동물보호 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동물보호와 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동물이 더 이상 보호가 아닌 함께하는 대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동물 공존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관 협업과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많은 시민들,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지지를 구하는 바이다.

돌봄취약층 대상 서울시 중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윤상준 (데일리벳 대표)

■ 기존 동물병원과 협력하는 형태는 긍정적

2017년 서울시가 추진했던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 운영'사업은 용산구에 중성화 센터를 건립하고 수의사를 고용해 재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으로, 당시 서울시수의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정책적인 필요로 인해 중성화수술을 실시해야 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면, 서울시가 별도의 동물병원을 개설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 동물병원에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사업이 카라 동물병원을 비롯한 기존 동물병원 6개소를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된 것이 같은 지적이 일부 반영된 형태로 보입니다. 일선 동물병원의 경영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과 신설, 동물보호조례 제정 등 지자체 차원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은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중성화 지원사업도 타 지자체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좋은 선례를 남기길 기대합니다.

특히 한정된 예산 안에서 혜택 받는 동물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필요는 있더라도, 참여 동물병원에게 지나친 저가를 요구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지속가능한 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여 동물병원에게 큰 부담이 없는 선에서 적절한 수가를 책정하되, 의료서비스가 줄속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프로토콜을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라가 협력 동물병원과 구체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취약계층의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모습은 사업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동물 가족에게도 중성화수술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합니다.

■ 중성화수술 이외의 취약계층 동물의료 지원사업의 필요성

이번에 카라가 실시한 돌봄취약가구 대상 설문조사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해 받고 싶은 지원 내용으로 의료비 지원(37.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중성화수술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인한 동물 진료비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이에 대한 지원 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토대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해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소득 1분위자 16만 4천여명에게 2,400억원을 환급하는 등 총 1조 3천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에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진료라도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20%를 초과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서도 저소득층 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도입된다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노령기에 진입하는 생애전환기에 건강검진을 지원하거나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소득층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 등록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때 동물병원에게 시술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지자체나 정부가 적절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 론

김철기(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사무관)

질 의 응 답
전 체 토 론

별첨자료

서울시 돌봄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실태조사

동물권행동 **카라**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성빛

I. 조사개요

1. 조사기간 : 2019년 04월 ~ 2019년 10월
2. 조사대상 : 2019년 서울시 돌봄 취약층 대상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 사업
신청자 가운데 취약가구 참여 대상자
3. 조사방법 : 1:1 서베이조사
4. 분석방법
 - 1) 자료분석은 SPSS 2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이분석을 실시
 - 2) 엑셀통계를 통한 다중응답 교차분석 실시

II. 자료 분석 결과

1. 빈도 및 기술통계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 39명(25.8%), 여자 112명(74.2%)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의 경우 50대 33명(22.1%), 20대 26명(17.4%), 40대 25명(16.8%), 30대 21명(14.1%), 10대 이하가 19명(12.8%), 60대 이상 25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분포가 20대에서 50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60대 이상의 노인도 1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 북부가 52명(34.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서울 서부(31.1%), 서울 동부 31명(20.5%), 서울 남부 21명(13.9%)의 비율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별 빈도를 확인해보면, 노원구가 30명(19.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은평구와 강서구가 각각 13명(8.6%), 강남구 10명(6.6%), 강북구 9명(6.0%), 중랑구 8명(5.3%), 용산구 7명(4.6%), 관악구·동대문구·마포구·서대문구·성북구가 각각 6명(4.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금천구·도봉구가 각각 5명(3.3%), 구로구·성동구가 각각 4명(2.6%), 광진구 3명(2.0%), 동작구·송파구·양천구·종로구가 각각 2명(1.3%), 서초구·중구가 각각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택형태의 경우 연립/빌라/다세대 주택이 69명(46.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파트 63명(42.0%), 단독주택 18명(12.0%)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가구형태의 경우 2세대가 78명(5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인세대(혼자 거주)가 46명(30.7%), 1세대(부부)가 12명(8.0%), 3세대와 기타세대가 각각 7명(4.7%)의 비율을 보였다.
- 소득구간으로는 100만원 미만이 40명(3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이 32명(25.8%)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100~150만원 미만이 31명(25.0%), 150~200만원 미만이 21명(16.9%) 순으로 나타났다.
- 동거가족의 수의 경우 3명이 32명(30.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2명이 26명(24.5%), 1명이 24명(22.6%), 4명이 19명(17.9%), 5명이 5명(4.7%)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수의 경우 1마리가 105명(69.5%)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2마리가 41명(27.2%), 3마리 이상이 5명(3.4%)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연령의 경우 1~2년 미만이 39명(2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3~5년 미만이 37명(22.8%), 1년 미만이 30명(18.5%), 5~10년 미만이 28명(17.3%), 10년 이상이 4명(2.5%)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지출 비용의 경우 50,000~100,000원 미만이 63명(43.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100,000~200,000원 미만이 40명(27.8%), 30,000~50,000원 미만과 200,000원 이상이 각각 14명(9.7%), 30,000원 미만이 13명(8.6%)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중 ‘개’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1마리를 키우고 있는 대상이 105명(6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마리가 41명(27.2%), 3마리 이상이 5명(3.4%)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성비로는 암컷이 98마리(63.6%), 수컷이 56마리(36.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인 ‘개’의 연령으로는 3~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2명(23.9%)으로 가장 많고, 1~2년 미만이 30명(22.4%), 1년 미만과 5~10년 미만이 각각 25명(18.7%), 2~3년 미만이 18명(13.4%), 10년 이상이 4명(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지출비용을 확인한 결과 50,000~100,000원 미만이 62명(4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100,000~200,000원 미만이 48명(31.4%), 30,000~50,000원 미만이 17명(11.1%), 200,000원 이상이 14명(9.2%), 10,000~30,000원미만이 10명(6.5%), 10,000원 미만이 2명(1.3%)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중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1마리를 키우고 있는

대상이 21명(72.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2마리가 6명(20.7%), 3마리 이상이 2명(6.9%)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성비로는 암컷이 21마리(63.6%), 수컷이 12마리(36.4%)의 비율을 보인다. 반려동물 연령의 경우 1~2년 미만이 9명(32.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3년 미만이 5명(17.9%), 3~5년 미만과 1년 미만이 각각 5명(17.9%), 10년 이상이 4명(14.3%), 5~10년 미만이 3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지출 비용을 확인한 결과 50,000~100,000원 미만이 19명(61.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200,000원 이상이 7명(22.6%), 10,000~30,000원 미만이 3명(9.7%), 100,000~200,000원 미만 2명(6.5%)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 중 반려동물을 과거에 키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있다’가 76명(51.0%), ‘없다’가 73명(49.0%)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 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키운 기간을 확인한 결과 10년 이상이 22명(37.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11명(19.0%), 2~3년 미만이 9명(15.5%), 1~2년 미만과 3~5년 미만이 각각 7명(12.1%), 1년 미만이 2명(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일반적 특성(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여성	112	74.2
	남성	39	25.8
	총계	151	100.0
연령대	10대 이하	19	12.8
	20대	26	17.4
	30대	21	14.1
	40대	25	16.8
	50대	33	22.1
	60대 이상	25	16.8
	총계	149	100.0
거주권역	서울 동부	31	20.5
	서울 서부	47	31.1
	서울 남부	21	13.9
	서울 북부	52	34.4
	총계	151	100.0
거주지역	강남구	10	6.6
	강북구	9	6.0
	강서구	13	8.6

	구분	빈도(명)	퍼센트(%)
	관악구	6	4.0
	광진구	3	2.0
	구로구	4	2.6
	금천구	5	3.3
	노원구	30	19.9
	도봉구	5	3.3
	동대문구	6	4.0
	동작구	2	1.3
	마포구	6	4.0
	서대문구	6	4.0
	서초구	1	0.7
	성동구	4	2.6
	성북구	6	4.0
	송파구	2	1.3
	양천구	2	1.3
	용산구	7	4.6
	은평구	13	8.6
	종로구	2	1.3
	중구	1	.7
	중랑구	8	5.3
		총계	151
주택형태	단독주택	18	12.0
	아파트	63	42.0
	연립/빌라/다세대주택	69	46.0
	총계	150	100.0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46	30.7
	1세대(부부)	12	8.0
	2세대	78	52.0
	3세대	7	4.7
	기타	7	4.7
	총계	150	100.0
소득구간	100만원 미만	40	32.3
	100~150만원 미만	31	25.0
	150~200만원 미만	21	16.9
	200만원이상	32	25.8
	총계	124	100.0

	구분	빈도(명)	퍼센트(%)
동거가족 수	1명	24	22.6
	2명	26	24.5
	3명	32	30.2
	4명	19	17.9
	5명	5	4.7
	총계	106	100.0
반려동물 수	1마리	105	69.5
	2마리	41	27.2
	3마리 이상	5	3.4
	총계	151	100.0
반려동물 성별	암	119	63.6
	수	68	36.4
	총계	187	100.0
반려동물 연령	1년 미만	30	18.5
	1~2년 미만	39	24.1
	2~3년 미만	24	14.8
	3~5년 미만	37	22.8
	5~10년 미만	28	17.3
	10년 이상	4	2.5
	총계	162	100.0
반려동물 지출비용	30,000원 미만	13	9.0
	30,000~50,000원 미만	14	9.7
	50,000~100,000원 미만	63	43.8
	100,000~200,000원 미만	40	27.8
	200,000원 이상	14	9.7
	총계	144	100.0
반려동물 수(개)	1마리	105	69.5
	2마리	41	27.2
	3마리 이상	5	3.4
	총계	133	100.0
반려동물 성별(개)	암	98	63.6
	수	56	36.4

	구분	빈도(명)	퍼센트(%)
	총계	154	100.0
반려동물 연령(개)	1년 미만	25	18.7
	1~2년 미만	30	22.4
	2~3년 미만	18	13.4
	3~5년 미만	32	23.9
	5~10년 미만	25	18.7
	10년 이상	4	3.0
	총계	134	100.0
반려동물 지출 비용(개)	10,000원 미만	2	1.3
	10,000~30,000원 미만	10	6.5
	30,000~50,000원 미만	17	11.1
	50,000~100,000원 미만	62	40.5
	100,000~200,000원 미만	48	31.4
	200,000원 이상	14	9.2
	총계	153	100.0
반려동물 수(고양이)	1마리	21	72.4
	2마리	6	20.7
	3마리 이상	2	6.9
	총계	29	100.0
반려동물 성별 (고양이)	암	21	63.6
	수	12	36.4
	총계	33	100.0
반려동물 연령 (고양이)	1년 미만	5	17.9
	1~2년 미만	9	32.1
	2~3년 미만	6	21.4
	3~5년 미만	5	17.9
	5~10년 미만	3	10.7
	10년 이상	4	14.3
	총계	28	100.0
반려동물 지출 비용 (고양이)	10,000원 미만	0	0.0
	10,000~30,000원 미만	3	9.7
	30,000~50,000원 미만	0	0.0
	50,000~100,000원 미만	19	61.3
	100,000~200,000원 미만	2	6.5
	200,000원 이상	7	22.6
	총계	31	100.0
키운경험	있다	76	51.0

	구분	빈도(명)	퍼센트(%)
	없다	73	49.0
	총계	149	100
키운기간	1년 미만	2	3.4
	1~2년 미만	7	12.1
	2~3년 미만	9	15.5
	3~5년 미만	7	12.1
	5~10년 미만	11	19.0
	10년 이상	22	37.9
	총계	58	100.0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평균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을 확인한 결과, 연령의 경우 평균 41.9세(SD=20.034)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평균 1,328,000원(SD=745,000)으로 나타났으며, 동거가족의 수는 평균 2.6명(SD=1.162)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의 수는 전체 평균 1.58(SD=2.079)마리로 나타났으며, 개의 경우 평균 1.47(SD=2.363)마리로 나타났으며, 고양이의 경우 1.69(SD=1.795)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의 연령의 경우 평균 2.98세(SD=2.636)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한 마리당 지출비용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90,069원(SD=100,345)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에 관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7.6년(SD=6.245)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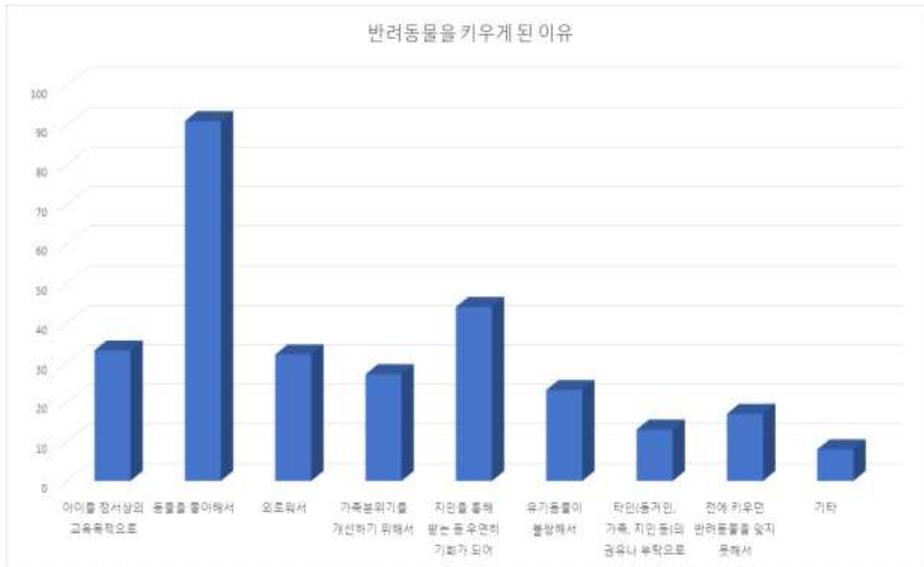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

구분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연령	41.9	20.034	1.00	91.00
소득	1,328,000	740,500	100,000	4,000,000
동거가족 수	2.60	1.162	1	5
반려동물 수	1.58	2.079	1	36

구분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반려동물 수(개)	1.47	2.363	1	28
반려동물 수(고양이)	1.69	1.795	1	8
반려동물 연령	2.98	2.636	.1	13.0
한 마리당 지출비용	90,069	100,345	3,000	1,000,000
키운 기간(과거)	7.6	6.245	1	20

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 및 경로

(1)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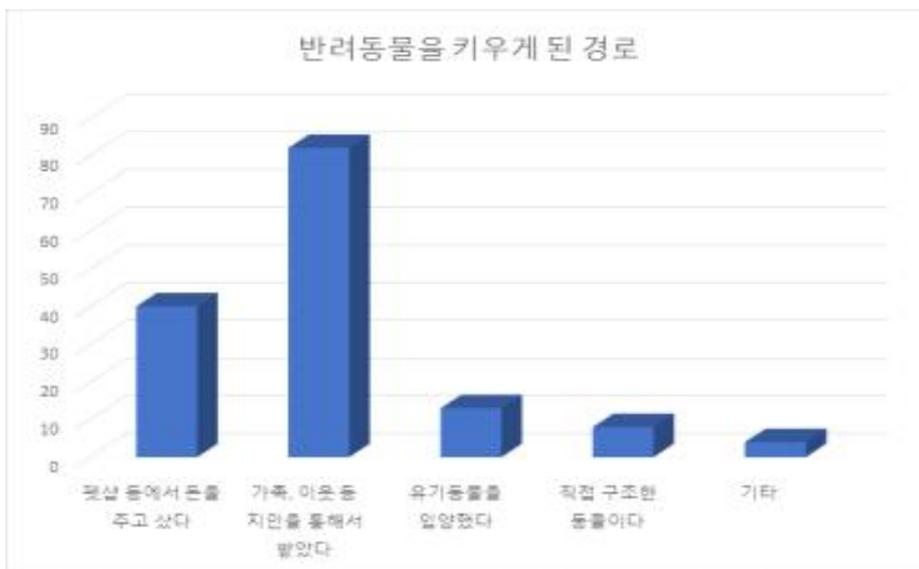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조사결과를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동물을 좋아해서 키우게 되었다고 응답한 조사자가 91명(3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키우게 되었다고 응답한 조사자도 44명(15.3%)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목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33명(11.5%),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32명(11.1%), 가족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명(9.4%),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23명(8.0%),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17명(5.9%), 타인(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권유나 부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13명(4.5%), 기타의견이 8명(2.8%)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가족분양, 가족의 우울증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구조했다, 언니가 아플 때 키웠다, 입양파티 갔다가, 자녀가 원해서, 집 앞에 버리고 가서 키우게 되었다, 치매가 있어서 개와 대화 나누고 하려고 키우게 되었다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다중응답)

구분	N	퍼센트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목적으로	33	11.5
	동물을 좋아해서	91	31.6
	외로워서	32	11.1
	가족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27	9.4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	44	15.3

구분	N	퍼센트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23	8.0
타인(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권유나 부탁으로	13	4.5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17	5.9
기타	8	2.8
총계	288	100.0

(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를 확인한 결과 가족, 이웃 등 지인을 통해서 받았다가 82명(55.8%)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펫샵 등에서 돈을 주고 샀다’ 경우가 40명(27.2%),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가 13명(8.8%), ‘직접 구조한 동물이다’가 8명(5.4%), ‘기타의견’이 4명(2.7%)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에 관한 내용으로는 매입구조, 모란시장에서 구입, 유기견의 새끼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	40	27.2
펫샵 등에서 돈을 주고 샀다	40	27.2
가족, 이웃 등 지인을 통해서 받았다	82	55.8
유기동물을 입양했다	13	8.8
직접 구조한 동물이다	8	5.4
기타	4	2.7
총계	147	100.0

3) 반려동물 특성

(1) 키우는 반려동물의 품종

□ 반려동물 중 키우는 개의 품종을 확인한 결과 말티즈가 45마리(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믹스가 35마리(20.8%)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푸들이 32마리(19.0%), 치와와 8마리(4.8%), 포메리안 7마리(4.2%), 시츄·진돗개가 각각 5마리(3.0%), 폼피츠 4마리(2.4%), 스피츠·시바·요크셔테리어·코커스파니엘 등이 각각 3마리(1.8%), 골든리트리버·닥스훈트·보더콜리·비송 프리제·샤페이·퍼그가 각각 2마리(1.2%), 미니어처 핀셔·비글·슈нау저가 각각 1마리(0.6%)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중 키우는 고양이의 품종을 확인한 결과 코리안숏헤어가 15마리(5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러시안블루가 3마리(10.7%), 터키쉬앙고라·노르웨이 숲이 각각 2마리(7.1%), 먼치킨 숏레그·뱅갈·브리티쉬 숏헤어·스코티쉬 폴드·스코티쉬 스트레이트·페르시안이 각각 1마리(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키우는 반려동물의 품종

구분	빈도	퍼센트	
키우는 개의 품종	골든리트리버	2	1.2
	닥스훈트	2	1.2
	말티즈	45	26.8
	미니어처 핀셔	1	0.6
	보더콜리	2	1.2
	비글	1	0.6
	비송 프리제	2	1.2
	샤페이	2	1.2
	슈нау저	1	0.6
	스피츠	3	1.8
	시바	3	1.8
	시츄	5	3.0
	요크셔테리어	3	1.8
	진돗개	5	3.0

	구분	빈도	퍼센트
	치와와	8	4.8
키우는 개의 품종	코커스파니엘	3	1.8
	피그	2	1.2
	포메마리안	7	4.2
	폼피츠	4	2.4
	푸들	32	19.0
	믹스	35	20.8
총계		168	100.0
키우는 고양이의 품종	노르웨이숲	2	7.1
	러시안 블루	3	10.7
	먼치킨 숏레그	1	3.6
	뱅갈	1	3.6
	브리티쉬 숏헤어	1	3.6
	스코티쉬 폴드	1	3.6
	스코티쉬스트레이트	1	3.6
	코리안숏헤어	15	53.5
	터키쉬앙고라	2	7.1
	페르시안	1	3.6
총계		28	100.0

(2) 키우는 반려동물의 특성

- 반려동물의 과거병력 및 현재병력을 확인한 결과, 과거병력이 ‘있다’ 라는 응답자가 26명(19.5%), ‘없다’ 라는 응답자가 107명(80.5%)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병력에 관한 응답으로 ‘있다’ 라고 한 경우가 17명(13.5%), ‘없다’ 라는 응답자가 109명(86.5%)으로 나타났다. 과거병력에 관한 의견으로는 피부병이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눈염증, 귀염증, 심장사사충, 홍역 등의 응답이 있었다. 현재 병력에 관한 의견으로는 피부병이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심장사사충, 방광염, 관절염 등의 의견이 있었다.
-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응답으로는 ‘건, 습사료’ 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71명(96.1%)으로 거의 대다수이고, ‘잔반’ 을 준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명(1.7%)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도 4명(2.2%)이 응답하였다.
- 반려동물의 등록에 관한 응답으로는 미등록 94명(56.3%)이고, 등록이 73명(43.7%)으로 응답하였으며, 동물등록방법으로는 내장형이 45명(65.2%), 인식형이 24명(34.8%)으로 응답하였다.

<표> 반려동물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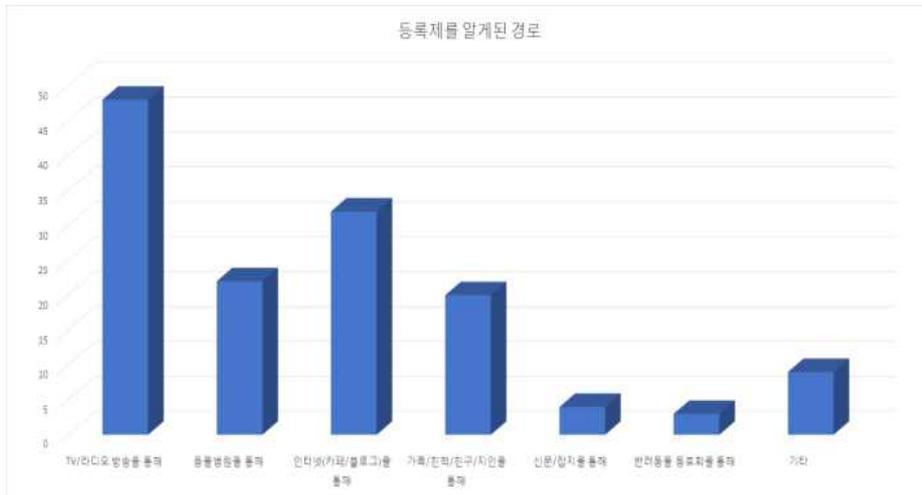
구분		N	퍼센트
반려동물의 과거병력	없다	107	80.5
	있다	26	19.5
	총계	133	100.0
반려동물의 현재병력	없다	109	86.5
	있다	17	13.5
	총계	126	100.0
반려동물의 급식	건, 습사료	171	96.1
	잔반	3	1.7
	기타	4	2.2
	총계	178	100.0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등록	73	43.7
	미등록	94	56.3
	총계	167	100.0
동물등록 방법	인식형	24	34.8
	내장형	45	65.2
	총계	69	100.0

4)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조사

(1) 반려동물 등록현황 및 알게 된 경로

- 반려동물 등록제 유무에 관한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예’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39명(92.7%), ‘아니오’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1명(7.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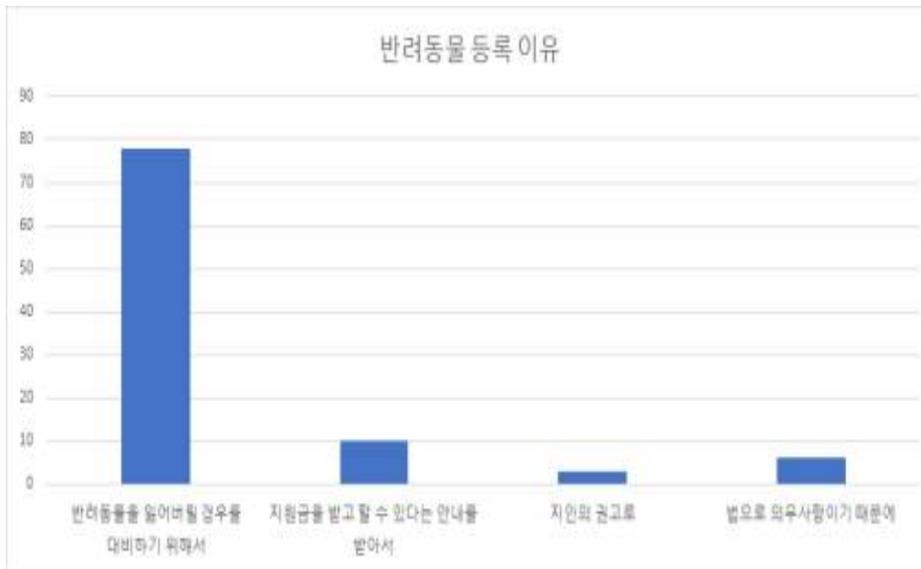


□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로는 TV/라디오 방송을 통해서가 48명(3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인터넷(카페/블로그)을 통해서도 32명(23.2%)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동물병원을 통해서가 22명(15.9%), 가족/친척/친구/지인을 통해서가 20명(14.5%), 신문/잡지를 통해서가 4명(2.9%),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서가 3명(2.2%)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도 9명(6.5%)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아파트 게시물(5명), 구청·주민센터를 통해서(3명), 인스타그램(1명)으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등록제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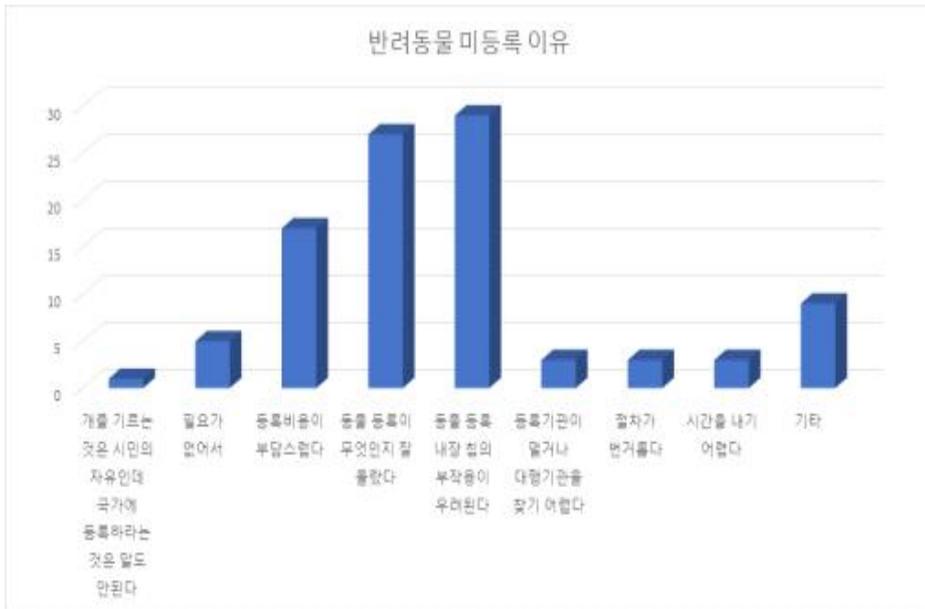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등록제유무	예	139	92.7
	아니오	11	7.3
	총계	150	100.0
등록제 알게 된 경로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48	34.8
	동물병원을 통해	22	15.9
	인터넷(카페/블로그)를 통해	32	23.2
	가족/친척/친구/지인을 통해	20	14.5
	신문/잡지를 통해	4	2.9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	3	2.2
	기타	9	6.5
	총계	138	100.0

(2) 반려동물 등록 및 미등록 이유



□ 반려동물을 등록한 이유에 관한 응답으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가 78명(8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원금을 받고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가 10명(10.3%), 법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등록했다가 6명(6.2%), 지인의 권고로 등록했다가 3명(3.1%)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을 등록 안 한 이유에 관한 응답으로는 동물등록 내장칩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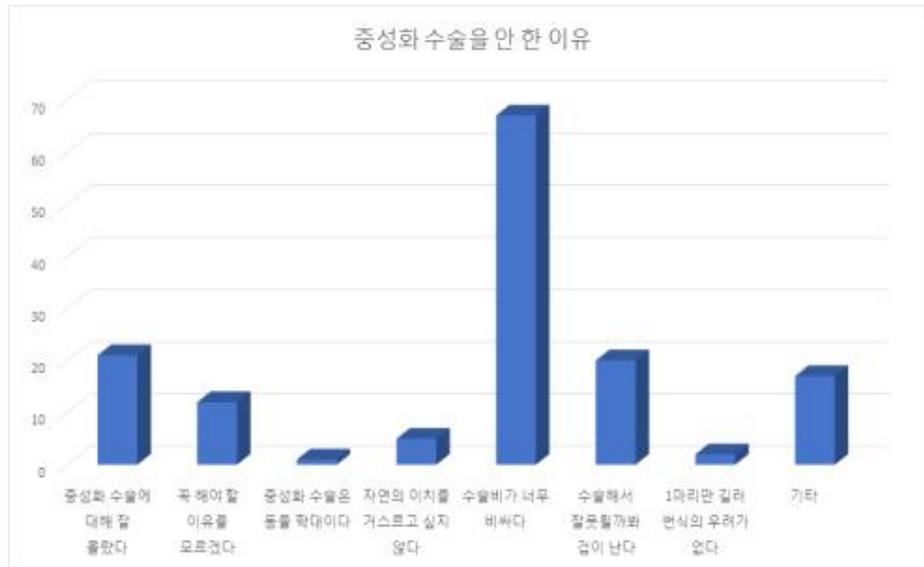
가 29명(29.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동물 등록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응답도 27명(27.8%)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등록비용이 부담스럽다가 17명(17.5%), 필요가 없어서가 5명(5.2%), 등록기관이 멀거나 대행기관을 찾기 어렵다·절차가 번거롭다·시간을 내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각각 3명(3.1%), 개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가 1명(1.0%)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의견도 9명(9.3%)의 비율을 보였으며, 기타의견으로는 고양이, 새끼라서라고 응답하였다.

<표> 반려동물 등록 및 미등록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 등록이유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78	80.4
	지원금을 받고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	10	10.3
	지인의 권고로	3	3.1
	법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6	6.2
	총계	97	100.0
반려동물을 등록 안한 이유	개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1	1.0
	필요가 없어서	5	5.2
	등록비용이 부담스럽다	17	17.5
	동물등록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27	27.8
	동물등록 내장칩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29	29.9
	등록기관이 멀거나 대행기관을 찾기 어렵다	3	3.1

구분	빈도	퍼센트
절차가 번거롭다	3	3.1
시간을 내기 어렵다	3	3.1
기타	9	9.3
총계	97	100.0

5) 중성화 수술에 관한 조사



□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이유에 관한 조사를 확인한 결과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가 67명 (46.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는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가 21명(14.5%),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가 20명(13.8%), 꼭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가 12명(8.3%),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가 5명(3.4%), 1마리만 길러 번식의 우려가 없다가 2명(1.4%), 중성화 수술은 동물 학대이다가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의견도 17명(11.7%)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어려서, 시간이 없어서, 잠복고환이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집에 데려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할머니의 반대 등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이유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	21	14.5
	꼭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12	8.3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이다	1	0.7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	5	3.4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	67	46.2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	20	13.8
	1마리만 길러 번식의 우려가 없다	2	1.4
	기타	17	11.7
	총계	145	100.0

6) 반려견 산책

□ 반려견 산책빈도를 확인한 결과 매일 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7명(43.8%)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1~6회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총 58명(44.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확인했을 때, 일주일 3회가 18명(13.8%), 일주일에 1회가 13명(10.0%), 일주일에 2회가 11명(8.5%), 일주일에 5회가 10명(7.7%), 일주일에 4회가 5명(3.8%), 일주일에 6회가 1명(0.8%)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주 가끔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9명(6.9%), 전혀 안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6명(4.6%)로 나타났다. 기술통계를 통하여 평균을 확인한 결과 전체산책 빈도는 평균 4.469회(SD=3.164)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견을 기르는 응답자는 일주일에 평균 4-5일 정도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반려견 산책 빈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SD	
반려견 산책 빈도	매일	57	43.8	4.469	3.164	
	일주일 1~6회	1	13			10.0
		2	11			8.5
		3	18			13.8
		4	5			3.8
		5	10			7.7
		6	1			0.8
	아주 가끔	9	6.9			
	전혀 안 한다	6	4.6			
총계	130	100.0				

7)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 물품의 종류

□ 반려동물 중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의 물품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 스크래처가 29명(1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고양이 화장실과 모래 28명(18.8%), 발톱깎이 27명(18.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캣타워 혹은 캣폴 23명(15.4%), 고양이 장난감 여러 개 22명(14.8%), 고양이 장난감 1개 19명(12.8%), 기타 1명(0.7%)으로 나타났다.

〈표〉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 물품의 종류(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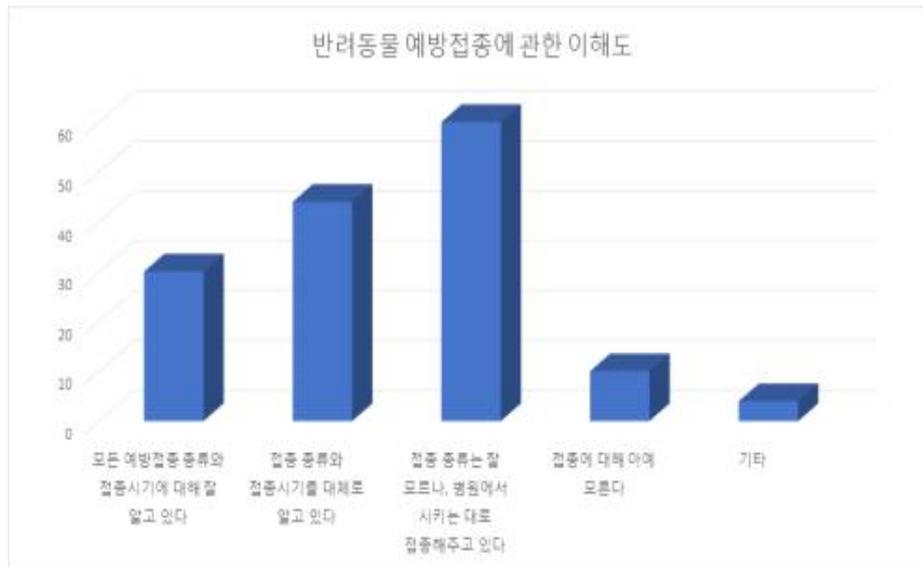
구분		N	퍼센트
고양이를 위해 가지고 있는 물품의 종류	고양이 화장실과 모래	28	18.8
	고양이 장난감 1개	19	12.8
	고양이 장난감 여러개	22	14.8
	캣타워 혹은 캣폴	23	15.4
	스크래처	29	19.5
	발톱깎이	27	18.1
	기타	1	0.7
총계	149	100.0	

8) 반려동물 예방접종 현황

(1)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

□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를 확인한 결과 접종 종류는 잘 모르나,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접종해주고 있다가 60명(4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접종 종류와 접종시기를 대체로 알고 있다가 44명(29.7%), 모든 예방접종 종류와 접종 시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가 30명(20.3%), 접종에 대해 아예 모른다 10명(6.8%), 기타 4명(2.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의 경우 집에서만 키우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

다 등의 내용이 응답되었다.



〈표〉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	모든 예방접종 종류와 접종시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0	20.3
	접종 종류와 접종시기를 대체로 알고 있다	44	29.7
	접종 종류는 잘 모르나,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접종해주고 있다	60	40.5
	접종에 대해 아예 모른다	10	6.8
	기타	4	2.7
총계		148	100.0

(2)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으로 반려견의 예방접종을 확인한 결과, 반려견 종합백신을 새끼 때 해줬다가 77명(6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1년에 한번 34명(27.6%), 안해준다 8명(6.5%), 뭔지 모르다가 4명(3.3%)로 나타났다. 또한, 광견병 백신의 경우 1년에 한번이 51명(42.1%), 새끼 때 해줬다가 50명(41.3%), 안해준다 12명(9.9%), 뭔지 모르다가 8명(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장사상충 예방의 경우 한달에 한번이 71명(5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새끼 때 해줬다가 23명(18.9%), 안해준다와 1년에 한번이 각각 11명(9.0%), 뭔지 모르다가 6명(4.9%)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으로 반려묘의 예방접종을 확인한 결과, 반려묘 종합백신으로 새끼 때 해줬다가 19명(6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1년에 한번이 7명(24.1%), 안해준다 3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묘 광견병 백신의 경우 새끼 때 해줬다가 8명(28.6%), 안해준다와 1년에 한번이 각각 7명(25.0%), 뭔지 모르다가 6명(21.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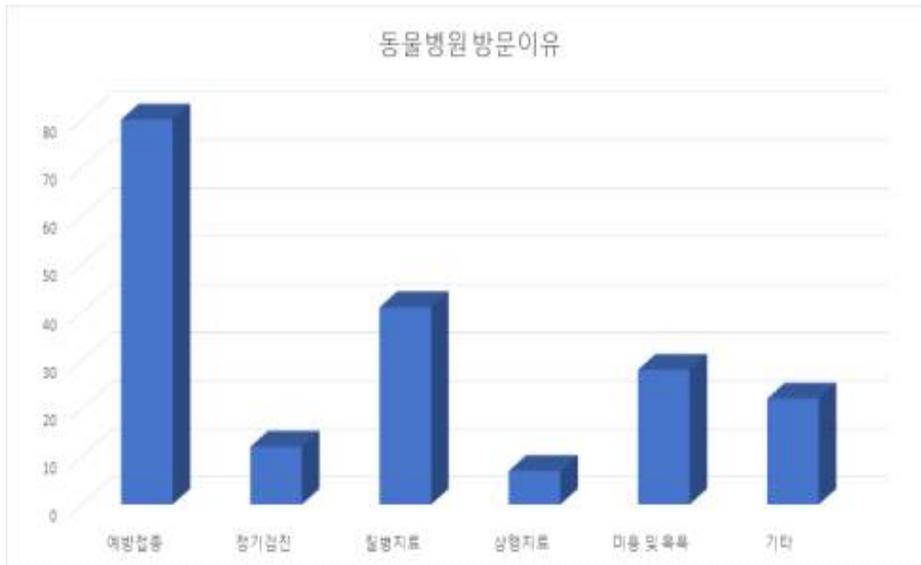
〈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견 종합백신	안 해준다	8	6.5
	새끼 때 해줬다	77	62.6
	1년에 한번	34	27.6
	뭔지 모른다	4	3.3
	총계	123	100.0
광견병 백신	안 해준다	12	9.9
	새끼 때 해줬다	50	41.3
	1년에 한번	51	42.1
	뭔지 모른다	8	6.6
	총계	121	100.0
심장사상충 예방	안 해준다	11	9.0
	새끼 때 해줬다	23	18.9
	1년에 한번	11	9.0
	한달에 한번	71	58.2
	뭔지 모른다	6	4.9
	총계	122	100.0
반려묘 종합백신	안 해준다	3	10.3
	새끼 때 해줬다	19	65.5
	1년에 한번	7	24.1
	총계	29	100.0
반려묘 광견병 백신	안 해준다	7	25.0
	새끼 때 해줬다	8	28.6
	1년에 한번	7	25.0
	뭔지 모른다	6	21.4
	총계	28	100.0

9) 동물병원 방문 이유 및 보험등록 유무

(1) 동물병원 경험 및 방문 이유

□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응답으로는 있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19명 (81.0%), 없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8명(19.0%)로 나타났다.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응답내용을 확인하면, 예방접종이 80명(4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는 질병치료 41명(21.6%), 미용 및 목욕 28명(14.7%), 기타 22명(11.6%), 정기검진 12명(6.3%), 상해치료 7명(3.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중성화수술, 동물등록, 사료 및 간식 문의, 심장사상충예방, 사료구매, 약처방, 유기견 나이를 물어보러 등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 및 방문 이유(다중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	있었다	119	81.0
	없었다	28	19.0
	총계	147	100.0
동물병원 방문 이유	예방접종	80	42.1
	정기검진	12	6.3
	질병치료	41	21.6
	상해치료	7	3.7
	미용 및 목욕	28	14.7
	기타	22	11.6
	총계	1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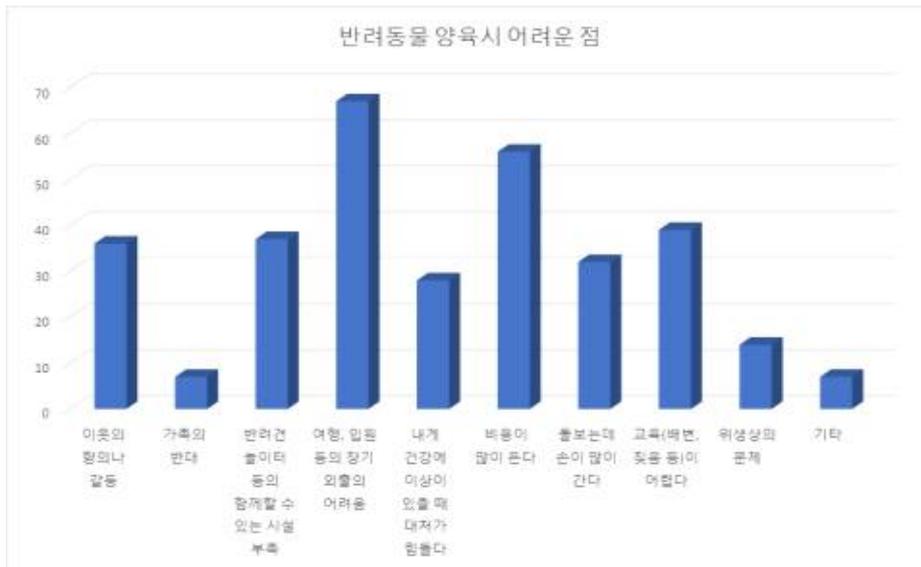
(2)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유무

□ 반려동물의 동물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한 결과 가입하지 않음이 148명(9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기르는 반려동물 모두 보험에 가입함과 기르는 동물 일부만 가입함이 각각 1명(0.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유무

구분		빈도	올바른 퍼센트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하지 않음	148	98.7
	기르는 반려동물 모두 보험에 가입함	1	0.7
	기르는 동물 일부만 가입함	1	0.7
	총계	150	100.0

10)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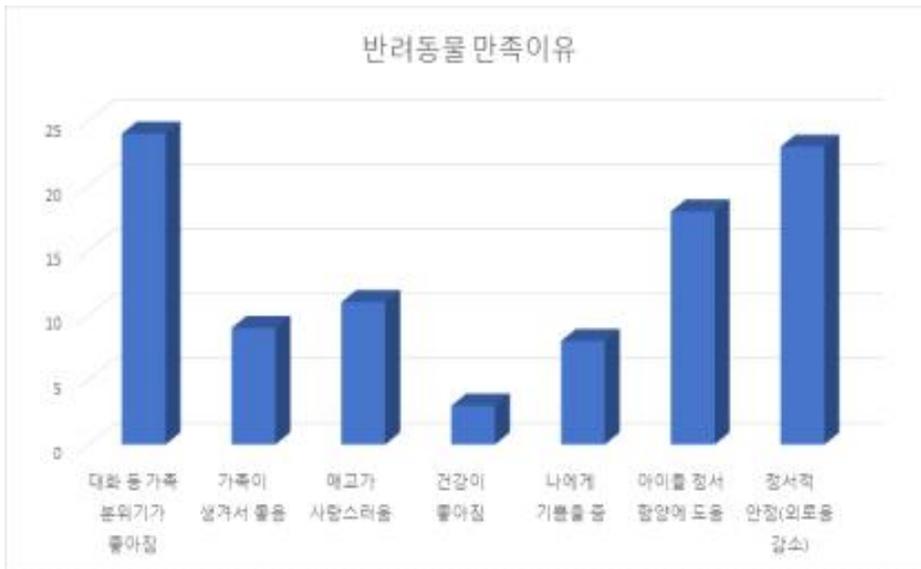
-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을 확인한 결과 여행, 입원 등의 장기 외출의 어려움이 67명(2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응답도 56명(17.3%)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서는 교육(배변, 짖음 등)이 어렵다가 39명(12.1%), 반려견 놀이터 등의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가 37명(11.5%), 이웃의 혐의나 갈등이 36명(11.1%), 돌보는 데 손이 많이 간다가 32명(9.9%), 내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대처가 힘들다가 28명(8.7%), 위생상의 문제가 14명(4.3%), 가족의 반대 및 기타가 각각 7명(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산책 매일가기 힘들다와 집에 혼자 두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다중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	이웃의 항의나 갈등	36	11.1
	가족의 반대	7	2.2
	반려견 놀이터 등의 함께할 수 있는 시설 부족	37	11.5
	여행, 입원 등의 장기 외출의 어려움	67	20.7
	내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대처가 힘들다	28	8.7
	비용이 많이 든다	56	17.3
	돌보는 데 손이 많이 간다	32	9.9
	교육(배변, 짖음 등)이 어렵다	39	12.1
	위생상의 문제	14	4.3
	기타	7	2.2
	총계	323	100.0

11) 반려동물을 통한 변화

(1) 반려동물을 통한 삶의 만족도 변화



□ 반려동물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39명(95.2%)의 비율을 보였으며, 변화가 없다가 4명(2.7%),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가 3명(2.1%)의 비율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에 관하여서는 대화 등 가족 분위기가 좋아짐이 24명(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정서적 안정(외로움 감소)이 된다고도 23명(24.0%)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아이들 정서 함양에 도움이 18명(18.8%), 애교가 사랑스러움이 11명(11.5%), 나에게 기쁨을 줌 8명(8.3%), 건강이 좋아짐이 3명(3.1%)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이유로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좋았으나 지금은 키우기 힘들과 건강상 돌보기 힘들이가 각각 1명(50.0%)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삶의 만족도 변화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삶의 만족도 변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139	95.2
	변화 없다	4	2.7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3	2.1
	총계	146	100.0
만족이유	대화 등 가족 분위기가 좋아짐	24	25.0
	가족이 생겨서 좋음	9	9.4
	애교가 사랑스러움	11	11.5
	건강이 좋아짐	3	3.1
	나에게 기쁨을 줌	8	8.3
	아이들 정서 함양에 도움	18	18.8
	정서적 안정(외로움 감소)	23	24.0
	총계	96	100.0
불만족이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좋았으나 지금은 키우기 힘들	1	50.0
	건강상 돌보기 힘들	1	50.0
	총계	2	100.

(2)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

□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 9개의 문항 중에서 책임감이 생겼다가 평균 4.70(SD=.503)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로움이 감소되었다도 평균 4.62(SD=.514)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이어서는 생활이 활기차졌다 평균 4.48(SD=.654),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평균 4.20(SD=.779),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평균 4.14(SD=.970), 운동량이 증가하였다 평균 4.11(SD=.916),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었다 평균 4.07(SD=.970),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평균 3.86(SD=.873), 건강이 좋아졌다 평균 3.84(SD=.871) 순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SD	
책임감이 생겼다	매우 그렇다	107	71.8	4.70	.503
	그렇다	39	26.2		
	모르겠다	3	2.0		
	그렇지 않다	-	-		
	전혀 아니다	-	-		
	총계	149	100.0		
생활이	매우 그렇다	80	54.1	4.48	.654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SD	
활기차졌다	그렇다	62	41.9		
	모르겠다	4	2.7		
	그렇지 않다	1	0.7		
	전혀 아니다	1	0.7		
	총계	148	100.0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매우 그렇다	65	44.2	4.14	.970
	그렇다	50	34.0		
	모르겠다	21	14.3		
	그렇지 않다	9	6.1		
	전혀 아니다	2	1.4		
	총계	147	100.0		
외로움이 감소되었다	매우 그렇다	94	63.5	4.62	.514
	그렇다	52	35.1		
	모르겠다	2	1.4		
	그렇지 않다	-	-		
	전혀 아니다	-	-		
	총계	148	100.0		
운동량이 증가하였다	매우 그렇다	60	40.3	4.11	.916
	그렇다	54	36.2		
	모르겠다	28	18.8		
	그렇지 않다	5	3.4		
	전혀 아니다	2	1.3		
	총계	149	100.0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55	37.2	4.20	.779
	그렇다	72	48.6		
	모르겠다	18	12.2		
	그렇지 않다	1	0.7		
	전혀 아니다	2	1.4		
	총계	148	100.0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었다	매우 그렇다	60	40.8	4.07	.970
	그렇다	48	32.7		
	모르겠다	31	21.1		
	그렇지 않다	5	3.4		
	전혀 아니다	3	2.0		
	총계	147	100.0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41	27.7	3.86	.873
	그렇다	50	33.8		
	모르겠다	53	35.8		
	그렇지 않다	3	2.0		
	전혀 아니다	1	0.7		
	총계	148	100.0		
건강이 좋아졌다	매우 그렇다	41	27.7	3.84	.871
	그렇다	47	31.8		
	모르겠다	57	38.5		
	그렇지 않다	2	1.4		
	전혀 아니다	1	0.7		
	총계	1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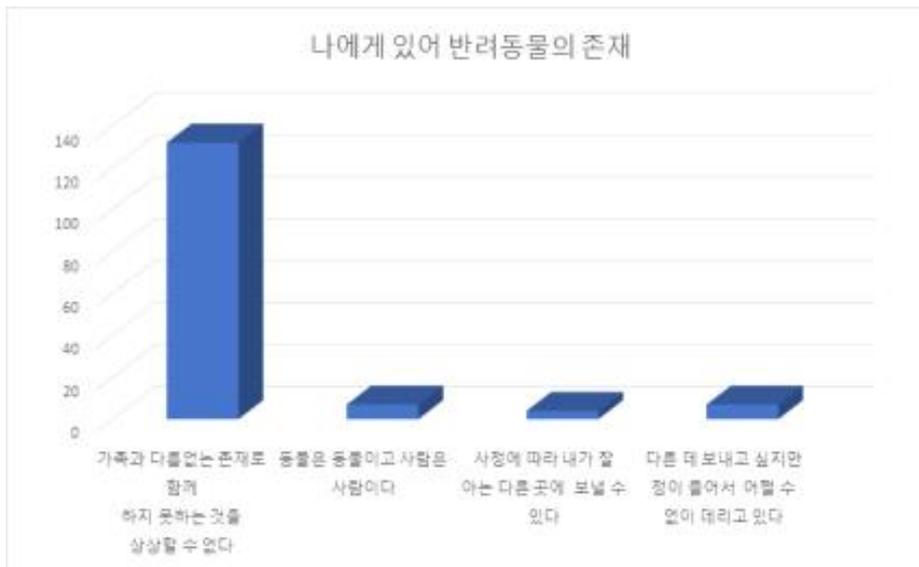
(3)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이외의 변화)

□ 반려동물을 통한 9개의 항목 이외의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는 가족들이 공동화제가 생기고 단합하게 되었다,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행복지수가 올라갔다, 시야 넓어짐. 세심. 배려가 높아졌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아졌다, 산책을 통해 건강이 좋아졌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이외의 변화

구분	빈도	
이외의 변화	가족들이 공동화제가 생기고 단합함	1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4
	행복지수가 올라감	1
	시야 넓어짐. 세심. 배려가 높아짐	1
	심리적인 안정감	6
	산책을 통해 건강이 좋아짐	3
	총계	16

(4) 나에게 있어 반려동물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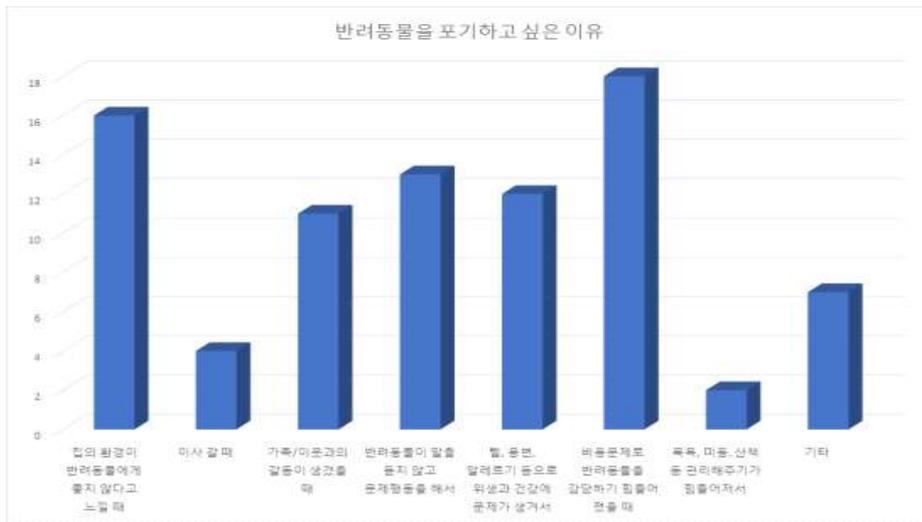


□ 반려동물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질문을 통한 응답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족과 다른없는 존재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가 132명(8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와 다른 데 보내고 싶지만 정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가 각각 7명(4.7%), 사정에 따라 내가 잘 아는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가 4명(2.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긍정적인 대답이 88.0%, 부정적인 대답이 12.0%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나에게 있어 반려동물의 존재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이 나에게 주는 존재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132	88.0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7	4.7
	사정에 따라 내가 잘 아는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	4	2.7
	다른 데 보내고 싶지만 정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	7	4.7
	총계	150	100.0

12)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은 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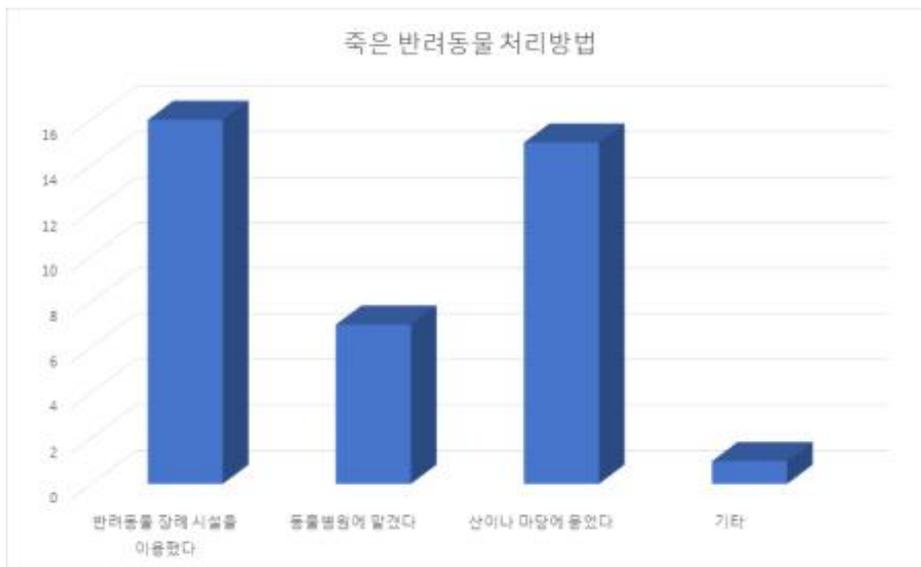
□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층동경험을 확인한 결과 없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01명(67.8%), 있었다가 48명(32.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로는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 졌을 때가 18명(2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가 16명(19.3%),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가 13명(15.7%),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가 12명(14.5%),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가 11명(13.3%), 이사 갈 때가 4명(4.8%),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줄기가 힘들어져서가 2명(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도 7명(8.4%)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 졌을 때와 건강상 돌보기 힘들어 졌을 때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층동경험과 이유(다중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층동경험	없었다	101	67.8
	있었다	48	32.2

	총계	149	100.0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은 이유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16	19.3
	이사 갈 때	4	4.8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11	13.3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	13	15.7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12	14.5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 졌을 때	18	21.7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주기가 힘들어져서	2	2.4
	기타	7	8.4
	총계	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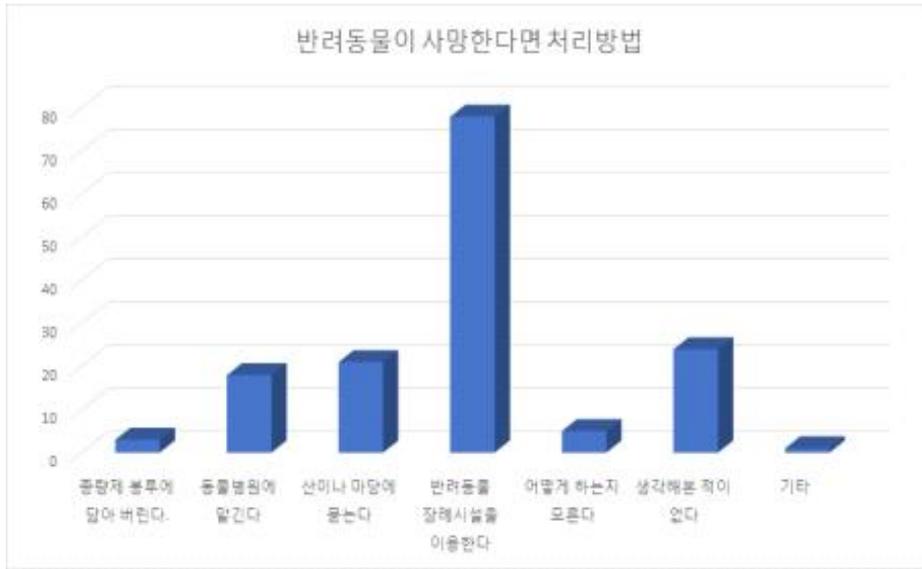
13)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 및 죽은 반려동물 처리 방법



□ 지난 5년간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을 확인한 결과 없었다가 41명(54.7%), 있었다가 34명(45.3%)으로 나타났다. 있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 죽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했다가 16명(4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산이나 마당에 묻었다가 15명(38.5%), 동물병원에 맡겼다가 7명(17.9%), 기타가 1명(2.6%)의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반려동물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어본 결과,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이용한다가 78명(5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가 24명(16.0%), 산이나 마당에 묻는다가 21명(14.0%), 동물병원에 맡긴다가 18명

(12.0%),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가 5명(3.3%),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가 3명(2.0%), 기타로 구청에 신고한다가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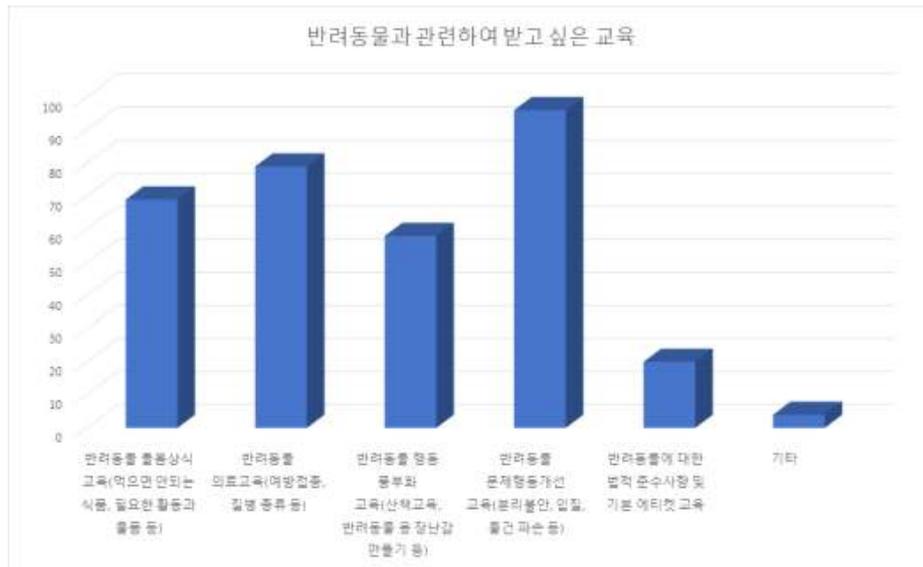


〈표〉 지난 5년간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지난 5년간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	없었다	41	54.7
	있었다	35	24.0
	총계	146	100.0
죽은 반려동물 처리 방법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했다	16	41.0
	동물병원에 맡겼다	7	17.9
	산이나 마당에 묻었다	15	38.5
	기타	1	2.6
	총계	39	100.0
반려동물이 사망한다면 처리방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3	2.0
	동물병원에 맡긴다	18	12.0
	산이나 마당에 묻는다	21	14.0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이용한다	78	52.0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	5	3.3
	생각해본 적이 없다	24	16.0
	기타	1	0.7
	총계	150	100.0

14)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 및 지원

(1)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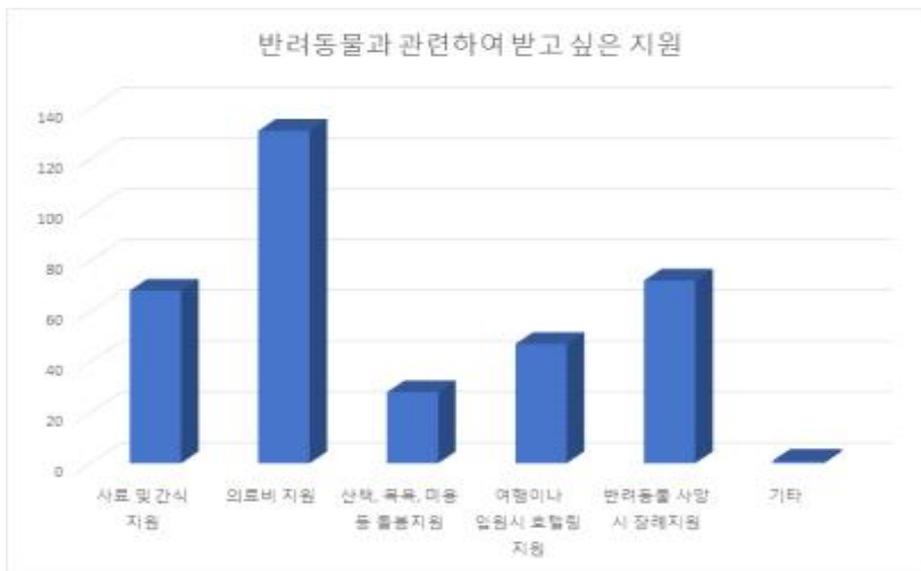


□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을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 문제행동 개선 교육(분리불안, 입질, 물건 파손 등)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96명(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반려동물 의료교육(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이 79명(24.2%)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서는 반려동물 돌봄상식 교육(먹으면 안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69명(21.2%), 반려동물 행동풍부화 교육(산책교육, 반려동물용 장난감 만들기 등)이 58명(17.8%),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이 20명(6.1%), 기타교육이 4명(1.2%)의 비율로 나타났다. 기타 교육에 관한 의견으로는 배변교육과 식변증 해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다중응답)

구분		N	퍼센트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	반려동물 돌봄상식 교육 (먹으면 안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	69	21.2
	반려동물 의료교육(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	79	24.2
	반려동물 행동 풍부화 교육 (산책교육, 반려동물 용 장난감 만들기 등)	58	17.8
	반려동물 문제행동개선 교육 (분리불안, 입질, 물건 파손 등)	96	29.4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20	6.1
	기타	4	1.2
총계		326	100.0

(2)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



□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비 지원이 131명(3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는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지원이 72명(20.7%), 사료 및 간식 지원 68명(19.6%), 여행이나 입원시 호텔링 지원 47명(13.5%), 산책, 목욕, 미용 등 돌봄지원 28명(8.1%), 기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다중응답)

구분		N	퍼센트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	사료 및 간식 지원	68	19.6
	의료비 지원	131	37.8
	산책, 목욕, 미용 등 돌봄지원	28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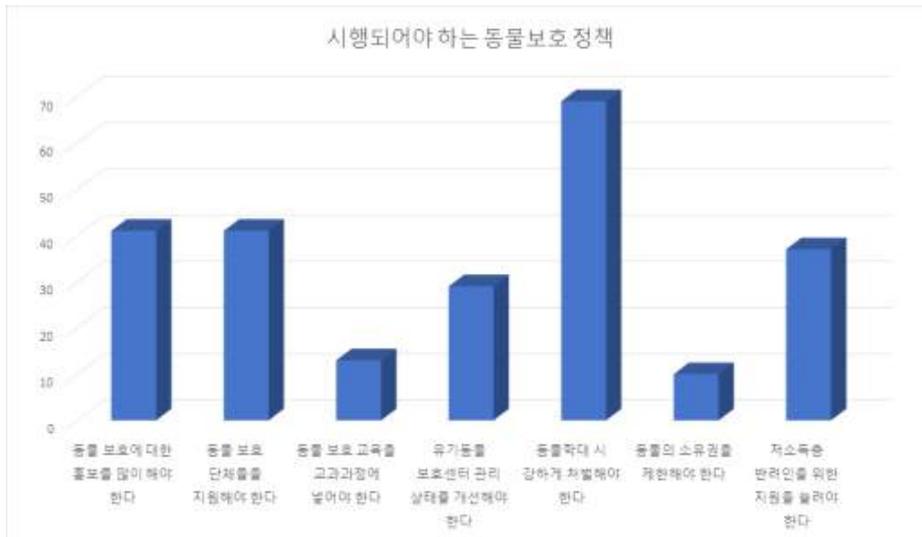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47	13.5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지원	72	20.7
	기타	1	0.3
총계		347	100.0

15)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및 내용

(1)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및 정책

□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가 127명(8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 20명(13.3%)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2명(1.3%), 잘 모르겠다는 1명(0.7%)의 비율을 보였다.

□ 시행되어야 하는 동물보호 정책의 내용으로는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69명(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동물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각각 41명(17.1%)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저소득층 반려인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37명(15.4%),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29명(12.1%), 동물보호 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는 13명(5.4%),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10명(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구분	빈도	퍼센트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매우 필요하다	127 84.7
	어느 정도 필요하다	20 13.3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별로 필요하지 않다	2	1.3
	잘 모르겠다	1	0.7
	총계	150	100.0
시행되어야 하는 동물보호 정책	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41	17.1
	동물 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41	17.1
	동물 보호 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13	5.4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29	12.1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69	28.8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	10	4.2
	저소득층 반려인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37	15.4
	총계	240	100.0

(2)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 바라는 점

□ 우리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바라는 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배변문제 개선에 관한 의견이 8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반려동물 놀이터 증설이 4명으로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길고양이 인식개선, 길고양이 보호 미흡, 반려동물 시설 부족, 방치되는 개의 울부짖음과 소유권 제한 필요함, 큰개의 입막음 문제와 동물과의 싸움 시 상해 분쟁문제가 각각 2명으로 문제에 바라는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길고양이를 위한 쾃맘지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길고양이 번식 및 상태 문제, 떠돌이 개들의 관리 문제, 길고양이 중성화 문제, 떠돌이 개 및 길고양이의 지정된 급식시설 마련 필요, 시체 처리를 위한 방안(처리장소 마련 등),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문제,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 저소득층 반려인들을 위한 지원 등과 같은 의견도 나타났다.

<표>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 바라는 점

구분		빈도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 바라는 점	반려동물 놀이터 증설	4
	반려동물 배변문제 개선	8
	길고양이 인식개선	2
	길고양이를 위한 쾃맘지원	1
	동물학대 처벌 강화	1
	길고양이 번식 및 상태 문제	1
	길고양이 보호 미흡	2
	떠돌이 개들의 관리 문제	1
	길고양이 중성화 문제	1
	떠돌이 개, 길고양이의 지정된 급식시설 마련 필요	1
	로드킬 예방 문제	1
	반려동물 시설 부족	2
	방치되는 개의 울부짖음, 소유권 제한 필요함	2
	시체 처리를 위한 방안(처리장소 마련 등)	1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문제	1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	1
	저소득층 반려인들을 위한 지원	1
	큰개의 입막음 문제, 동물과의 싸움 시 상해 분쟁문제	2
	총계	33

(3)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

□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동물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법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1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집분양, 동행 출입시설 증설, 운동공간, 부재 시 돌봄서비스)하다는 의견도 8명으로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교육 지원(입양시 필수교육 등)도 6명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저소득층 반려인 지원과 동물관련 예산 지원확대 지원에 관한 의견도 각각 4명씩 이야기를 해주었다. 또한,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촉진, 동물보호센터 개선,

동물을 가족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인식개선 필요, 예방접종 지원, 유기견 보호서 열악한 환경 개선, 의료보험(동물) 필요, 중성화 수술 지원 및 관리체계 보완 및 확대 필요에 관한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

구분	빈도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촉진	1
	저소득층 반려인 지원	4
	동물관련 예산 지원확대	4
	동물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법 강화 등)	11
	동물에 대한 교육 지원(입양 시 필수교육 등)	6
	동물보호센터 개선	1
	동물을 가족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인식개선 필요	2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집분양, 동행 출입시설 증설, 운동공간, 부재 시 돌봄서비스)	8
	예방접종 지원	1
	유기견 보호서 열악한 환경 개선	1
	의료보험(동물) 필요	1
	중성화수술 지원 및 관리체계 보완, 확대 필요	3
	더 많은 사업 지원 필요	4
	총계	47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1) 동물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한 교차분석

□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등록제 알게 된 경로							x ²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동물병원을 통해	인터넷(카페/블로그)를 통해	가족친척/친구/지인을 통해	신문/잡지를 통해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	기타	
성별	여성	30.8	15.4	26.0	16.3	2.9	1.9	6.7	2.038
	남성	47.1	17.6	14.7	8.8	2.9	2.9	5.9	
주택형태	단독주택	46.7	13.3	13.3	13.3	0.0	0.0	13.3	9.615
	아파트	40.0	20.0	18.3	10.0	3.3	1.7	6.7	
	연립/빌라/다세대주택	27.4	12.9	30.6	17.7	3.2	3.2	4.8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33.3	14.3	14.3	21.4	2.4	0.0	14.3	30.489
	1세대 세대(부부)	50.0	8.3	33.3	0.0	0.0	8.3	0.0	
	2세대	34.3	17.1	27.1	14.3	2.9	1.4	2.9	
	3세대	33.3	16.7	0.0	16.7	0.0	16.7	16.7	
	기타	28.6	28.6	28.6	0.0	14.3	0.0	0.0	
연령대	10대 이하	35.3	5.9	23.5	17.6	5.9	5.9	5.9	37.979
	20대	18.2	18.2	31.8	22.7	4.5	0.0	4.5	
	30대	31.6	5.3	31.6	5.3	10.5	10.5	5.3	
	40대	50.0	12.5	25.0	8.3	0.0	0.0	4.2	
	50대	45.0	25.8	9.7	16.1	0.0	0.0	3.2	

구분		등록계 알게 된 경로							X ²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동발병원을 통해	인터넷(카페/블로그)을 통해	가족/친척/친구/지인을 통해	신문/잡지를 통해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	기타	
		2							
	60대 이상	21.7	17.4	26.1	17.4	0.0	0.0	17.4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30.6	22.2	16.7	16.7	0.0	0.0	13.9	24339
	100~150만원 미만	36.7	16.7	26.7	3.3	10.0	3.3	3.3	
	150~200만원 미만	35.0	15.0	20.0	10.0	5.0	10.0	5.0	
	200만원 이상	34.6	11.5	19.2	30.8	0.0	0.0	3.8	
거주지역	동부	40.0	20.0	26.7	6.7	3.3	0.0	3.3	24915
	서부	28.6	16.7	23.8	14.3	2.4	7.1	7.1	
	남부	30.0	0.0	35.0	15.0	0.0	0.0	20.0	
	북부	39.1	19.6	15.2	19.6	4.3	0.0	2.2	

2) 반려견 산책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견 산책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반려견 산책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견 산책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견 산책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산책				x ²
		매일	일주일 1회	일주일 2회	일주일 3회	
성별	여성	43.8	44.8	8.3	3.1	2.038
	남성	44.1	41.2	5.9	8.8	
주택 형태	단독주택	25.0	50.0	16.7	8.3	4.975
	아파트	45.9	45.9	3.3	4.9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46.4	41.1	8.9	3.6	
가구 형태	1인세대(혼자 거주)	46.3	39.0	7.3	7.3	14.524
	1세대 세대(부부)	66.7	16.7	16.7	0.0	
	2세대	34.4	54.7	7.8	3.1	
	3세대	71.4	28.6	0.0	0.0	
	기타	50.0	33.3	0.0	16.7	
연령대	10대 이하	56.3	37.5	0.0	6.3	19.169
	20대	20.8	66.7	12.5	0.0	
	30대	50.0	43.8	0.0	6.3	
	40대	33.3	38.1	19.0	9.5	
	50대	42.9	46.4	7.1	3.6	
	60대 이상	60.9	30.4	4.3	4.3	
소득 구분	100만원 미만	51.4	32.4	8.1	8.1	10.023
	100~150만원 미만	34.6	61.5	0.0	3.8	
	150~200만원 미만	46.7	53.3	0.0	0.0	
	200만원 이상	42.3	42.3	11.5	3.8	
거주 지역	동부	37.0	40.7	14.8	7.4	8.586
	서부	50.0	42.1	7.9	0.0	
	남부	38.9	55.6	5.6	0.0	
	북부	44.7	42.6	4.3	8.5	

3) 반려동물 지출비용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 지출 비용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반려동물 지출비용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 지출비용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지출비용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반려동물 지출비용					x ²
		30,000원 미만	30,000 ~50,000원 미만	50,000 ~100,000원 미만	100,000 ~200,000원 미만	200,000원 이상	
성별	여성	8.4	9.3	45.8	27.1	9.3	23.642
	남성	10.8	10.8	37.8	29.7	10.8	
주택형태	단독주택	5.9	11.8	35.3	23.5	23.5	9.531
	아파트	13.3	13.3	43.3	25.0	5.0	
	연립/빌라/다세대주택	6.1	6.1	45.5	31.8	10.6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15.6	13.3	37.8	26.7	6.7	.809
	1세대세대(부부)	0.0	9.1	45.5	27.3	18.2	
	2세대	6.8	6.8	48.6	27.0	10.8	
	3세대	0.0	14.3	42.9	42.9	0.0	
	기타	16.7	16.7	16.7	33.3	16.7	
연령대	10대 이하	0.0	16.7	50.0	27.8	5.6	23.642
	20대	0.0	8.0	52.0	28.0	12.0	
	30대	5.0	5.0	45.0	30.0	15.0	
연령대	40대	12.5	12.5	33.3	20.8	20.8	23.642
	50대	22.6	3.2	45.2	22.6	6.5	
	60대 이상	8.3	16.7	41.7	33.3	0.0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15.4	10.3	38.5	30.8	5.1	8.981
	100~150만원 미만	10.3	6.9	44.8	27.6	10.3	
	150~200만원 미만	10.0	0.0	60.0	15.0	15.0	
	200만원	3.2	9.7	45.2	32.3	9.7	

구분	반려동물 지출비용					x ²
	30,000원 미만	30,000 ~50,000원 미만	50,000 ~100,000원 미만	100,000 ~200,000원 미만	200,000원 이상	
거주지역	이상					
	동부	13.3	6.7	33.3	23.3	23.3
	서부	9.1	11.4	50.0	27.3	2.3
	남부	9.5	19.0	28.6	42.9	0.0
	북부	6.1	6.1	51.0	24.5	12.2

4) 동물병원 경험 및 예방접종에 관한 교차분석

(1)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동물병원 경험		x ²	
	있었다	없었다		
성별	여성	82.6	17.4	3.206
	남성	76.3	23.7	
주택형태	단독주택	81.3	18.8	3.064
	아파트	87.1	12.9	
	연립/빌라/다세대주택	75.0	25.0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86.4	13.6	3.542
	1세대 세대(부부)	75.0	25.0	
	2세대	76.6	23.4	
	3세대	100.0	0.0	
	기타	85.7	14.3	
연령대	10대 이하	83.3	16.7	8.594*
	20대	96.2	3.8	
	30대	65.0	35.0	

구분		동물병원 경험		
		있었다	없었다	χ^2
	40대	75.0	25.0	
	50대	84.8	15.2	
	60대 이상	75.0	25.0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82.1	17.9	2.636
	100~150만원 미만	89.7	10.3	
	150~200만원 미만	75.0	25.0	
	200만원 이상	75.0	25.0	
거주지역	동부	76.7	23.3	1.952
	서부	77.8	22.2	
	남부	90.5	9.5	
	북부	82.4	17.6	

*p < .05

(2)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견 종합백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주택형태에 따라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하게 나타나($\chi^2 = 13.101$,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반려견종합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뭘지 모른다	
성별	여성	7.8	56.7	32.2	3.3	5.277
	남성	3.0	78.8	15.2	3.0	
주택형태	단독주택	25.0	66.7	8.3	0.0	13.101*
	아파트	5.1	61.0	32.2	1.7	
	연립/빌라/다세대주택	2.0	64.7	27.5	5.9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7.3	63.4	26.8	2.4	7.049
	1세대 세대(부부)	0.0	66.7	33.3	0.0	
	2세대	7.0	61.4	26.3	5.3	
	3세대	0.0	85.7	14.3	0.0	
	기타	16.7	33.3	50.0	0.0	
연령대	10대 이하	25.0	43.8	25.0	6.3	21.634
	20대	8.7	52.2	39.1	0.0	
	30대	0.0	61.5	38.5	0.0	
	40대	5.0	70.0	20.0	5.0	
	50대	0.0	80.8	19.2	0.0	
	60대 이상	4.3	56.5	30.4	8.7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8.1	56.8	29.7	5.4	5.547
	100~150만원 미만	4.0	76.0	20.0	0.0	
	150~200만원 미만	0.0	71.4	21.4	7.1	
	200만원 이상	8.3	54.2	33.3	4.2	
거주지역	동부	4.2	62.5	29.2	4.2	6.886
	서부	8.1	70.3	21.6	0.0	
	남부	0.0	64.7	35.3	0.0	
	북부	8.9	55.6	28.9	6.7	

(3)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 광견병 백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광견병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견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광견병 백신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하게 나타나($\chi^2 = 10.567$,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광견병 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뭘지 모른다	
성별	여성	10.0	33.3	50.0	6.7	10.567*
	남성	9.7	64.5	19.4	6.5	
주택형태	단독주택	9.1	45.5	36.4	9.1	3.427
	아파트	6.9	46.6	43.1	3.4	
	연립/빌라/다세대주택	11.8	35.3	43.1	9.8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12.5	32.5	50.0	5.0	7.049
	1세대 세대 (부부)	0.0	50.0	50.0	0.0	
	2세대	8.9	44.6	37.5	8.9	
	3세대	14.3	42.9	28.6	14.3	
	기타	16.7	50.0	33.3	0.0	
연령대	10대 이하	25.0	25.0	43.8	6.3	18.612
	20대	17.4	21.7	47.8	13.0	
	30대	0.0	46.2	46.2	7.7	
	40대	10.0	60.0	25.0	5.0	
	50대	4.2	54.2	37.5	4.2	
	60대 이상	4.3	34.8	56.5	4.3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11.1	36.1	47.2	5.6	15.217
	100~150만원 미만	0.0	50.0	42.3	7.7	

구분		광견병 백신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뭘지 모른다	x ²
	150~200만원 미만	0.0	57.1	28.6	14.3	
	200만원 이상	27.3	27.3	40.9	4.5	
거주지역	동부	8.3	45.8	37.5	8.3	4.009
	서부	10.8	45.9	37.8	5.4	
	남부	0.0	43.8	50.0	6.3	
	북부	13.6	34.1	45.5	6.8	

*p< .05

(4)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교차분석

□ 심장사상충 예방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심장사상충 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연령대에 따라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하게 나타났고(x² =36.984, p<.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심장사상충 예방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한달에 한번	뭘지 모른다	
성별	여성	7.7	14.3	7.7	64.8	5.5	8.308
	남성	12.9	32.3	12.9	38.7	3.2	
주택형태	단독주택	16.7	25.0	8.3	41.7	8.3	4.725
	아파트	5.3	15.8	8.8	66.7	3.5	
	연립/빌라/다세대주택	11.5	21.2	7.7	53.8	5.8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13.2	15.8	2.6	60.5	7.9	14.709
	1세대 세대(부부)	0.0	41.7	0.0	58.3	0.0	
	2세대	8.5	18.6	13.6	54.2	5.1	
	3세대	0.0	14.3	14.3	71.4	0.0	
	기타	16.7	0.0	16.7	66.7	0.0	

구분		심장사상충 예방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한달에 한번	뭘지 모른다	
연령대	10대 이하	31.3	25.0	0.0	43.8	0.0	36.984*
	20대	0.0	8.3	8.3	66.7	16.7	
	30대	0.0	28.6	7.1	64.3	0.0	
	40대	5.0	35.0	20.0	35.0	5.0	
	50대	8.0	20.0	8.0	64.0	0.0	
	60대 이상	14.3	4.8	9.5	66.7	4.8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20.6	17.6	5.9	52.9	2.9	24.984
	100~150만원 미만	4.0	12.0	12.0	64.0	8.0	
	150~200만원 미만	0.0	28.6	7.1	64.3	0.0	
	200만원 이상	8.0	16.0	12.0	64.0	0.0	
거주지역	동부	8.0	32.0	4.0	48.0	8.0	20.608
	서부	8.3	13.9	5.6	63.9	8.3	
	남부	0.0	40.0	0.0	60.0	0.0	
	북부	13.0	8.7	17.4	58.7	2.2	

*p< .05

(5)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묘 종합백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에 따라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반려묘 종합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성별	여성	9.1	63.6	27.3	.559
	남성	14.3	71.4	14.3	
주택형태	단독주택	16.7	83.3	0.0	6.897
	아파트	0.0	100.0	0.0	

구분		반려묘 종합백신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x ²
	연립/빌라/다세대주택	11.1	50.0	38.9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16.7	66.7	16.7	1.079
	1세대 세대(부부)	9.5	61.9	28.6	
	2세대	0.0	100.0	0.0	
	3세대	33.3	66.7	0.0	
	기타	0.0	66.7	33.3	
연령대	10대 이하	33.3	66.7	0.0	13.491
	20대	0.0	66.7	33.3	
	30대	0.0	42.9	57.1	
	40대	0.0	66.7	33.3	
	50대	28.6	71.4	0.0	
	60대 이상	0.0	100.0	0.0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25.0	75.0	0.0	7.300
	100~150만원 미만	0.0	80.0	20.0	
	150~200만원 미만	0.0	62.5	37.5	
	200만원 이상	0.0	66.7	33.3	

(6)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중 성별과 주택 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에 따라 반려묘 광견병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소득구분에 따라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하게 나타났고(x² =17.358, p<.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반려묘 광견병 백신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될지 모른다	x ²
성별	여성	23.8	23.8	28.6	23.8	1.365
	남성	28.6	42.9	14.3	14.3	

구분		반려묘 광견병 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뭔지 모른다	
주택형태	단독주택	50.0	16.7	16.7	16.7	4.626
	아파트	0.0	40.0	20.0	40.0	
	연립/빌라/다세대주택	23.5	29.4	29.4	17.6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50.0	16.7	0.0	33.3	5.076
	1세대 세대(부부)	19.0	33.3	33.3	14.3	
	2세대	33.3	66.7	0.0	0.0	
	3세대	0.0	0.0	33.3	66.7	
	기타	0.0	42.9	28.6	28.6	
연령대	10대 이하	33.3	66.7	0.0	0.0	14.844
	20대	0.0	0.0	33.3	66.7	
	30대	0.0	42.9	28.6	28.6	
	40대	33.3	16.7	33.3	16.7	
	50대	40.0	20.0	40.0	0.0	
	60대 이상	50.0	25.0	0.0	25.0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75.0	25.0	0.0	0.0	17.358*
	100~150만원 미만	0.0	0.0	25.0	75.0	
	150~200만원 미만	0.0	37.5	37.5	25.0	
	200만원 이상	22.2	33.3	33.3	11.1	

5)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가구 형태에 따라 키우게 된 이유 관하여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하게 나타났고(x² =66.008, p<.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키우게 된 이유(다중응답)									x ²
		아이들 정서 상의 교육 목적으로	동물을 좋아해서	외로워서	가족 분위기를 위해서	지인을 통해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유기 동물이 불쌍해서	타인(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권유나 부탁으로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기타	
성별	여성	11.3	30.5	11.3	8.9	15.0	9.4	5.2	4.7	3.8	8.814

구분		키우게 된 이유(다중응답)									x ²
		아이들 정서 상의 교육 목적 으로	동물을 좋아 해서	외로 워서	가족 분위 기 을 위 해서	지인 을 통 해 유 연 하 기 회 가 되 어서	유기 동물 이 불 상 해 서	타인 (동 거 인 가 족 지 인 등) 의 권 유 나 부 탁 으로	전에 키 우 던 동 물 을 잊 지 못 해 서	기타	
	남성	12.0	34.7	10.7	10.7	16.0	4.0	2.7	9.3	0.0	
주택형태	단독주택	12.9	29.0	9.7	12.9	19.4	9.7	0.0	6.5	0.0	7.531
	아파트	9.9	29.8	12.4	9.9	15.7	6.6	6.6	6.6	2.5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12.8	33.8	9.8	8.3	13.5	9.0	3.8	5.3	3.8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1.1	30.7	22.7	3.4	17.0	6.8	6.8	6.8	4.5	66.008 ***
	1세대 세대 (부부)	0.0	45.0	10.0	10.0	15.0	5.0	0.0	15.0	0.0	
	2세대	16.9	29.9	5.2	10.4	16.9	10.4	3.9	5.2	1.3	
	3세대	26.7	26.7	6.7	26.7	0.0	0.0	6.7	0.0	6.7	
	기타	10.0	50.0	10.0	20.0	0.0	0.0	0.0	0.0	10.0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0.0	23.1	38.5	0.0	15.4	0.0	7.7	0.0	15.4	8.753
	100~150만원 미만	3.2	27.4	19.4	6.5	16.1	6.5	8.1	9.7	3.2	
	150~200만원 미만	13.6	33.3	10.6	9.1	16.7	10.6	1.5	3.0	1.5	
	200만원이상	22.5	40.0	2.5	15.0	5.0	7.5	2.5	2.5	2.5	
연령대	10대 이하	11.1	37.0	3.7	7.4	14.8	11.1	3.7	7.4	3.7	64.533
	20대	18.8	25.0	12.5	6.3	12.5	6.3	6.3	6.3	6.3	
	30대	5.8	44.2	7.7	15.4	13.5	3.8	3.8	1.9	3.8	
	40대	12.5	30.0	10.0	10.0	12.5	12.5	2.5	7.5	2.5	
	50대	18.2	27.3	9.1	6.8	18.2	11.4	4.5	4.5	0.0	
	60대 이상	11.5	29.5	13.1	8.2	16.4	8.2	3.3	9.8	0.0	
키운기간대	1년미만	33.3	33.3	0.0	33.3	0.0	0.0	0.0	0.0	0.0	32.689
	1~2년미만	25.0	16.7	8.3	8.3	25.0	0.0	0.0	16.7	0.0	
	2~3년미만	11.1	44.4	5.6	5.6	16.7	11.1	0.0	5.6	0.0	
	3~5년미만	23.1	23.1	7.7	7.7	7.7	7.7	7.7	15.4	0.0	
	5~10년미만	15.8	31.6	21.1	10.5	0.0	10.5	5.3	5.3	0.0	
	10년이상	7.3	39.0	2.4	4.9	12.2	12.2	7.3	7.3	7.3	

*p< .05, **p< .01, ***p< .001

6)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의 급식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반려동물의 급식(다중응답)			x ²
		건,습사료	잔반	기타	
성별	여성	96.3	2.2	1.5	2.477
	남성	95.2	0.0	4.8	
주택형태	단독주택	100.0	0.0	0.0	1.540
	아파트	94.5	2.7	2.7	
	연립/빌라/다세대주택	96.3	1.2	2.4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92.9	1.8	5.4	10.200
	1세대 세대(부부)	100.0	0.0	0.0	
	2세대	97.9	2.1	0.0	
	3세대	100.0	0.0	0.0	
	기타	85.7	0.0	14.3	
소득구간	100만원 미만	100.0	0.0	0.0	19.477
	100~150만원 미만	86.8	2.6	10.5	
	150~200만원 미만	97.3	2.7	0.0	
	200만원 이상	100.0	0.0	0.0	
연령대	10대 이하	93.3	0.0	6.7	12.312
	20대	100.0	0.0	0.0	
	30대	100.0	0.0	0.0	
	40대	88.9	3.7	7.4	
	50대	100.0	0.0	0.0	

구분		반려동물의 급식(다중응답)			
		견, 습사료	잔반	기타	χ^2
	60대 이상	94.4	2.8	2.8	
키운기간대	1년미만	100.0	0.0	0.0	9.245
	1~2년미만	100.0	0.0	0.0	
	2~3년미만	100.0	0.0	0.0	
	3~5년미만	75.0	12.5	12.5	
	5~10년미만	100.0	0.0	0.0	
	10년이상	96.8	3.2	0.0	

*p< .05, **p< .01, ***p< .001

7) 동물등록에 관한 교차분석

□ 동물등록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동물등록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동물등록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동물등록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동물등록		
		등록	미등록	χ^2
성별	여성	41.7	58.3	0.845
	남성	50.0	50.0	
주택형태	단독주택	31.6	68.4	1.788
	아파트	48.6	51.4	
	연립/빌라/다세대주택	43.4	56.6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36.0	64.0	6.426
	1세대 세대(부부)	61.5	38.5	
	2세대	42.2	57.8	
	3세대	71.4	28.6	
	기타	66.7	33.3	
소득구간	100만원 미만	28.6	71.4	3.605

구분		동물등록		
		등록	미등록	χ^2
	100~150만원 미만	42.9	57.1	
	150~200만원 미만	38.9	61.1	
	200만원 이상	43.5	56.5	
연령대	10대 이하	60.0	40.0	10.081
	20대	28.6	71.4	
	30대	39.4	60.6	
	40대	62.5	37.5	
	50대	26.9	73.1	
	60대 이상	42.4	57.6	
키운기간 대	1년 미만	33.3	66.7	6.692
	1~2년 미만	28.6	71.4	
	2~3년 미만	33.3	66.7	
	3~5년 미만	85.7	14.3	
	5~10년 미만	50.0	50.0	

8) 동물병원 방문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 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동물병원 방문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동물병원 방문(다중응답)						χ^2
		예방 접종	정기 접진	질병 치료	상행 치료	미용 및 목욕	기타	
성별	여성	40.1	7.0	23.2	2.8	15.5	11.3	3.116
	남성	47.9	4.2	16.7	6.3	12.5	12.5	
주택 형태	단독주택	31.6	10.5	31.6	5.3	5.3	15.8	11.088
	아파트	48.1	1.3	17.7	5.1	16.5	11.4	

구분		동물병원 방문(다중응답)						x ²
		예방접종	정기검진	질병치료	상행치료	미용 및 목욕	기타	
	연립/빌라/다세대주택	39.6	9.9	23.1	2.2	14.3	11.0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35.3	11.8	17.6	5.9	11.8	17.6	15.754
	1세대 세대(부부)	39.2	7.2	25.8	5.2	11.3	11.3	
	2세대	53.8	7.7	0.0	7.7	23.1	7.7	
	3세대	62.5	0.0	25.0	0.0	12.5	0.0	
	기타	37.5	0.0	25.0	0.0	0.0	37.5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48.8	2.4	9.8	2.4	29.3	7.3	39.843
	100~150만원미만	47.2	2.8	27.8	5.6	5.6	11.1	
	150~200만원미만	44.4	3.7	22.2	3.7	11.1	14.8	
	200만원이상	27.0	18.9	24.3	5.4	16.2	8.1	
연령대	10대 이하	57.1	0.0	28.6	0.0	0.0	14.3	38.378
	20대	44.4	11.1	16.7	2.8	13.9	11.1	
	30대	46.4	10.7	21.4	0.0	10.7	10.7	
연령대	40대	38.7	9.7	19.4	9.7	9.7	12.9	38.378
	50대	43.2	2.3	27.3	2.3	18.2	6.8	
	60대 이상	36.4	9.1	18.2	0.0	36.4	0.0	
키운기간대	1년미만	40.0	10.0	20.0	0.0	30.0	0.0	16.759
	1~2년미만	41.7	8.3	25.0	0.0	16.7	8.3	
	2~3년미만	42.9	14.3	28.6	0.0	14.3	0.0	
	3~5년미만	15.4	15.4	23.1	7.7	7.7	30.8	
	5~10년미만	37.1	11.4	25.7	2.9	14.3	8.6	

9)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가구형태에 따라 반려동물 키우는데 어려운 점이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하게 나타났고 ($x^2 = 51.832$,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교차분석

* $p < .05$, ** $p < .01$, *** $p < .001$

10)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어려운 점(다중응답)										x ²
		이웃의 혐의나 갈등	가족의 반대	반려견이 터미널을 함께 수는 시설 부족	여행 등의 장외출의 어려움	내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대처가 힘들다	비용이 많다	돌보는데 손이 많이 간다	교육(배변훈련)이 어렵다	위생상의 문제	기타	
성별	여성	13.2	2.1	10.7	21.1	9.5	16.5	9.1	12.8	2.9	2.1	11.156
	남성	4.9	2.5	13.6	19.8	6.2	19.8	12.3	9.9	8.6	2.5	
주택형태	단독주택	11.9	2.4	4.8	26.2	4.8	21.4	7.1	14.3	4.8	2.4	9.832
	아파트	9.7	1.5	9.7	18.7	11.2	17.2	11.2	13.4	4.5	3.0	
	연립/빌라/다세대주택	12.4	2.8	14.5	21.4	7.6	16.6	9.7	10.3	3.4	1.4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10.1	1.0	6.1	18.2	10.1	17.2	14.1	15.2	7.1	1.0	51.832*
	1세대 세대(부부)	9.1	4.5	31.8	31.8	4.5	0.0	0.0	18.2	0.0	0.0	
	2세대	13.1	1.8	11.9	21.4	7.7	19.6	7.7	10.7	3.6	2.4	
	3세대	0.0	0.0	6.3	25.0	18.8	18.8	18.8	6.3	0.0	6.3	
	기타	13.3	13.3	20.0	6.7	6.7	20.0	6.7	6.7	0.0	6.7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0.0	0.0	0.0	12.5	6.3	31.3	37.5	12.5	0.0	0.0	41.909
	100~150만원미만	12.5	1.4	13.9	11.1	11.1	18.1	8.3	15.3	6.9	1.4	
	150~200만원미만	13.9	2.8	9.7	23.6	8.3	16.7	8.3	8.3	5.6	2.8	
	200만원이상	8.2	2.0	10.2	24.5	8.2	18.4	14.3	12.2	2.0	0.0	
연령대	10대 이하	14.3	0.0	17.9	17.9	7.1	14.3	7.1	10.7	7.1	3.6	90.976
	20대	5.9	0.0	17.6	11.8	5.9	35.3	11.8	11.8	0.0	0.0	
	30대	7.4	1.9	14.8	29.6	9.3	13.0	7.4	14.8	1.9	0.0	
	40대	13.3	4.4	17.8	17.8	11.1	17.8	8.9	6.7	2.2	0.0	
	50대	8.5	6.4	8.5	19.1	2.1	12.8	10.6	17.0	6.4	8.5	
	60대 이상	21.4	0.0	8.6	20.0	12.9	15.7	10.0	8.6	1.4	1.4	
키운기간대	1년미만	0.0	0.0	0.0	25.0	25.0	0.0	0.0	0.0	25.0	25.0	47.735
	1~2년미만	16.7	8.3	0.0	25.0	8.3	16.7	8.3	8.3	0.0	8.3	
	2~3년미만	9.5	0.0	19.0	28.6	9.5	9.5	4.8	14.3	4.8	0.0	
	3~5년미만	0.0	0.0	0.0	25.0	16.7	8.3	16.7	8.3	16.7	8.3	
	5~10년미만	12.0	0.0	8.0	20.0	8.0	28.0	12.0	8.0	4.0	0.0	
	10년이상	8.5	0.0	6.4	19.1	6.4	27.7	10.6	14.9	6.4	0.0	

□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받고 싶은 교육(다중응답)						x ²
		돌봄 상식 교육	의료 교육	행동의 풍부화 교육	문제 행동 개선 교육	법적 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기타	
성별	여성	22.0	24.8	17.1	28.5	6.5	1.2	1.273
	남성	18.8	22.5	20.0	32.5	5.0	1.3	
주택형태	단독주택	17.5	22.5	15.0	32.5	10.0	2.5	6.928
	아파트	25.7	22.8	18.4	25.7	6.6	.7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17.7	25.9	18.4	32.7	4.8	.7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21.8	22.8	18.8	30.7	5.0	1.0	8.942
	1세대 세대(부부)	21.4	21.4	21.4	32.1	3.6	0.0	
	2세대	18.9	26.2	15.9	30.5	6.7	1.8	
	3세대	33.3	13.3	20.0	26.7	6.7	0.0	
	기타	29.4	23.5	23.5	11.8	11.8	0.0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23.5	11.8	29.4	23.5	5.9	5.9	21.932
	100~150만 원미만	20.8	19.4	20.8	30.6	8.3	0.0	
소득구간	150~200만 원미만	25.0	23.5	20.6	29.4	1.5	0.0	21.932
	200만원이상	28.6	19.0	11.9	31.0	7.1	2.4	
연령대	10대 이하	16.0	24.0	20.0	40.0	0.0	0.0	33.867
	20대	23.1	15.4	7.7	46.2	7.7	0.0	
	30대	24.6	30.8	18.5	23.1	1.5	1.5	
	40대	17.8	22.2	20.0	31.1	8.9	0.0	
	50대	15.4	21.2	15.4	32.7	11.5	3.8	
	60대 이상	25.7	28.6	10.0	24.3	10.0	1.4	

구분		받고 싶은 교육(다중응답)						x ²
		돌봄 상식 교육	의료 교육	행동 의 충 부 화 교육	문 제 해 결 교육	법 적 수 사 항 및 기 본 에 티 켓 교육	기타	
키운 기간 대	1년미만	33.3	33.3	33.3	0.0	0.0	0.0	14.456
	1~2년 미만	23.1	30.8	7.7	38.5	0.0	0.0	
	2~3년 미만	19.0	28.6	14.3	28.6	9.5	0.0	
	3~5년 미만	12.5	18.8	18.8	31.3	12.5	6.3	
	5~10년 미만	17.4	26.1	26.1	21.7	4.3	4.3	
	10년이 상	20.0	20.0	18.0	38.0	4.0	0.0	

11)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받고 싶은 지원(다중응답)						x ²
		사료 및 간식 지원	의료 비 지원	산책, 의욕, 미용 등 돌 봄 지 원	여행 이나 입 원 시 호 텔 링 지 원	반 려 동 물 사 망 시 장 레 지 원	기타	
성 별	여성	19.1	37.7	7.4	14.8	21.0	0.0	4.719
	남성	21.1	37.8	10.0	10.0	20.0	1.1	
주 택 형 태	단독주택	19.5	31.7	4.9	19.5	22.0	2.4	14.865
	아파트	22.9	37.9	7.2	9.8	22.2	0.0	
	연립/빌라/다 세대주택	16.0	39.3	10.0	16.0	18.7	0.0	
가 구 형 태	1인세대(혼자거주)	21.0	38.1	9.5	11.4	19.0	1.0	7.912
	1세대 세대(부부)	17.4	34.8	8.7	17.4	21.7	0.0	
	2세대	19.2	38.5	7.7	13.7	20.9	0.0	
	3세대	11.8	41.2	11.8	17.6	17.6	0.0	

구분		받고 싶은 지원(다중응답)						x²
		사료 및 간식 지원	의료비 지원	산책, 목욕, 미용 등 돌봄 지원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반려동물 시정 지원	기타	
	기타	29.4	29.4	0.0	11.8	29.4	0.0	
소득 구간	100만원미만	20.0	35.0	15.0	15.0	15.0	0.0	16.324
	100~150만원미만	21.1	38.2	10.5	11.8	18.4	0.0	
	150~200만원미만	19.0	35.4	5.1	13.9	26.6	0.0	
	200만원이상	19.1	42.6	6.4	10.6	21.3	0.0	
연령대	10대 이하	18.5	44.4	7.4	7.4	22.2	0.0	27.554
	20대	11.8	41.2	5.9	23.5	17.6	0.0	
	30대	19.0	36.5	7.9	12.7	23.8	0.0	
	40대	22.4	34.7	12.2	12.2	18.4	0.0	
	50대	17.6	39.2	11.8	13.7	17.6	0.0	
	60대 이상	22.5	39.4	2.8	12.7	22.5	0.0	
키운 기간대	1년미만	33.3	33.3	0.0	0.0	33.3	0.0	10.557
	1~2년미만	14.3	42.9	0.0	21.4	21.4	0.0	
	2~3년미만	5.6	44.4	5.6	22.2	22.2	0.0	
	3~5년미만	21.1	36.8	15.8	10.5	15.8	0.0	
	5~10년미만	14.8	33.3	11.1	22.2	18.5	0.0	
	10년이상	22.0	38.0	8.0	16.0	16.0	0.0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1)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

□ <표>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만족도에 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성별	여성	108	1.07	.354	.122	
	남성	38	1.05	.226		
	전체	146	1.07	.325		
주택형태	단독주택	16	1.06	.250	.410	
	아파트	62	1.10	.393		
	연립/빌라/다세대주택	67	1.04	.272		
	전체	145	1.07	.326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43	1.05	.213	.745	
	1세대세대(부부)	12	1.17	.577		
	2세대	76	1.08	.356		
	3세대	7	1.00	0.000		
	기타	7	1.00	0.000		
	전체	145	1.07	.326		
소득구분	100만원미만	39	1.03	.160	.568	
	100~150만원미만	29	1.07	.371		
	150~200만원미만	21	1.14	.478		
	200만원이상	31	1.10	.396		
	전체	120	1.08	.347		
연령대	10대이하	19	1.05	.229	.274	
	20대	23	1.09	.417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30대	21	1.00	0.000		
	40대	24	1.08	.408		
	50대	32	1.06	.246		
	60대 이상	25	1.04	.200		
	전체	144	1.06	.284		
반려동물 거주기간	1년미만	2	1.00	0.000	.604	
	1~2년미만	7	1.00	0.000		
	2~3년미만	9	1.00	0.000		
	3~5년미만	7	1.00	0.000		
	5~10년미만	11	1.00	0.000		
	10년이상	21	1.14	.478		
	전체	57	1.05	.294		

2) 삶의 변화도에 따른 차이분석

□ <표> 삶의 변화도에 따른 차이분석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삶의 변화도에 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 <표> 삶의 변화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삶의 변화도에 따른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성별	여성	111	4.84	.394	.985	
	남성	39	4.74	.751		
	전체	150	4.81	.510		
주택형태	단독주택	17	4.65	.996	1.013	
	아파트	63	4.83	.383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69	4.84	.441		
	전체	149	4.81	.512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45	4.76	.529	.731	
	1세대 세대(부부)	12	4.92	.289		
	2세대	78	4.81	.560		
	3세대	7	5.00	0.000		
	기타	7	4.86	.378		
	전체	149	4.81	.512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40	4.75	.543	1.063	
	100~150만원미만	30	4.93	.254		
	150~200만원미만	21	4.90	.301		
	200만원 이상	32	4.75	.762		
	전체	123	4.82	.528		
연령대	10대 이하	19	4.63	.597	1.063	
	20대	26	4.81	.402		
	30대	21	4.95	.218		
	40대	24	4.92	.282		
	50대	33	4.76	.751		
	60대 이상	25	4.80	.500		
	전체	148	4.81	.513		
반려동물 거주기간	1년미만	2	5.00	0.000	.095	
	1~2년미만	7	4.86	.378		
	2~3년미만	9	4.89	.333		
	3~5년미만	7	4.86	.378		
	5~10년미만	11	4.91	.302		
	10년이상	22	4.91	.294		
	전체	58	4.90	.307		

3)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차이분석

- <표>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차이분석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 동물정책의 필요성은 주택형태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 ($F=3.009$, $p<.05$)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 검증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파트’ 집단이 ‘단독주택’, ‘연립/빌라/다세대주택’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 동물정책의 필요성은 연령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나타나 ($F=2.961$, $p<.05$)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 검증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0대 이상’, ‘50대’ 집단이 ‘20대’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성별	여성	111	4.24	.523	.225	
	남성	39	4.19	.654		
	전체	150	4.23	.558		
주택형태	단독주택 a	17	4.19	.874	3.009*	b>a,c
	아파트 b	63	4.36	.526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c	69	4.135	.465		
	전체	149	4.238	.556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45	4.340	.553	.342	
	1세대 세대(부부)	12	4.407	.460		
	2세대	78	4.151	.592		
	3세대	7	4.238	.387		
	기타	7	4.222	.425		
	전체	149	4.236	.559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40	4.4056	.56798	1.387	
	100~150 만원미만	30	4.1769	.47346		
	150~200 만원미만	21	4.2381	.43785		
	200만원 이상	32	4.1979	.59249		
	전체	123	4.267	.535		
연령대	10대 이하 a	19	4.222	.523	2.961*	e, f > b
	20대 b	26	4.047	.614		
	30대 c	21	4.242	.440		
	40대 d	24	4.060	.521		
	50대 e	33	4.424	.651		
	60대 이상 f	25	4.429	.436		
	전체	148	4.231	.557		
반려동물 거주기간	1년미만	2	3.722	.392	.504	
	1~2년미 만	7	4.175	.614		
	2~3년미 만	9	4.185	.590		
	3~5년미 만	7	3.984	.481		
	5~10년미 만	11	4.253	.494		
	10년이상	22	4.227	.588		
	전체	58	4.172	.547		

*p< .05, **p< .01, ***p< .001

Ⅲ.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동물등록과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상생복지의 정착을 위해 이용자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귀하의 반려동물의 건강도 지키고 사회에 필요한 동물보호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4월 서울시 동물보호과 • (사)동물권행동 카라

■ 응답자 기초사항

SQ1	동물 보호자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SQ2	동물 보호자 연령	_____년 _____월 생		
SQ3	거주 지역	서울시 ()구 ()동		
SQ4	주택형태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빌라/다세대 주택 () ④ 기타(오피스텔 상가 내 거처 등) ()		
SQ5	가구형태	① 1인 세대(혼자거주) () ② 1세대 세대(부부만 거주) () ③ 2세대 세대(부모자녀 거주) () ④ 3세대 세대(부모자녀손주 거주) () ⑤ 기타 ()		
SQ6	가구 월평균 소득	_____ 만 원	동거가족 수	_____ 명
SQ7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해온 기간	_____ 년		
SQ8	현재 반려동물 외 이전에 반려동물 키운 경험	① 있다 (기간: _____) ② 없다		

Part A. 보호자 및 반려동물 일반사항

A1. 귀하께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개 선택)

- ①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목적으로 (아이가 원해서)
- ② 동물을 좋아해서
- ③ 외로워서
- ④ 가족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 ⑤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
- ⑥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 ⑦ 타인(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권유나 부탁으로
- ⑧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A2. 귀하께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펫샵 등에서 돈을 주고 샀다 ② 가족, 이웃 등 지인을 통해서 받았다
- ③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간접구조) ④ 직접 구조한 동물이다
- ⑤ 기타(_____)

A3. 반려동물의 특성에 체크(√) 또는 기록해 주십시오.

문항	구분 (개) (고양이)	세부사항
종	품종() / 믹스()	
성별/연령	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 연령 ()세	과거 병력 × / ○ () 현재 질병 × / ○ ()
급식	①건-습사료 ②잔반 ③기타()	월비용 ()만원
동물등록	①등록(☞ B3) ②미등록(☞ B4)	내장형 O/X 인식표 O/X
기타특성		

문항	구분 (개) (고양이)	세부사항
종	품종() / 믹스()	
성별/연령	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 연령 ()세	과거 병력 × / ○ () 현재 질병 × / ○ ()
급식	①건-습사료 ②잔반 ③기타()	월비용 ()만원
동물등록	①등록(☞ B3) ②미등록(☞ B4)	내장형 O/X 인식표 O/X
기타특성		

※ 여러 마리가 있는 경우 칸이 부족할 경우 조사원이 적절하게 기록.

Part B. 반려동물 돌봄 사항

B1. 귀하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B2)
- ② 아니오

B2. 귀하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② 동물병원을 통해
- ③ 인터넷(카페/블로그)을 통해 ④ 가족/친척/친구/지인을 통해
- ⑤ 신문/잡지를 통해 ⑥ 애견용품점을 통해
- ⑦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 ⑧ 기타 ()

B3. (동물등록을 한 응답자만) 동물 등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 ② 지원금을 받고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
- ③ 지인의 권고로
- ④ 법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 ⑤ 기타 ()

B4.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응답자만)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사항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 ② 필요가 없어서
- ③ 등록비용이 부담스럽다.
- ④ 동물 등록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 ⑤ 동물 등록 내장 칩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 ⑥ 등록기관이 멀거나 대행기관을 찾기 어렵다.
- ⑦ 절차가 번거롭다.
- ⑧ 시간을 내기 어렵다.
- ⑨ 기타 ()

B5. 지금까지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 ② 꼭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 ③ 중성화 수술은 동물 학대이다. ④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
- ⑤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 ⑥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
- ⑦ 번식 계획이 있다. ⑧ 1마리만 길러 번식의 우려가 없다.
- ⑨ 기타 ()

B6. 반려동물을 위해 한 마리 당 한 달 평균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 만원

B7. (개를 기르는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반려견을 산책(운동) 시키시나요?

- ① 매일
- ② 일주일에 ()회
- ③ 아주 가끔씩. (그 이유는? _____)
- ④ 전혀 안한다. (그 이유는? _____)

B8. (고양이를 기르는 응답자만) 고양이를 위한 아래 물품 중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가지고 계신 모든 항목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고양이 화장실과 모래 ② 고양이용 장난감 1개
- ③ 고양이용 장난감 여러 개 ④ 캣타워 혹은 캣폴
- ⑤ 스크래처 ⑥ 발톱깎이
- ⑦ 하나도 없다 ⑧ 기타 ()

B9.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 항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① 모든 예방접종 종류와 접종시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② 접종 종류와 접종시기를 대체로 알고 있다.
- ③ 접종 종류는 잘 모르나,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접종해주고 있다.
- ④ 접종에 대해 아예 모른다.
- ⑤ 기타 ()

B10. (개를 기르는 응답자들만) 다음은 반려견의 주요 예방 접종 항목입니다. 예방 접종을 해주는 시기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종합백신 - 안 해준다 / 새끼 때 해줬다 / 1년에 한번 / 뭔지 모른다

B17.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혀아니다
책임감이 생겼다					
생활이 활기차졌다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외로움이 감소되었다					
운동량이 증가하였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었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건강이 좋아졌다					

B18. 이외의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B19. 귀하에게 반려동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 ①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 ②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 ③ 사정에 따라 내가 잘 아는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
- ④ 다른데 보내고 싶지만 정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
- ⑤ 내가 잘 모르는 곳이라도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
- ⑥ 버릴 수 있다.
- ⑦ 기타 ()

B20. 반려동물을 그만 키우거나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없었다.
- ② 있었다. (☞B21)

B21. (B20의 ② 항목 응답자만) 어떤 때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까? (최대 3개 선택)

- ①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 ② 이사 갈 때
- ③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 ④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
- ⑤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 ⑥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 ⑦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줄기가 힘들어서
- ⑧ 기타 ()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C2)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C3)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C3)
- ⑤ 잘 모르겠다.

C2. (C1의 ①, ② 응답자만)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동물보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 ② 동물 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 ③ 동물 보호 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 ④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 ⑤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 ⑥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해야한다.
- ⑦ 저소득층 반려인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 ⑧ 기타()

C3.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기탄없이 해주십시오.
()

C4.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와 바라시는 바를 말씀해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협력병원 사업진행 매뉴얼

1. 사업개요

사업명	돌봄 취약지구 대상 반려동물 건강검진 및 집중 중성화 사업
사업기간	2019년 5월 ~ 11월 *접수 및 진료기간 기준
주최/주관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input type="text"/>
사업대상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애니멀 호더의 반려동물, 동물유기 문제가 있는 특수한 재개발 지역
사업목적	- 저소득층 혹은 애니멀 호더와 같은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중성화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반려생활 지원 및 반려동물 번식으로 인한 문제 심화 예방 - 재개발 지역 등 환경적 돌봄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집중 중성화를 제공함으로써 동물유기 및 번식을 예방하고 원서식지에서 내몰린 길고양이들의 생존 대책 마련 지원

동물권행동 카라는 상기 내용과 같이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라 동물병원을 거점으로 귀 병원과 협업하여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각 서비스 항목의 제공에 있어 몇 가지 기준을 갖고자 하오니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업진행 관련 협업사항

1) 의료서비스 관련

동물등록 (개, 고양이 모두)	① 내장형 칩 동물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본 사업에 사용되는 내장형 칩은 카라에서 일괄 구입 후 병원에 배부해 드릴 예정으로 전달받으신 것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동물등록증은 내장칩 이식 후 발행하며 자체발급이 불가할 경우, 해당 구청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① 건강검진은 개의 경우 흉부 X-ray,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검사를, 고양이(반려묘)의 경우 흉·복부 X-ray, 혈액검사를 진행합니다. 길고양이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건강검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p>(X-ray는 2컷 기준으로 하며, 대형견의 경우, 노령견이거나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을 보여 주의가 요구될 시에 한하여 복부 X-ray 2컷을 추가, 총 4컷 촬영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② 본 사업에 사용되는 심장사상충 검사 키트는 카라에서 일괄 구입 후 병원에 배부해 드릴 예정으로 전달받으신 것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p> <p>③ 혈액검사서에서 혈구검사는 CBC, 혈청검사는 ALT, AST, TP, ALB, BUN, CREA, GLU, TBIL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p>
예 방 접 종	<p>개는 종합 백신 5종과 광견병을, 고양이는 종합 백신 3종으로 접종합니다. 보호자로부터 이전 접종 내용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p>
중 성 화 수 술	<p>① 중성화 수술은 반드시 보호자의 수술 동의서 작성 후 진행하며 수술 동의서는 최소 2년 이상 잘 보관해 주십시오 (*수술동의서는 별첨 1 참조).</p> <p>② 중성화 가능 연령은 개와 고양이 모두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p> <p>- 고령(13세 이상)의 반려동물도 치료적 중성화일 경우는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며, 예방적 중성화일 경우는 보호자의 강한 의사와 책임을 전제로 수술을 진행합니다.</p> <p>③ 중성화 가능 몸무게는 개는 크기 및 나이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로 판단하며, 고양이는 최소 2.5kg 이상이어야 수술을 진행합니다.</p> <p>④ 심장사상충이 양성일 경우, 1기는 수술을 진행하며 2기 이상은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p> <p>⑤ 심장사상충이 1기인데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사와 반려동물의 상황에 따라 사업단과 논의 후 심장사상충 전처치 약을 함께 처방합니다.</p> <p>(전처치약의 종류, 처방기간, 전처치의 범위 등은 보호자의 의사와 반려동물의 상황에 따라 사업단과 논의 후 결정됩니다.)</p> <p>⑥ 입원 기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하루 입원을 원칙으로 합니다.(추가 입원의 사유는 특이 증상 또는 별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길고양이의 경우 수컷 24시간, 암컷 72시간 이후 방사)</p> <p>⑦ 수술에서 사용하는 봉합 실의 경우, 병원을 재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녹는 실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p> <p>⑧ 수술 진행 후 암컷의 경우 적출된 난소와 자궁, 수컷의 경우 적출된 고환의 사진을 촬영하셔서 추후 본 사업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p>

	<p>⑨ 중성화 수술 후 처치는 최소 6일치 항생제 약을 처방합니다. 길고양이의 경우처럼 약을 먹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로 대체합니다.</p> <p>⑩ 중성화 수술 후 퇴원할 때에는 (길고양이를 제외하고) 넥카라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p>
--	---

2) 행정처리 관련

연 락 체 계	-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업단 공식 이메일 주소: seoul@ekara.org		
	- 예약 관련 사업단 내 각 병원 연락 담당자		
	병원명	담당자	담당자 직통번호
	카라 동물병원	이미나, 임소민	070-4760-9084~5
	월드펫 동물병원 N동물의료센터 (노원점, 강북점)	임소민	070-4760-9085
우리동생 동물병원	이미나	070-4760-9084	
행복한 동물병원			

의 료 차 트	<p>① 건강검진 및 중성화 수술 결과(의료차트 주요 내용)를 해당 병원 담당자에게 카톡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상태 파악용 : 견명, 보호자명, 서비스 항목, 특이사항, 적출된 자궁·난소, 고환 사진 등)</p> <p>② 보호자가 동물병원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 카톡으로 전달해주신 ①의 내용을 보호자에게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출 사진은 제외)</p> <p>③ 사업단에서 동물병원 이동을 보조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이동시키러 사업단에서 파견한 보조이동 담당자가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므로 본 사업단의 해당 병원 담당자에게 카톡도 전달해주시고(①을 말함), 병원을 직접 방문한 보조이동 담당자에게도 ①의 내용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병원 담당자 :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업단을 말함).</p>
결 제 관 련	<p>① 의료서비스 진행에 따른 결제는 본 사업단에서 월별로 진행합니다.</p> <p>② 매월 15~16일 중으로 각 동물병원에서 진행된 의료서비스 항목을 정리하시어(본 사업 기준 비용은 별첨 참조) 각 동물별 청구서를 서울시 중성화 사업단 이메일(seoul@ekara.org)로 보내주시면 사업단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매월 20일 각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단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사업 의료서비스 기준 비용은 별첨2 참조</p>
설문지관련	<p>사업 담당자가 보호자에게 설문지 안내를 할 예정이오니, 병원에서도 설문지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p>

작성된 기준과 같이 동물등록,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주

시기 바라며 본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업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업단
이메일 : seoul@ekara.org
연락처 : 070-4760-9084~5
담당자 : 이미나, 임소민

별첨1) 수술동의서
별첨2) 본 사업 의료서비스 기준 비용

<의료서비스 기준 비용>

항목	동물 종류	세부 항목	단가 계산 수식	
동물등록	개, 고양이 모두	내장형 칩 삽입 *칩 재료는 사업단에서 제공	10000원	
건강검진	개	흉부방사선 2컷 기준	44000원	
		혈액검사 CBC 및 혈액검사 chemistry	77000원	
		심장사상충 검사(4Dx, idexx) *키트 재료는 사업단에서 제공	0원	
	고양이	흉·복부방사선 2컷 기준	44000원	
		혈액검사 CBC	77000원	
		혈액검사 chemistry	77000원	
중성화수술	개 시술비 (마취 및 입원 포함)	수컷	100000원	
		암컷 (몸무게별 기준 별첨1)	250000 ~ 400000원	
	개 시술비 외	수술시 투여 항생제	5000원x2회= 10000원	
		수술후 내복약	3000원x7일= 21000원	
		흡입마취 필요시	30000원	
		컨베니어 필요시	50000원	
		고양이 시술비 (마취 및 입원 포함)	수컷	80000원
			암컷	200000원
고양이 시술비 외	수술시 투여 항생제		5000원x2회= 10000원	
	수술후 내복약		3000원x7일= 21000원	
중성화수술	고양이 시술비 외	흡입마취 필요시	30000원	
		컨베니어 필요시	(1kg당) 10000원	
	예방접종	개	종합백신 5종	25000원
			광견병	20000원
고양이		종합백신 3종	35000원	

별첨1) 중성화 수술 - 몸무게별 암컷 개 시술비

-10kg 이하: 25만원

-10kg초과 20kg이하: 30만원

-20kg초과: 40만원